「대구정체성」 핸드북

대구시민주간

대구를 찾아서

대구문화재단
Daegu Foundation for Culture

대구교육누리

「대구정체성」 핸드북

대구시민주간

대구를 찾아서

• 발간사 •

'대구(大邱)'는 한반도 남동쪽 내륙에 위치한 대도시입니다. 그렇지만 대구가 속한 지역을 '남동지방'으로 부르지 않고, 신라시대 이래 '영남(嶺南) 지방'으로 불러왔습니다. 그 이유는 백두대간에서 이어지는 소백산맥의 남쪽에 위치하는 지방으로 여기를 넘는 여러 고개[령(嶺)] 즉 '조령(鳥嶺, 새재)', '죽령(竹嶺, 대재)' 등의 남쪽 일대에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듯 대구는 북서쪽으로는 큰 고개를 넘어야할 정도로 험한 산맥들이 감싸고 있고, 남동쪽으로는 남해와 동해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근거로 하여 대구를 고립되고, 폐쇄적인 곳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구의 역사를 보다 깊이 있게 고찰하여 보면 대구는 오히려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삼국을 통일한 주체들이 살았던 곳, 고려의 탄생을 있게 한 전투가 있었던 곳, 조선의 통치 이념을 확립하고 실천했던 곳, 근대와 현대로의 이행기에 역사적 사명을 선도한 곳,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마지막까지 지킨 곳 등이 모두 대구를 중심에 둔 영남지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무더위 만큼 뜨거운 대구는 '융합과 상생의 원천', '사상과 문화의 용광로'와 같은 고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지닌 '대구'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하여 수많은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전문적이고, 학술적이거나 일반인들을 위한 저술이 많은 까닭에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쉽게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요약하여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본 단체에서는 먼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의 정체성 찾기' 사업에 참여하여 '대구정체성 설문조사', '대구정체성 투어', '근대 대구의 역사와 문화사 발간' 등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6차에 걸친 '대구정체성 초·중등 교육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보다 많은 대구지역 청소년들이 본 자료를 접할 수 있게 모든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대는 '세계화 시대'에서 나아가 '세계지역화 시대'라고 한다. 즉 '세계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 흐름이 바깥으로의 확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와 동시에 안으로의 내실도 함께 추구해 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구문화재단」과 「대구교육누리」에서는 이 책자를 발간합니다.

'대구정체성'이란?

'정체성'이 무엇인지? 특히 '대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시민과 학자 그리고 교육자들이 아래와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 대구정체성 시민포럼

일시 : 2018년 2월28일(수) 15:00 ~ 17:00
장소 : 국채보상운동기념관 2층
주최/주관 : 대구광역시/대구문화재단·대구교육누리
주제 :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을 통해 본 대구정체성

□ '지역정체성'의 개념

개인의 정체성은 그가 태어나서 삶을 영위해가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상이한 지역정체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역정체성'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지역의 제반 정치·경제·문화적 특성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자신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지역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와 그것에 대해서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자부심이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지역정체성과 일체화되는 것에 비례해서 자신의 지역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고 구별하려고 하며(**지역범주화**), 지역의 특성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며(**지역동일시**), 지역에 기반을 둔 자부심과 자아 존중감을 갖게 된다(**지역자존감**)고 할 수 있다. (심재권·황정희, 2014) 대중매체, **교육기관**, 공공시설, 각종 민간단체, 정치·**경제**·행정·법률 등과 관련된 기구(Crocker & Quinn, 2004)로 분류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경제·행정·언어·매체·문학·권력관계 등의 다양한 제도적 요소들(이영민, 1999)로 나누기도 하며,…… 민속 문화·**유적**·축제 등의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유산**(Woodward, 2002), 랜드 마크 등의 지역 **이미지**(Campion & Fine, 1998) 등을 열거하기도 한다. [2·28민주운동과 대구정체성 - 윤순갑 (경북대 정치외교학) 2018.2.28.]

위와 같은 토론 자료를 바탕으로 '정체성의 개념'을 설정하고, '정체에 미치는 요인'을 참고하여 본 책에서는 '대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6가지 분야(1.이미지 2.정신문화 3.역사 4.인물 5.경제 6.교육기관)에 걸쳐 탐구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6차에 걸친 포럼을 통하여 대구정체성의 개념과 정체성에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 점검해 본 결과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목 차

1 대구의 이미지를 찾아서 7

1 문화유산 10
2 역사적 사건 13
3 인물 19
4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21
5 먹거리 37
6 축제·공연 41
7 산업 45
8 정서적 이미지 53
9 기타 60

2 대구의 정신문화를 찾아서 65

1 불교문화 68
2 유교문화 70
3 천주교문화 74
4 개신교문화 76

3 대구의 역사를 찾아서 ····· 79

1 선사시대 ····· 81
2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 85
3 고려시대 ····· 91
4 조선시대 ····· 95
5 근대 ····· 100

4 대구의 인물을 찾아서 ····· 109

1 삼국~조선시대 ····· 111
2 근대 ····· 113

5 대구의 경제를 찾아서 ····· 145

1 대구의 전통시장 ····· 147
2 대구의 산업단지 ····· 152

6 대구의 교육기관을 찾아서 ····· 167

1 개화기 ····· 169
2 일제치하 ····· 170
3 광복 직후 ····· 171
4 1950년대 ····· 180
5 1960년대~2018년 현재 ····· 182

제1장

대구의 이미지를 찾아서

제1장 대구의 이미지를 찾아서

2017년 「대구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여론조사 기관 「코뮤니타스」에 의뢰하여 '대구정체성' 과 관련된 설문조사*[참조]를 실시하였는데 본 책에서는 이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 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구에 사는 '일반 시민' 700명과 '오피니언 리더' (어떤 집단 내에서 타인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에 강한 영향을 주는 사람) 300명에게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어보니 전체 65개 단어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에서 이를 바탕으로 내용별로 재정리하여 15개 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본 책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인용한 다음 그 의미를 해석하여 가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순위는 표본 집단이 큰 '일반 시민' 의 응답률이 높은 순서대로 정하였고, 두 집단 간의 응답률을 비교해 가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항목은 항상 후순위에 넣었습니다.

> *[참조] 「대구역사문화연구소」는 2017년 11월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뮤니타스'에 의뢰하여 대구의 '일반 시민' 700명과 '오피니언 리더' 300명, 총 1,000명을 대상으로 대구정체성에 관련된 설문조사(「'대구정체성' 및 자랑거리 발굴사업」)를 실시하고 책자로 발간하였습니다. 본 책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인용한 다음 해석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위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통계 중에서 "2.대구의 이미지(50~53쪽)"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대구의 상징 Colorful DAEGU Colorful DAEGU (내사랑 대구, 대구광역시, 2018)

▶ 대구의 마크
대구를 에워싸고 있는 「팔공산과 낙동강」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것으로 미래지향적 진취성과 세계지향적 개방성을 추구하는 활기에 가득찬 도시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 대구의 나무 - 전나무
대구 시민의 강직성과 영원성, 그리고 곧게 뻗어가는 기상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 대구의 새 - 독수리
활달하고 진취적인 기상과 개척자적 시민정신을 나타내는 독수리입니다.

▶ 대구의 꽃 - 목련
순박하고 순결하며 희생정신의 시민기질을 보여줍니다.

1 문화유산

['대구' 연상 단어] 1 문화유산				
순위	세부사항	일반시민	오피니언리더	비 고
1	달구벌	0.7	0.8	
2	불교유산	0.6	0.0	동화사·파계사·보현사
3	유교유산	0.1	0.0	
4	기타 문화유산	0.5	0.8	근대문화·근대골목·계산성당·청라언덕·향교

1) 달구벌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하여 대구의 일반 시민 0.7%, 오피니언 리더 0.8%가 '달구벌' 을 선택하였습니다. '달구벌' 은 지금 '대구(大邱)' 의 옛날 지명입니다.

'달구벌' 의 어원(말의 근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설은 '달구' 의 '달' 에는 '높다', '크다' 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구벌' 은 '높고 큰 벌판'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설은 신라의 시조 김알지의 탄생지인 계림(鷄林)과 관련된 '닭' 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닭' 을 경상도 사투리로 '달구새끼' 라고 한다고 하니 이렇게 보면 '신성한 존재인 닭이 많은 땅'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설은 벌판을 불로 '달구었다' 는 데서 그 연유를 찾고 있습니다. 대구는 예로부터 강물이 범람하는 분지 지형이라서 아마 수목이 울창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살던 우리 선조들이 농사 지을 땅을 마련하기 위해 불을 놓아서 '벌판을 달구어' 화전으로 개척하였기 때문에 '달구벌' 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구벌은 '달구어 개척한 땅'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大邱廣域市 DAEGU METROPOLITAN CITY

대구광역시

大邱廣域市

'대구광역시 상징캐릭터 패션이(Fashiony)

▩ '대구(大邱)' 지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삼국시대(5세기 말~6세기 초) '대구'의 옛 이름은 다벌(多伐), 달벌(達伐), 달불성(達弗城), 달구화(達句火), **달구벌**(達句伐)이라 표기되었는데 '화(火)'와 '벌(伐)'은 '**촌락, 읍성**'을 뜻하는 말이며, '달(達)'은 원(圓), 주(周) 등 '**넓은 공간**'을 의미한다. (중략) 신라 경덕왕 16년(757년) 당(唐) 문화의 영향으로 신라의 문물제도가 중국식(中國式)으로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벼슬이름이나 지방이름은 원칙적으로 2자의 한자로 개칭하였으며, 개칭의 방법은 음을 딴 것, 뜻을 따르는 것, 글자를 줄이는 것 등이 있었는데 **달구벌이 대구(大丘)로 바뀐 것은 음을 딴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대구광역시 지명 유래』, 대구광역시, 2018. 제2장 1~2쪽]

매년 대구의 첫날을 알리는 달구벌 대종

▩ '대구(大邱)' 지명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지 명	시 기	의 미
달구벌	삼국시대	· 달구벌 - 높고 큰 벌판
대구(大丘)	신라 경덕왕(757년)	· 대구[큰 대(大), 언덕 구(丘)]
대구(大丘)도호부	조선 세조(1466년)	· 도호부 - 현재의 광역시와 비슷함.
대구(大邱)도호부	조선 정조(1778년)	· 공자의 이름인 구(丘)와 같다고 하여 한자 변경
대구부	조선 고종(1895년)	· 부(府) - 최고 지방 행정구역
대구시	대한민국(1949년)	· 시(市) - 도시의 형태를 갖춘 5만 이상의 도시
대구직할시	대한민국(1981년)	· 직할시 - 정부 직할 하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대한민국(1995년)	· 광역시 - 광역행정구역으로서의 상급지방자치단체

2) 불교유산 / 동화사 · 파계사 · 보현사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하여 대구의 일반시민 0.6%, 오피니언 리더 0.0%가 '불교유산' 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피니언 리더 집단에서는 선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신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눌지왕(417~458) 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불교를 믿을 수 없다가, 법흥왕 14년(527) 이차돈의 순교로 다음 해 국교로 공인되고 사찰이 건립되면서 불교가 융성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통일신라 시기에는 경주를 중심으로 불교가 더욱 발전하였는데 그 영향 아래에 있던 대구에도 팔공산 일대를 중심으로 동화사, 파계사, 보현사 등 여러 사찰들이 창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불교가 1,50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니 일부 대구 시민들들 입장에서는 불교문화가 대구의 대표 이미지라 여긴 것 같습니다.

3) 유교유산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하여 대구의 일반시민 0.1%, 오피니언리더 0.0%가 '유교유산' 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에서는 선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불교유산' 과 함께 대구의 이미지를 연상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즉 대구 시민 스스로 유교 · 불교 문화 등 정신문화가 대구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될 만하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에는 '유교문화' 적 전통이나 인물 그리고 문화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에 나오는 대구의 '역사적 사건' 에는 불교의 '호국사상' 과 유교의 '충의사상' 그리고 근대 '민주사상' 이 한데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4) 기타 문화유산 / 근대문화 · 근대골목 · 계산성당 · 청라언덕 · 향교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하여 대구의 일반시민 0.5%, 오피니언 리더 0.8%가 '기타 문화유산' 을 선택하였습니다.

대구가 형성된 이후부터 조선조 때까지는 전략적 요충지나 각종 물류의 중심지 역할 정도만 하고, 정치나 문화적으로는 다소 소외되었던 '대구' 가 근대에 오면서 그동안 축적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즉 구(舊) 한말(韓末) 격동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운동이 일어난 곳이 바로 '대구' 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기술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대구의 근대 골목을 돌아보면 그 증거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대구 근대골목 투어를 떠나 봅시다.

□ 대구 중구 골목투어 - '근대 로(路)의 여행'

대구 중구청은 '근대 로(路)의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골목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테마별로 꾸민 5개의 관광코스와 야경투어·맛투어를 합쳐 7개의 코스가 있다. 코스별로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15명 이상이 참가할 경우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daegu.kr)나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무료로 골목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모바일로 '대구 중구 골목투어'를 검색해 앱을 설치하면 혼자서도 쉽게 찾아다닐 수 있다.

2 역사적 사건 / 국채보상운동 · 2·28민주운동

['대구' 연상 단어] 2 역사적 사건				
순위	세부사항	일반시민	오피니언리더	비고
1	역사적 사건	0.8	0.9	국채보상운동 · 2·28민주운동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하여 대구의 일반시민 0.8%, 오피니언 리더 0.9%가 '국채보상운동과 2 · 28민주운동' 을 역사적 사건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국채보상운동' 은 국가의 빚을 백성들이 자진하여 갚겠다고 나선 운동입니다. 남녀와 계급 상하를 불문하고 참여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그 의미를 인정받아 2017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정식 등재되었습니다. 제13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이 제국주의 열강에 맞서 주권을 회복하고자 가장 앞선 시기에 일어났던 국권 수호 운동의 효시라는 점을 들어 등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채보상운동' 에 대해 알아봅시다!

□ 국채보상운동

1907~1910년 사이에 국채(국가의 빚)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갚기 위해 전개된 국권회복운동이다.

이 때 국채는 1,300만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당시 1년 예산을 넘어 서는 금액이었다.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1907년 2월 중순 **대구광문사**(신학문을 도입하여 민족의 자강 의식을 고취하고 있던 출판사로서 대한매일신보의 업무도 취급함) 사장 **김광제(金光濟)**와 부사장 **서상돈(徐相敦)**은 단연(斷煙;금연-담배피우지 않기)을 통하여 국채를 갚아 나가자는 국채보상운동을 제창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각종 신문에 보도되자 각계각층의 광범한 호응이 일어났다.

서울에서는 2월 22일 김성희 등이 국채보상기성회를 설립하고 취지서를 발표하였고 그 뒤 전국에서 '국채보상'의 이름을 붙인 20여 개에 달하는 국채보상운동단체가 창립되었다.

운동에는 **신지식인**뿐만 아니라 **유림(儒林)**과 **전·현직 하급관리**들도 각 지방에서 **상민층**과 함께 적극 참여하였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조선조 내내 억압을 받던 많은 **부녀층, 노동자·인력거꾼·기생·백정** 등 하층민들까지도 적극 참여하여 이 운동은 그야말로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이에 일제는 갖은 방법을 다하여 방해하고 탄압하여 끝내는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그러나, 국채보상운동은 처음부터 순수한 애국 충정의 마음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하나로서 그 역사적 의의는 큰 것이다. 남성은 금연운동을 하였고, 부녀자들은 가락지·비녀 등 패물을 내놓았고, 아이들은 세뱃돈·심부름값 조차 가져왔으며, 그 중에서도 최하류층인 기생 '앵무'[본명:*염농산(1859~1946)]는 100원(현재 1억원 추정)을 내놔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리하여 여성계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을 최초의 조직적 **근대여성운동**으로 본다.

이 운동은 20세기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던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의 외채상환운동의 효시가 됐었고, 21세기 초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엄습했을 때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에서 경제회복 모델로서 주목을 받았다.

그리하여 2017년 유네스코(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 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전문기구)에서는 이러한 뜻을 높이 평가하여 대구의 국채보상운동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 http://www.gukchae.com 참조】

*「**염농산**」(1859~1946)은 기명 '앵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다. 그녀는 기생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섬기는 것이라 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으며, 대구의 한 학교에 재정위기가 오자 거액을 희사하고, 국채보상운동에도 4번째로 많은 돈인 백 원(현재 1억)을 기탁했다. 이에 진주와 평양의 기생들도 앞 다투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일제의 침략을 받는 시기에 기생들까지도 국권회복운동에 동참하여 전 민족적인 운동이 일어났다는 점과 기생들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EBS 다큐프라임 '또 하나의 독립운동']

※「**남일동 패물폐지부인회**」 대구 남일동 패물폐지부인회는 남성 중심으로 펼쳐지던 국채보상운동을 여성의 영역까지 넓힌 동시에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 인정한 우리나라 근대 여성운동의 효시로 기억되고 있다. 국채보상운동은 처음엔 담배를 끊는 '3개월 단연'을 주된 방법으로 제시했다. 남성이 중심이 되는 남성 중심적 운동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여성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부인이라고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의미로 여성도 의연금을 내기 시작했다. 1907년 2월 23일 부인7명(정운갑 모 서씨, 서병규 처 정씨, 정운화 처 김씨, 서학균 처 정씨, 서석균 처 최씨, 서덕균 처 리씨, 김수언 처 배씨)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근대 여성운동의 효시가 되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 http://www.gukchae.com 참조】

▩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세계적 계승

□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방향성

1. 세계적 관점 : 부채문제를 다루는 전문기관으로 육성
   - 세계부채연구소 설립
   -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OECD부설 〈금융기술훈련원〉운영
   - UNESCO 카테고리2: 〈유네스코 책임사회센터〉 운영 등을 모색하고 있음
2. 국내적 관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대구의 새로운 명소로 변신
   - 한국의 기부문화1번지로서의 자리매김
   - 한국여성운동의 중심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
   - **대구정체성** : 대구시민의 시대정신의 원류로서의 역할
   - 문화 컨텐츠 중심의 창의적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OPEN LAB.
3. 세계시민사회와의 교류를 위한 거점 마련
   - 라키비움적 접근 :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시민 창의관의 복합공간

[대구정체성 포럼(2018.2.8.) :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국채보상운동과 책임정신의 세계화 전략 - 엄창옥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 세계가 주목한 「국채보상운동」과 「금 모으기 운동」

1998년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아 민간에서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당시 세계 주요 언론들은 금 모으기 행렬에 참여한 한국인의 모습을 경이로운 자세로 보도하였다. 2010년 5월 미국 월가의 저명한 경제칼럼니스트이자 블룸버그 통신의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William Pesek)이 그리스는 한국의 위기극복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유교 사상에 반하는 그리스의 고통 없는 구제금융(Greece's No-Pain Bailout Fails Confucian Ethics)'이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그리스는 악몽과 같은 이번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한국의 위기극복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대사에서 한국의 금 모으기 같은 민중의 노력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빠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1998년 한국인의 금 모으기 운동의 뿌리는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이었다.

[대구정체성 초·중등 교육포럼(2018.8.21.제6차) '한국 근현대사 속의 대구, 대구 정신' - 허종(충남대 국사학과)]

'2 · 28대구학생의거'는 1960년 2월 28일 정부와 여당의 부당한 선거 개입에 항의하며 벌인 대구 학생들의 순수한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근대 서구 사상을 받아 들인지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구의 학생들은 선도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자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앞 선 '국채보상운동'과 함께 대구의 정신을 잘 보여 주는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28민주운동'에 대해 알아봅시다!

□ 대구 2·28민주운동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의 발상지 대구'

대구를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부정적인 이미지 중 '보수적'이라는 수식어가 있다. 그렇다면 대구는 정말 '그런' 도시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구는 그런 도시가 아니다.

대구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의 발상지라는 역사가 분명히 존재한다.

2·28민주운동이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시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2·28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지금도 살아 있는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정신이다. **4·19혁명의 시발점**이자 오늘의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한 자랑스러운 2·28민주운동. 아버지에서 아들로, 과거에서 현재로 우리에게 전해져 온 역사의 DNA를 잊지 않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대구시민이 되어야 할 때이다.

1960년 2월 28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대구 학생들은 학교로 등교를 해야 했다. 야당의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장면 박사의 선거 연설회에 학생들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자유당(당시 집권당)의 꼼수였다. 학생들은 불의에 몸을 떨었고, 교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이 학생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2·28민주운동은 당시 참여 주체가 고등학생들이었지만 그 시대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의 암묵적 동의와 대구 시민의 시대정신이 담긴 반독재 민주운동의 분출이었다. 4·19혁명의 시발점이 됐으며 오늘의 한국을 만드는 획기적 사건이었던 2·28민주운동은 **대구의 자긍심**이다. [『대구 참 좋다』,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이러한 2 · 28민주운동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자 대구시민들이 청원하여 2018년에 48번째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도록 하였습니다. 3 · 15의거 기념일과 4 · 19혁명 기념일, 5 · 18민주화운동 기념일, 6 · 10민주항쟁 기념일에 이은 5번째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기념일입니다.

2 · 28민주운동은 대구 정체성의 한 뿌리이기도 하기에, 지금도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대구 시민들은 각종 단체와 기념장소를 아래와 같이 설립하고 조성하였습니다.

▷2 · 28 학생의거 기념탑 (두류공원)
▷경북고 2 · 28 조형 (경북고)
▷반월당 집결지 표지판 (반월당 삼성빌딩 앞)
▷2 · 28민주운동기념회관 (중구 2 · 28길 9)
▷2 · 28기념중앙공원 (중구 동성로2길 80 2 · 28기념 중앙공원)

【2·28 대구민주운동 기념사업회 http://www.228.or.kr 참조】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정착하면서 삼국을 통일한 주체들이 살았던 곳, 고려의 탄생을 있게 한 전투가 있었던 곳, 조선의 통치 이념을 확립하고 실천했던 곳, 근대와 현대로의 이행기에 역사적 사명을 선도한 곳이 모두 대구를 구심점으로 한 영남지방이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역사적 변혁과 추진 동력을 제공한 곳이 '대구'라는 것입니다. 특히 근대에 와서 5,000년을 이어오던 유구한 역사가 외세에 의해 침탈당하여 유사 이래 처음으로 국가가 패망할 지경에 이르러서는 '대구 시민'들이 앞장서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구체적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에 대구에 사는 시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이라는 계급을 넘어서고, 당시까지도 심했던 남녀차별을 초월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한 사건이라 하니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광복이 되고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였지만, 새로운 정부가 건국의 기본이념인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독재의 길로 나서자 대구의 순수한 청소년들은 분연히 일어나 '대구 2·28민주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는 중대한 의거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위 두 운동은 삼국 시대 이래로 축적되어 온 역사적 유산을 간직한 '대구'였으니 가능했던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삼국을 통일한 신라인들의 '화랑정신', 불교적 전통에서 유래하고 6·25 사변 때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지켜낸 '호국사상', 개인과 국가의 법도를 제시한 조선조의 '선비정신' 그리고 현대에 와서 우리 민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새마을 정신'이 발현되고 실천된 공간의 중심에 '대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 정국기에는 극심한 좌우세력의 대립 속에서 대구의 좌우세력은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타협과 연합의 모습을 보였다. …… 이처럼 대구시민은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대구정체성 초·중등 교육포럼(2018.8.21.제6차) '한국 근현대사 속의 대구, 대구 정신' - 허종(충남대 국사학과)]

그러므로 영남지방의 구심점에 서 있는 대구는 '각종 유산을 축적하면서 시대정신을 발현하여 실천하는 땅' 즉 '사상과 문화의 용광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3 인물 / 박정희·박근혜·노태우 / 김광석·이상화·이인성 / 이승엽·박주영·김완욱

['대구' 연상 단어] 3 인물				
순위	세부사항	일반시민	오피니언리더	비고
1	정치인물	1.0	0.9	박정희·박근혜·노태우
2	문화예술인물	0.7	0.6	김광석·이상화·이인성
3	기타인물	0.1	0.1	이승엽·박주영·김완욱

'대구'하면 연상하는 단어에 대구의 일반시민 1.0%, 오피니언 리더 0.9%가 '정치인물'을 제시하였습니다.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정치 인물들을 대구가 많이 배출하였지만 1% 내외의 사람들만이 대구의 대표 이미지로 연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다소 의외의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연상 단어에 대구의 일반시민 0.7%, 오피니언 리더 0.6%가 '문화 예술인물'을 제시하였습니다. 김광석은 가수이고, 이상화는 시인이며, 이인성은 미술가입니다.

이상화 (1901~1943)

(1901~1943) 영원한 한국인 이상화! 그는 조국의 아픈 현실을 통감하며 저항정신을 시에 담아 표현한 시인이자, 나라와 겨레의 고통을 해방시키고자 고뇌하고 행동한 독립 애국지사이다. 수성유원지 부근에는 '상화동산'이 개장 되었다. 대표작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 ('제4장 대구의 인물을 찾아서'에서 자세히 나옴.)
【이상화기념사업회 http://www.sanghwa.org 참조】

김광석 (1964~1996)

김광석은 심금을 울려주는 음유시인으로 평가받으며 요절(젊은 나이에 죽음)한 이후에도 대구 사람들은 물론이고 대중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2010년 고향인 중구 대봉동에 '김광석다시그리기길'이 조성되어 그를 기리는 추모의 마음은 이어지고 있다. 대표곡 '서른 즈음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사랑했지만', '이등병의 편지' 등
【김광석길 https://www.kimkwangseok.or.kr) 참조】

▩ 이인성 (1912~1950)

이인성은 18살 때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한 뒤 1944년까지 30여점이 넘는 작품을 출품해 입선과 특선, 최고상 등을 받으면서 '조선의 보물', '천재 화가', '화단의 귀재'라고 불리며 당대 제일의 명성을 얻었다. 대표작 '경주의 산곡에서', '실내' 등. ('제4장 대구의 인물을 찾아서'에서 자세히 나옴.)

【조선 양화계의 거벽 천재화가 이인성 http://www.leeinsung.com 참조】

이어서 '대구' 연상 단어에 대구의 일반시민 0.1%, 오피니언 리더 0.1%가 '기타 인물'로 국민타자 야구선수 이승엽과 축구선수 박주영 두 체육인과 더불어 의사 김완욱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승엽(1976~)

이승엽은 18세에 야구 청소년국가대표가 되어 시드니, 아테네, 베이징 올림픽 야구 국가대표로 활약하였다. 그리고 국내 프로야구단 삼성 라이온즈(이승엽 별명 : 라이언 킹)를 비롯하여 일본 야구구단인 오릭스 버팔로스, 요미우리 자이언츠, 지바롯데 마린스 등에서 선수생활을 하였다. 아시아 역대 한 시즌 최다 홈런(56호), 역대 최단기간 40홈런, 역대 최연소 홈런왕, 역대 최다 mvp수상(5회), 역대 최다 홈런왕(5회), 역대 최연소/최단기간 300홈런 등 화려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23년 프로야구 선수 생활 중 홈런 626개, 타율 0.279를 기록하였다.

【이승엽 야구장학재단 http://www.leesy36.com 참조】

▩ 박주영(1985~)

박주영은 19세에 축구 국가대표가 되어 A매치 68경기에서 24골을 넣었다. 외국 프로축구팀 AS모나코, 아스널, 셀타비고, 왓퍼드FC, 알샤바브 등에서 활약하다가 2018년 현재 대한민국 K리그 클래식의 FC서울에서 뛰고 있으며, 포지션은 스트라이커이다. 대구 반야월초등학교, 청구중학교, 청구고등학교를 다녔다. 2003년 대구 MBC배 고교축구대회 득점왕을 비롯하여 제 30회 런던올림픽 축구 동메달을 수상하였다.

【대한축구협회 http://www.kfa.or.kr) 참조】

4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대구' 연상 단어] 4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순위	세부사항	일반 시민	오피니언리더	비고
1	기후-덥다	11.7	14.6	대프리카·무더위·폭염
2	팔공산·갓바위	10.1	5.7	
3	동성로	5.0	2.9	
4	서문시장	2.4	1.2	서문야시장
5	분지	2.2	4.1	지형적 특성 (분지)
6	이월드·83타워	1.9	0.2	우방타워·대구타워·우방랜드·이월드별빛축제
7	수성유원지	1.6	0.7	수성못
8	달성공원	1.4	0.7	
9	교통	1.3	1.8	대구역·동대구역·KTX·대구국제공항·지하철·교통이 좋다·깔끔한 도로·교통편리
10	두류공원	1.1	0.2	
11	김광석 거리	0.9	0.0	
12	앞산	0.7	0.7	
13	기후-춥다	0.6	0.2	추위
14	신천	0.4	0.2	
15	비슬산	0.3	0.0	
16	금호강	0.2	0.1	
17	동촌유원지	0.2	0.0	
18	기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4.9	2.9	함지산·낙동강·운암지·대구수목원·국채보상운동공원·공원·녹지가 많다·강정보·시장·중앙로·반월당·야시골목·백화점·야외음악당·옻골마을·야경·가을하늘

1) 기후 / 대프리카 · 무더위 · 폭염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하여 대구의 일반시민 11.7%, 오피니언 리더 14.6%가 '더위' 에 응답하였는데, 이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을 '대구' 의 대표 단어 전체 1위로 선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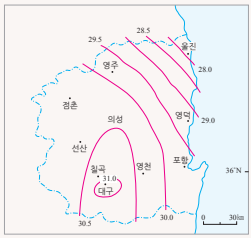
경상남도 '울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공업도시' 라 답을 하여 산업을 1위로, 전라북도 '전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비빔밥' 이라 하여 먹거리를 1위로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구' 에 대한 이미지는 산업이나 먹거리가 아니라 자연환경이 첫 번째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른 항목에서는 가치관의 큰 차이를 보이는 일반 시민이나 오피니언 리더가 모두 대구 대표 이미지 1위에 '더위' 를 선택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그만큼 대구 시민들 모두 '더위' 를 체감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문은 특히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대구는 왜 이렇게 더울까요?

대구는 한반도 남부의 내륙지방에 위치하며 해양의 영향이 적은 내륙도시일 뿐만 아니라 크게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인 경상분지 안에, 작게는 팔공산괴(山塊;산줄기에서 따로 떨어진 산의 덩어리), 비슬 산괴와 기타 구릉(丘陵;언덕)으로 둘러싸인 대구분지에 위치하고 있다.



최난월(8월) 일최고기온분포(℃)

이와 같은 **내륙분지** 위치라는 특유한 기후인자의 작용에 의해 대륙성 기후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여름의 고온과 겨울의 상대적 저온**이 대구기후의 특색이고, 이 결과 연 기온교차도 크다. 특히 대구는 **42.4℃(1942.8.1)**라는 우리나라 최고 더위를 기록할 정도로 더우며, 30℃ 이상의 혹서(酷暑) 지속 기간도 다른 지방보다는 길다.

이렇게 더운 이유는 대구의 고유한 위치적 성격에서 연유된 것이다. 즉 대구는 비교적 저위도에 위치한 내륙분지이고 또 분지상의 평균고도도 비교적 낮다. 이 때문에 여름철에 분지상이나 분지사면에서 발생하는 많은 복사열이 외부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더위를 식혀줄 비의 빈도나 양도 적기 때문에 더운 것이다. 이러한 대구의 더위를 외국에서는 "**날아가던 파리조차 지쳐 떨어지는 더위**"로 표현하고 있다.

대구 시민의 특유한 기질도 이러한 대구의 숨막히는 여름 더위와 무관하지는 않다.

[『대구시사』, 대구광역시,1995. 요약 재정리]

▩ 대구가 덥다 보니 새말[신조어]이 생기고 언론사의 오보까지 나왔습니다!

□ 대프리카(DAEFRICA)

여름에 무더운 대구를 일컫는 말로 대구(DAEGU)와 아프리카(AFRICA)를 합친 말이다. '대구가 아프리카만큼 덥다'는 뜻에서 만들어져서 대구의 별명이 되었다.

□ 그런데, 대구가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중앙에 있는 잠비아(Zambia)에서 와서 대구의 「영남이공대」에 유학중인 대니치모(Danny Chimo)는 대구가 너무 덥다고 합니다. 자기 고향은 해발 2500m에 있는데 평균 기온이 3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대구 바나나 오보 소동

대구시 동구 효목동 김덕규 씨 집 마당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보고 2017년 6월 13일 '한겨레신문'에서 '무더위 속 대구 단독주택 앞마당에 바나나 열매 맺혀'라는 기사를 보내서 한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열대 지방에서나 열리는 바나나 열매가 우리나라에도 열렸다는 사실에 모두들 신기하게 여겼다.

그러나 'KBS뉴스'(2017.06.27)에 '대구 가정집에서 열렸다는 '바나나' 알고 보니… 하지만 이 나무는 바나나 나무가 아니라 '파초'로 밝혀졌다.'라는 보도로 더운 대구에서 벌어진 여름의 소동이 끝났다.

▩ 덥다 보니 더위에 관련된 축제도 있어요!

□ 2018 대구 워터페스티벌

▷주　　제 : 덥다, 놀자!

▷기　　간 : 2018년 7월 29일(일)

▷장　　소 : 대구시 중구 북성로

▷주요내용 : 물총싸움, 공연, 푸드트럭, 플리마켓, 쉼터

▷축제내용 : 대구의 최고 열기에 최고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경북지역 최초 물총축제 대구 워터페스티벌. '물총싸움'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 도입 및 북성로 일대 지역주민과 대구 시민, 관광객, 다양한 예술가들이 어울리는 문화거리 조성

2) 팔공산 / 갓바위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구의 일반시민 10.1%, 오피니언 리더 5.7%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서 두 번째로 '팔공산'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팔공산 동쪽 경북에 위치하고 있는 '갓바위'를 '팔공산'과 묶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살고 싶은 그곳, 흥미로운 대구 여행(2014)』을 쓴 전영권(대구카톨릭대 지리교육과)은 '대구는 25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세계적인 대도시로 소위 메트로폴리스(거대도시)로 분류된다. 세계적으로 봐도 인구100만 명이 넘는 거대도시가 흔치 않다. 특히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높은 산이 거대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경우는 아마도 대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팔공산'과 남쪽에 있는 '대덕산(앞산)' 사이에 '대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 균형 잡힌 자연적 환경은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하니 팔공산의 가치를 알만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구'에 있어서 '팔공산'은 대구 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 '팔공산' 지명의 유래를 알아 볼까요?

'팔공산'에는 옛날부터 꿩[치(雉)]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꿩산**'이라 불렀는데, 이를 비슷한 한자음대로 적어서 '**공산**'이라고 하여 신라 때부터 고려 때까지 불리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팔공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먼저 대구도호부, 영천, 신령, 하양, 인동, 칠곡, 팔거, 부계 이렇게 여덟 고을에 걸친 산이라 '팔공산'이라 했다는 설과, 신숭겸, 김락, 호의, 전의갑, 전이갑, 전락, 김철, 손행(혹은 복지겸, 홍유인) 등 고려의 여덟 장수가 왕건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을 기려서 '**팔공산**'이라 했다는 설이 있다.

[『나의 사랑 대구』,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갓바위'가 있는 팔공산!

팔공산은 대구의 북쪽을 둘러싸고 있는 산으로 해발1,192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화사·파계사·부인사 등 수많은 불교 유적이 있다. 특히 정성스레 기도를 하면 평생 하나의 소원은 들어 준다는 보물 제431호인 **관봉석조여래좌상**(일명 **갓바위**)이 동쪽에 있고, 정상에 있는 제천단에서는 매년 개천절에 제천행사를 열고 있다.

예로부터 신라인들은 산악을 신으로 모시는 '산악 숭배사상'을 갖고 있어서 '삼산[나림(奈林)·골화(骨火)·혈례(穴禮)]'과 '오악(토함산, 계룡산, 지리산, 태백산, 공산)'을 두고 신라 최고의 제전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 공산이 바로 대구의 팔공산이다.

[『나의 사랑 대구』,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3) 동성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서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구의 일반시민 5.0%, 오피니언 리더 2.9%가 세 번째로 '동성로'를 선정하였습니다. '동성로'는 서울의 '명동', 부산의 '서면'처럼 대구를 대표하는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대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라서 각종 집회나 거리 공연이 자주 펼쳐지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대구에 처음 왔을 때 꼭 왔다가 가야 할 곳이라 여길 만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동성로는 어떤 곳일까요?

동성로(東城路)는 일제의 침략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명이다. 조선시대까지 있던 대구읍성의 '동(東)쪽 성(城)벽을 1907년에 허물고 낸 1km 가까운 길'을 말하는데 지금의 중앙파출소에서 대구역까지의 구간이다. 일제가 우리의 전통을 부수고 근대화라는 미명으로 침탈을 정당화하면서 생긴 거리인 것이다.

이 중 대구백화점 근처 거리가 일종의 중심가로 취급되어 이곳과 더불어 인근에 있는 2.28기념 중앙공원이나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각종 공연과 행사나 집회를 많이 개최한다. 대구에서 시내(Downtown)라 하면 대부분 이곳을 지칭한다.

대구의 중심상업지역이라서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 롯데영플라자,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이 들어서 있고, 지하상가로는 중앙로역을 중심으로 한 대현프리몰, 반월당역을 중심으로 한 메트로프라자와 메트로센터, 대구역을 중심으로 한 대구역지하상가가 있다. 그리고 야시골목, 통신골목, 로데오거리, 교동귀금속골목 등 특정상품을 특화하여 판매하는 장소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2018년 5월에는 제29회 동성로뷰티축제(http://dsr.or.kr/festival)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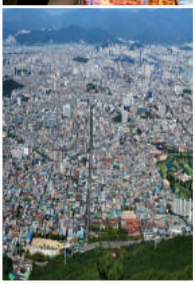
[『대구 참 좋다』,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4) 서문시장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서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구의 일반시민 2.4%, 오피니언 리더 1.2%가 '서문시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서문시장은 대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서 요즈음에는 많이 퇴색되었지만 과거에는 남부지방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 제5장 대구의 경제를 찾아서 가.대구의 경제 2.서문시장 참조

5) 분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서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구의 일반시민 2.2%, 오피니언 리더 4.1%가 '분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분지의 사전적 정의는 '해발(해수면으로부터 계산하여 잰 육지나 산의 높이) 고도가 더 높은 지형으로 둘러싸인 평지'로서 보통의 평야보다 해발 고도가 높으며, 기온의 교차가 큰 내륙성 기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비슷한 말은 '함지땅'이라고 합니다.

▩ '대구분지[Daegu Basin, 大邱盆地]'에 대해 알아 봅시다.

대구분지는 팔공산~보현산~주사산~단석산~선의산~최정산~비슬산~가야산~금오산 등 높이 300m 이상의 산지가 있고, 서쪽과 동쪽으로는 높이 150m 내외의 구릉지로 둘러싸인 평지로 낙동강의 지류인 금호강과 신천이 그 가운데로 흐른다.

6) 이월드/83타워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서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구의 일반시민 1.9%, 오피니언 리더 0.2%가 '이월드 · 83타워'를 선정하였습니다. 83타워는 대구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상징물로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대구에 도착했을 때 가장 인상적으로 발견하는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타워를 품고 있는 이월드는 대구의 대표적인 테마파크로 대구 시민들을 비롯한 다른 지역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 대구 시민들의 놀이터, 이월드와 83타워!

□ 이월드와 83타워

서울에 N서울타워가 있고 도쿄에 도쿄타워가 있다면, 대구에는 83타워가 있다. 대구타워, 두류타워, 우방타워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어졌고, 높이 202m로 국내에서 N서울타워 다음으로 높다. 77층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대구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83타워는 1984년 대구광역시 승격 기념으로 착공하고 1992년 완공해 대구광역시와 역사를 같이한다. 2012년에는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대구의 상징으로 첫손에 꼽혔다.

이월드는 83타워를 품고 조성한 **테마파크**이다. 진입광장에 들어서면 웨스턴 광장, 어린이 광장, 영타운 광장 등을 중심으로 놀이기구와 낭만적인 공간이 있고, 봄에는 별빛벚꽃축제와 50만송이튤립축제, 여름에는 아쿠아판타지, 가을에는 캐릭터판타지, 겨울에는 별빛축제 등이 열린다. [『도시철도로 떠나는 대구이야기여행』,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이월드 83타워(www.eworld.kr) 참조】

7) 수성유원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서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구의 일반시민 1.6%, 오피니언 리더 0.7%가 '수성유원지'를 선정하였습니다.

▩ 가족 산책로로 각광받는 수성 유원지!

□ 수성유원지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배경**이 되고 상화동산이 조성된 수성들에 있는 수성유원지는 범물동 용지봉(629m)에서 북서부로 뻗어 내린 줄기의 하부에 위치하여 주변의 완만한 산지와 수성못을 끼고 자연의 경관미를 이루고 있다.

1925년에 조성된 수성못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21만 8000㎡의 면적에 못 둘레도 2,020m에 이른다. 보트놀이와 오리배 등을 즐길 수 있는 수성못과 어린이

놀이터, 두산폭포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 **가족나들이 코스**로 적격이다. 2007년 9월 설치된 영상음악분수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일 4회에 주간, 야간 공연을 하며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수성구문화관광 http://www.suseong.kr/tour참조】

8) 달성공원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서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구의 일반시민 1.4%, 오피니언 리더 0.7%가 '달성공원'을 선정하였습니다.

▩ 대구의 뿌리 '달성' - 대구 2천년의 역사를 지닌 곳이죠!

□ 달성공원

달성(達城)은 달구화(達句火), 달불성(達弗城)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니 달성은 **대구의 뿌리**인 셈이다. 달성은 청동기시대 이래로 이 지방의 중심세력을 이루고 있던 집단들이 그들의 생활근거지에 쌓은 성곽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벽의 아래층에는 조개무지 유적이 있고 목책(木柵)의 흔적도 있다.

신라에 합병된 뒤에는 군사요지로 중시되었으며, 고려 공양왕 2년(1390)에는 토성에 석축을 더했으며, 조선조 선조29년(1596)에는 석축을 더하고 경상감영을 이곳에 두었다. 성벽은 주로 흙으로 축조되었고 주위 길이는 약1,300m 높이는 4m 안팎이다.

일제강점기 때 달성은 일본군의 주둔지로 오욕의 역사를 겪었지만, 광복 이후에는 민족시인 이상화와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왕산 허위, 석주 이상룡 선생의 뜻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고, 수운 최제우(동학의 창시자)의 동상이 건립되기도 했다. 그리고 달성서씨 유허비, 어린이헌장 비, 서침나무 등도 있다.

무려 2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달성에는 진정한 대구의 역사가 숨 쉬고 있다. [『대구 참 좋다』,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달성공원 http://www.daegu.go.kr/Dalseongpark 참조】

9) 교통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서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구의 일반시민 1.3%, 오피니언 리더 1.8%가 '교통'을 선정하였습니다.

대구는 지리적 여건상 물류 중심지로 성장한 도시라서 교통도 발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대구 시민들은 교통과 관련하여 '대구역 · 동대구역 · KTX · 대구국제공항 · 지하철 · 교통이 좋다 · 깔끔한 도로 · 교통편리' 등의 단어를 연상하였습니다.

특히 대구는 분지 지형이라서 사통팔달로 정비된 도로 덕분에 다른 도시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도시 위를 달리는 하늘 열차(Sky Rail) - 대구 도시철도 3호선!

□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은 전국 최초로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된 도시 철도이다. 지상 평균 11m 높이에서 운행하는 열차는 하늘을 달린다고 해서 '**하늘 열차**(Sky Rail)'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준비 3년, 공사 5년, 시험운전 1년까지 10여 년의 노심초사 끝에 2015년 4월 23일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평균 시속 29km로 운행되는 3호선은 칠곡경대병원역부터 용지역까지 30개 역 23.1km 구간을 48여분 만에 이동한다.

3호선이 개통되면서 대구 도시철도는 동서와 남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교통체계로 완성되었다. 지상 평균 11m 높이에서 운행하는 열차는 대구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는 '움직이는 전망대' 이기도 하다. 북구 칠곡~수성구 범물간 소요시간을 승용차보다 26분 정도 단축한 것도 강점이다. [『대구 참 좋다』,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10) 두류공원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서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구의 일반시민 1.1%, 오피니언 리더 0.2%가 '두류공원' 을 선정하였습니다.

▩ 대구 시민들의 쉼터 - 두류공원!

□ 두류공원

대구 중심에 있는 두류공원은 주요 시설인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성당못이 위치한 금봉산 그리고 이월드와 83타워가 있는 두류산 자락을 아우른다.

두류산은 원래 두리산이라 불렸는데, '**둥글고 커서보기 좋은 모양**'을 가리키는 '두리두리'에서 왔다고 한다. '두르다'에서 왔다고도 하는데, 두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두류공원은 면적이 165만 3965㎡에 달하고 이월드와 83타워가 자리한 두류산 쪽을 제외하더라도 두류야구장, 두류도서관, 대구문화예술회관, 인물동산, 코오롱야외음악당, 성당못 등 다채로운 시설이 공원을 두르고 있다. 또 수목 200여 종 20만여 본이 꽃을 피운다.

특히 코오롱야외음악당은 2000년 두류공원 임업시험장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국내 최대 야외 공연장으로 개장 기념으로 오페라 〈투란도트〉가 공연돼 화제를 모았다. 요즘은 대구치맥페스티벌의 중요한 행사장이자, 대구 시민의 평화롭고 한적한 쉼터이다.

《대구읍지》에는 서거정의 시를 빌려 **대구10경**을 정리했는데, 그 5경에 해당하는 남소(南沼)가 성당못이다. 원래는 집터였는데 임금이 태어날 명당인 관계로 이에 연못을 만들어 집이나 무덤을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제는 거북섬과 학섬, 부용정, 삼선교, 멀리 83타워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수변 경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성당못 서쪽 연못은 한반도를 닮았다고 하니 확인해 보길 바란다. [『도시철도로 떠나는 대구이야기여행』,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두류공원 www.daegu.go.kr/Duryupark 참조】

11) 김광석 거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서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구의 일반시민 0.9%, 오피니언 리더 0.0%가 '김광석 거리'를 선정하였습니다. 일반시민들은 '김광석 거리'를 0.9%나 대구의 대표 이미지로 연상하는데, 오피니언 리더는 전혀 없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대구를 연상하는 인물에도 '김광석'이 등장하니 대구 시민들은 그를 꽤나 사랑하나 봅니다.

▶1 인물 2.문화예술인물 김광석 참조

12) 앞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서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구의 일반시민 0.7%, 오피니언 리더 0.7%가 '앞산'을 선정하였습니다.

▩ 대구를 품고 있는 앞산!

□ 앞산공원

대덕산, 성불산이라 불리는 해발 660m 앞산은 '대구 앞쪽에 있는 산'이라는 뜻으로 붙은 이름이다. 산성산, 청룡산과 이어진 앞산은 용두골, 고산골, 강당골, 안지랑골, 골안골, 매자골, 달비골 등 크고 작은 골짜기가 있다.

도심에서 5km 이내에 있는 앞산공원은 대구 시민이 가볍게 찾기 좋은 쉼터로서 입구에는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 승리를 기념하고 나라를 지킨 참전 용사를 기리는 낙동강승전기념관(http://www.nakdongwar.or.kr)이 있는데 전쟁 관련 전시물을 볼 수 있다. 기념관 주변으로 이호우, 이윤수 시인의 시비가 있고,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의 순국기념탑도 눈에 띈다.

앞산공원 곳곳에 고려 태조 왕건의 흔적이 있다. 왕건은 927년 공산전투에서 후백제 견훤에게 패하고 반야월을 거쳐 앞산으로 피신했는데, '왕지렁이'에서 유래했다고 해서 '안지랭이', 왕건이 이곳에서 편안히 머물렀기에 '안일사', 잠시 쉬어 갔다고 해서 '임휴사', 자취를 숨긴 곳이라서 '은적사'라고 부른다고 하며, 왕이 머물렀다는 왕굴도 있다.

중생대 백악기의 공룡 발자국도 근처에서 볼 수 있으며, 대구의 풍경을 한눈에 담기에 앞산전망대만 한 곳이 없다. 앞산전망대로 가려면 케이블카를 타거나 등산로로 올라야 하는데, 케이블카를 타려면 앞산공원 정류장에서 승강장으로 걸어가고, 가장 가까운 등산로는 안지랑골의 안일사를 지나가는 1.6km 코스로 가파르지만 짧은 거리라 가뿐하게 다녀오기 좋다. 등산로에 가로등을 설치해 야간 산행도 인기가 있다. [『도시철도로 떠나는 대구이야기여행』,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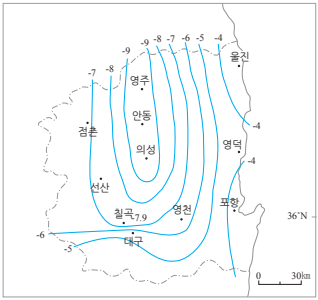
【앞산공원 http://www.daegu.go.kr/Apsanpark 참조】

13) 기후-춥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서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구의 일반시민 0.6%, 오피니언 리더 0.2%가 '기후-춥다'를 선정하였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대구 전체를 대표하는 이미지에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더위'였는데, 겨울의 추위를 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분지의 기후 특성상 여름에는 매우 덥고[혹서(酷暑)], 겨울에는 매우 춥기[혹한(酷寒)]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겨울의 대구는 영주와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내륙지역과 기온 분포가 비슷합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청도나 포항 방면에 있는 도시보다 더 추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1961~1990년 대구 최한월 일최저기온 분포도『대구시사』, 대구광역시, 1995]



최한월(1월) 일최저기온분포(℃)

14) 신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서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구의 일반시민 0.4%, 오피니언 리더 0.2%가 '신천'을 선정하였습니다.

▩ 수질이 건강하다는 지표종인 수달이 신천에 삽니다!

□ 신천(新川)

신천은 달성군 가창면 우미산에서 발원하여 가창면 용계리에서 용계천과 합류하여 대구를 남에서 북으로 가로질러 금호강으로 흘러든다. 서쪽 둑에는 신천대로가, 동쪽 둑에는 신천동로가 있어, 교통소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신천을 잇는 수 많은 다리 위로 밤낮없이 자동차가 다니고, 2015년부터는 신천 사장교 위로 모노레일이 다니기도 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오로지 1급수에서만 산다는 수달이, 사람과 자동차만 있을 것 같은 도

시에서 함께 살고 있다. 수달은 전 세계에 흐르는 물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종이며, 물의 생태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조절자이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 곳곳에 흐르는 물길은 수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약 3000만 년 전부터 한반도에 살았었지만, 우리의 욕심에 의해 더럽혀진 물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났던 멸종 위기 1급 천연기념물 수달이 2005년 대구 신천에 돌아왔을 때 대구시민들은 더없이 기뻐했다. [『대구 참 좋다』,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15) 비슬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서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구의 일반시민 0.3%, 오피니언 리더 0.0%가 '비슬산'을 선정하였습니다. 일반시민은 0.3%가 대구 대표 이미지에 포함시켰으나 오피니언 리더는 전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마 지역적으로 대구의 서쪽에 치우쳐 있어서 이러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삼림욕을 하면서 쉴 수 있는 비슬산 군립공원!

□ 비슬산 군립공원

비슬산 대견사

1986년 2월 22일 달성군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흙산이면서도 산세가 장중하고, 대견봉과 조화봉·관기봉 사이에는 341㏊에 달하는 비슬산 자연휴양림이 있어 삼림욕과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또 봄이면 고지 30만 평에 걸쳐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장관을 연출한다. 매년 4~5월에 참꽃축제를 열고, 민속놀이/먹거리 장터 등의 부대 행사를 개최한다. 그밖에 여름에는 안개 계곡, 가을에는 단풍과 참억새, 겨울에는 얼음 동산이 유명하다. 공원 안에는 유가사·용연사·소재사 등의 고찰과 대견사지가 있고, 각 사찰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다. 달성의 측백수림, 달성 하목정 등 주변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

참꽃이 만개한 비슬산

【대구관광안내 http://tour.daegu.go.kr/kor/index.do 참조】

16) 금호강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서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구의 일반시민 0.2%, 오피니언 리더 0.1%가 '금호강'을 선정하였습니다.

금호강은 경북 포항시 죽장면 북부에서 발원하여 자양천, 신령천, 신천 등과 합류하여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강으로 길이 117.5㎞입니다. 대구를 남서쪽으로 감아 도는 강이나 비슬산처럼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금호강은 동촌 유원지를 끼고 있으니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17) 동촌유원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서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구의 일반시민 0.2%, 오피니언 리더 0.0%가 '동촌유원지'를 선정하였습니다.

▩ 대구 유원지의 원조, 동촌유원지!

□ 동촌유원지와 망우당공원 그리고 영남제일관

동촌유원지는 1918년 일본인이 금호강 북쪽(동촌역 쪽)에 동물원과 모터보트장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1934년 6월 24일자 동아일보에 "살풍경한 대구에 바람 쏘일 곳으로 십 리의 동촌유원지가 있고, 삼십 리 떨어져 화원유원지가 있을 뿐이다. 모처럼의 유원지는 간신히 금년 여름에만 그 수명을 지키고 명년부터는 사라져 형태를 찾을 길이 없게 되리라 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수해 복구를 위해 하천 정비 공사를 시작하자 동촌유원지가 없어질까 걱정하는 기사이다. 사라지기는커녕 100년 가까이 명맥을 유지하니 대구 시민의 동촌유원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만하다.

1970~1980년대 동촌유원지의 명물은 케이블카와 구름다리였다. 각각 1964년과 1966년에 만들어졌는데, 구름다리 때문에 강을 건너는 데 이용하던 나룻배는 결국 사라졌다. 다리 아래에서 여름이면 물놀이를

하고, 겨울이면 썰매를 탔는데, 대구 사람이라면 구름다리 위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은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요즈음은 케이블카와 구름다리가 철거되고 동촌해맞이다리가 놓였다.

동촌유원지 옆에 있는 **망우당공원**은 임진왜란 당시 최초의 의병장이자 경상도 방어사, 함경도 관찰사 등을 지낸 망우당 **곽재우** 장군을 기리는 곳이다. 곽재우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향인 경남 의령에서 사재를 털어 의병을 조직하여 왜군에 대항하였다. 붉은 비단으로 된 갑옷을 입어 홍의장군이라 했다고 한다. 장군의 석상 옆으로 망우당기념관이 있고, 아래쪽 도로변에 자리한 임란호국영남충의단에 의병 관련 내용이 상세히 전시되어 있다.

석상 앞에서 도로 위에 놓인 구름다리를 건너면 **영남제일관**이 나온다. 위치와 명칭을 보면 대구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원래 대구읍성의 남문이다. 4개 성문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으며, 약전골목과 종로가 만나는 지점에 있었다. 1907년 대구읍성이 헐리면서 함께 해체됐는데, 1980년에 현 위치에 복원하면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전주의 호남제일관을 본떠 누각 기둥 4개에 3칸 규모로 지었다.

[『도시철도로 떠나는 대구이야기여행』,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18) 기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서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구의 일반시민 4.9%, 오피니언 리더 2.9%가 '기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서 대구시민이 대구의 대표 이미지로 연상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함지산 · 낙동강 · 운암지 · 대구수목원 · 국채보상운동공원 · 공원 · 녹지가많다 · 강정보 · 시장 · 중앙로 · 반월당 · 야시골목 · 백화점 · 야외음악당 · 옻골마을 · 야경 · 가을하늘' 등입니다.

몇몇 이미지는 앞에서 제시한 단어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 대구만의 특색이 아닌 것도 보입니다

5 먹거리

['대구' 연상 단어] 5 먹거리				
순위	세부사항	일반 시민	오피니언리더	비고
1	막창구이	4.5	2.5	
2	곱창	1.2	0.6	안지랑·곱창골목·소곱창
3	찜갈비	0.4	0.0	
4	납작만두	0.3	0.4	
5	기타 먹거리	3.5	1.3	맛집·먹거리·매운음식·맵고 짠 음식·돼지국밥·따로국밥·선지국·카페·커피·떡볶이

1) 막창구이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막창구이' 를 대구의 일반시민 4.5%, 오피니언 리더 2.5%가 먹거리부문에서 첫 번째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실 대구는 바다에서 먼 내륙지방이고, 큰 곡창 지대가 있는 곳이 아니라서 다른 지방과 차별화된 먹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막창' 은 소의 4번째 위의 하나이므로 소를 많이 길렀던 곳에서 다양하게 음식을 요리하는 과정에서 '막창구이' 가 탄생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제는 대구의 대표 음식인 '막창구이' 가 전국 어디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범국민적인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의 음식으로만 여겨졌던 '막창' 이 이제는 남녀노소가 모두 즐기는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 '막창'은 소의 어느 부위일까요?

소가 소화시키는 순서대로 첫 번째 위는 '양'이라고 하며, 두 번째 위는 '벌집양', 세 번째 위는 '처녑', **네 번째 위가 '막창'**이다. 막창은 붉은 색깔이 나서 '홍창'이라고도 한다고 하며 소의 몸통 가운데에 있다.

▶ 어른들이 많이 먹는 '막창구이'이지만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아미노산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원기충전에도 좋다. 또한 칼슘 함량이 높은 편이라 골다공증과 골연화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콜레스테롤이 낮은 고단백 식재료라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좋고, 구루병을 예방하는 맛있는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다. 또한 위벽을 보호해 주고, 소화를 도와주는 기능도 있다니 얇고 허약한 위장을 보듬어 주기에는 이만한 것이 없다. [『대구 참 좋다』,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 '막창'을 맛있게 먹는 법을 알아봅시다.

대구 '막창'의 역사는 1969년부터라고 하니 50년이 되어 간다. 막창을 처음에는 그저 곰탕 국물을 진하게 하는 재료로만 생각했는데, 도축장 관계자들의 권유로 숯불에 구워서 양념된장을 찍어 먹는 지금의 방법을 개발했다. 막창의 냄새를 잡는 방법도 다양하게 개발하였는데 밀가루를 이용해 씻기도 하고, 우유나 청주에 담그기도 하고, 과일이나 한약재 등을 자신만의 비법으로 맛을 내 고소한 맛뿐만 아니라 독특한 풍미까지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막창은 생막창과 삶은 막창이 있다. 생막창은 날 것을 초벌한 후에 테이블에서 직접 재벌하여 먹는 방식인데 삶은 막창보다 더 고소하고 쫀득한 식감이 있다. 비위가 약한 사람은 삶은 막창을 추천한다.

대구 막창의 맛을 결정짓는 신의 한수는 된장소스인데 재래식 된장에 마늘, 메주가루, 설탕을 혼합해 만든 소스에 찍어 먹고 기호에 따라 쪽파와 청양고추를 첨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식당에 따라 땅콩, 과일즙을 넣기도 한다고 하는데 고소한 막창과 향긋한 된장이 어우러져 최고의 궁합을 나타낸다. [『대구 참 좋다』,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2) 곱창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곱창' 을 대구의 일반시민 1.2%, 오피니언리더 0.6%가 먹거리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곱창은 작은창자이고 막창은 큰창자라고 합니다. 소가 집안의 큰 재산이었고 소고기가 귀했던 시절에 대구 시민들은 소를 잡고 난 다음에 부산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하여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전국 5대 음식 테마거리인 안지랑곱창거리!

곱창 가게가 50여 개 늘어선 안지랑곱창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전국 5개 음식 테마 거리 중 하나이다. 예부터 대구는 유난히 곱창 가게가 성행했는데, 대구 근처에 도축장이 많아서 이곳에서 버려지는 내장을 가져와 음식을 만든 것이 시초라고 한다. 현재는 고령과 영천, 김천, 창녕 등에 있는 도축장에서 식재료를 들여온다고 한다.

안지랑곱창거리는 1970년대 외환 위기 때 저렴하게 외식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들면서 맛집 거리로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곱창거리가 조성된 건 2005년! 외관부터 비슷한 모습으로 단장했고, 메뉴와 가격을 통일했으며, 곱창과 막창 재료도 공동으로 구매해 더 신선한 음식을 저렴하게 제공한다고 한다.

곱창의 맛은 누린내를 얼마나 잘 잡느냐가 관건인데, 가게마다 노하우가 있어서 마늘이나 양파, 소주, 사이다, 매실청, 간장 등으로 누린내를 없애고 감칠맛을 낸다고 한다. 양념한 곱창은 연탄불에 빠르게 구워 내는데,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여기에 특제 소스를 찍어 먹거나 치즈를 듬뿍 올리면 풍미가 더해진다. [『도시철도로 떠나는 대구이야기여행』,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3) 찜갈비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찜갈비' 를 대구의 일반시민 0.4%, 오피니언 리더 0.0%가 먹거리부문에서 세 번째로 선정하였습니다. '찜갈비' 도 '막창구이' 처럼 소를 음식의 재료로 하는 것이니 대구는 소를 요리하는 방법이 매우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조사한 결과 대구의 음식은 치킨 · 삼겹살 · 불고기 · 찜갈비 순서로 선호한다고 합니다. 갈비를 쪄서 먹는 것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요리 중의 하나인데 특히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서 유래된 '동인동 찜갈비' 는 무엇인가 독특한 방법이 있나 봅니다.

▶ '갈비'는 소의 어느 부위일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소고기도 종류가 10가지가 넘는다. 그 중에서도 '갈비'는 소의 등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갈비뼈와 뼈 사이에 있는 고기이니 '갈비살'이라는 표현이

적합한데, 길고 두툼한 모양이 손가락처럼 생겨서 영어로는 손가락 고기 [finger meat 혹은 Rib finger] 라고 부른다. 맛은 쫄깃한 저작감과 고소한 향이 특징이다.

▶ 입안이 얼얼한 갈비! 맵고, 화끈한 맛! - '동인동 찜갈비'

'동인동 찜갈비'는 소갈비를 매운 고추가루와 다진 마늘을 주양념으로 해서 요리하는데, 찌그러진 양은냄비에 담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간장으로 맛을 낸 다른 지방의 갈비찜과는 판이하게 다른 대구에만 있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서울·경기권의 갈비찜과 달리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매우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이 일품이다. 1970년대초 중구 동인동 주택가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 향토먹거리로 발전했다.

【대구관광안내 http://tour.daegu.go.kr 참조】

4) 납작만두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납작만두' 를 대구의 일반시민 0.3%, 오피니언 리더 0.4%가 먹거리부문에서 네 번째로 선정하였습니다.

▶ 얇지만 강한 맛! 부드럽고, 고소한 맛! 무미에 가까운 듯 한 맛! - '납작만두'

얇은 만두피에 당면을 넣고 반달모양으로 빚어 물에 한번 삶은 다음 구워 간장을 술술 뿌려 먹는 맛은 40년 전부터 대구에만 있는 맛이다. 요사이는 떡볶이나 매운 야채에 섞어 매콤하게 먹는 맛도 별미이다. 기존 중국만두의 느끼한 맛을 제거하기 위해 1960년대 초 대구에서 개발된 식물성 만두소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개념 만두로서 대구에서 맨 처음 선보였는데 당면, 부추, 당근, 양배추, 파 등을 넣는 듯 마는 듯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구관광안내 http://tour.daegu.go.kr 참조】

5) 기타 먹거리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기타 먹거리' 를 대구의 일반시민 3.5%, 오피니언 리더 1.3%가 먹거리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먹거리에서 대구 대표 이미지로 연상한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맛집 · 먹거리 · 매운 음식 · 맵고 짠 음식 · 돼지국밥 · 따로국밥 · 선지국 · 카페 · 커피 · 떡볶이 등입니다.

대구가 더운 지역이라서 그런지 음식이 맵고 짜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구적인 특징을 지닌 먹거리가 대구를 대표한다는 의견도 있어 소수이지만 시대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6 축제/공연

['대구' 연상 단어] 6 축제/공연				
순위	세부사항	일반 시민	오피니언리더	비고
1	컬러풀대구페스티벌	1.0	2.6	
2	대구치맥페스티벌	0.6	0.2	
3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0.1	0.8	
4	대구국제오페라축제	0.0	0.4	
5	기타 축제/공연	1.5	3.7	· 축제/음악도시/공연/예술/공연도시/문화도시/대명문화거리/공연장/콘서트하우스/오페라하우스/수성아트피아/버스킹/현대미술/디자인

1) 컬러풀대구페스티벌

축제/공연 부문에서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구의 일반시민 1.0%, 오피니언 리더 2.6%가 '컬러풀대구페스티벌' 을 선정하였습니다.

모디라~컬러풀! 마카다~퍼레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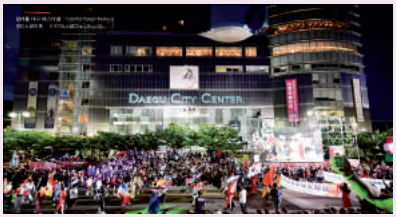
□ 칼라풀 대구 페스티벌

대구의 대표적인 시민축제로서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와 공연 그리고 체험행사 등으로 꾸며진다. 1981년에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한 다음 해부터 2002년까지 해마다 '달구벌 축제'라는 명칭으로 개최하다가, 2005년부터는 다채롭고, 젊고, 활기

찬 도시임을 표방하기 위해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개최하고 있다. 시기는 5월 첫째 주 토, 일요일이고, 장소는 국채보상로(서성네거리~종각네거리)이다.

주요 행사로는 컬러풀퍼레이드, D(Dynamic), A(Art), E(Entertainment), G(Good), U(Unique) Zone별로 특화된 퍼포먼스를 펼치는 다양한 거리공연 등이 있다.

【칼라풀 대구 페스티벌 http://www.cdf.or.kr 참조】



2) 대구치맥페스티벌

축제 · 공연 부문에서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구의 일반시민 0.6%, 오피니언 리더 0.2%가 '대구치맥페스티벌' 을 선정하였습니다.

치킨의 성지 대구!

□ 대구치맥페스티벌

2013년 뜨거운 날씨로만 알려졌던 대구의 여름이 확 달라졌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는 대구와 치맥페스티벌이 연일 상위권을 차지했다. 대구 치맥페스티벌은 치킨과 맥주로 축제를 만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SNS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대구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축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치맥페스티벌을 통해 대구는 치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지가 되었다.

2015년 3회째를 맞이한 치맥페스티벌은 처음에 두류공원에서만 진행되던 축제를 서부시장 프랜차이즈 거리와 평화시장 닭똥집골목 일대로 확장해 더욱 다양한 맛과 볼거리를 제공했다. 치맥과 치맥페스티벌은 국내를 넘어 어느덧 해외에까지 입소문이 나면서, 치킨 본고장으로서의 대구를 알리고 있다. [『대구 참 좋다』,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대구치맥페스티벌 http://www.chimacfestival.com/home 참조】

3)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축제 · 공연 부문에서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구의 일반시민 0.1%, 오피니언 리더 0.8%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을 선정하였습니다.

전 세계 뮤지컬인이 주목하는 국제 공연 축제!

□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DIMF)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DIMF)은 뮤지컬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대구 시민은 물론 세계인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취지로 탄생한 축제이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DIMF는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서, 제작자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뮤지컬을 선보이는 무대로 자리 잡았다. 공연예술인들을 위한 열린 무대, 관객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놀이마당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매년 DIMF가 개최되면 공식 초청작, 창작 지원작 등 다채로운 뮤지컬 작품들과 전야제, 딤프어워즈, 딤프린지 공연, 뮤지컬워크숍 등 뮤지컬에 관한 모든 것들을 대구에서 즐길 수 있다.

뮤지컬의 도시 대구를 대표하는 작품으로는 '투란도트'가 있다. 대구시와 딤프가 공동 제작한 뮤지컬 '투란도트'는 동명의 오페라 '투란도트'를 모티브로 한 창작 뮤지컬로 신비의 바다 속 왕국 오카케오마레를 배경으로 중독성 강한 뮤지컬 넘버와 화려한 군무가 펼쳐지는 작품이다. 2010년 제작돼 이듬해 DIMF 개막작으로 공연됐으며 지난 2014년에는 제16회 중국 상하이국제아트페스티벌에 초청되는 등 글로벌 콘텐츠로 부상했다.

▷기간 : 매년 6월~7월

▷장소 : 대구 주요 공연장 및 시내 전역 [대구 참 좋다,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DIMF) https://dimf.or.kr/main.do 참조】

4)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축제 · 공연 부문에서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구의 일반시민 0.0%, 오피니언 리더 0.4%가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를 선정하였습니다. 일반 시민은 한 명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최우수 공연예술축제!

□대구국제오페라 축제(DIOF)

2003년 대구오페라하우스의 건립으로 대구의 오페라 문화는 한 단계 도약하게 되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단독 오페라 전용극장인 오페라하우스는 연면적 8,653㎡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1,490개의 객석과 정통 오페라 공연에 필요한 첨단 장치들을 구비하였다.

대구는 비수도권임에도 음악적 토양과 오페라의 뿌리가 깊은 도시이다. 타 도시에 비해 음악 인구 밀도가 높고 이들이 이끄는 활발한 음악 활동이 대구국제오페라 축제를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2015년에 열렸던 대구국제오페라 축제는 작품선정에 있어 과감한 모험과 도전을 선택한 결과, 오페라 축제의 메인 공연 83.3%라는 객석 점유율로 성황리에 공연되었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러시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터키, 중국, 일본 등 86개국에서 150개의 공연 팀이 대구를 오페라의 향연으로 물들였다. 축제 기간 중에는 대중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온 친숙한 작품부터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마니아들만을 위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기간 : 매년 10월~11월

▷장소 :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 참 좋다, 대구광역시, 2016.]

【(재)대구오페라하우스 http://www.daeguoperahouse.org 참조】

5) 기타 축제/공연

축제 · 공연 부문에서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구의 일반시민 1.5%, 오피니언 리더 3.7%가 '기타 축제/공연' 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축제 · 공연에서 대구 대표 이미지로 연상한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축제 · 음악도시 · 공연 · 예술 · 공연도시 · 문화도시 · 대명문화거리 · 공연장 · 콘서트하우스 · 오페라하우스 · 수성아트피아 · 버스킹 · 현대미술 · 디자인 등입니다.

공연산업 메카로 도약하는 대구!

대구에는 오페라하우스(1,490석), 수성아트피아(1,159석) 등 1,000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 11개소가 있다. 이들 시설의 총 객석 수는 27,440석에 이른다. 공연예술 실태조사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공연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대구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대구 인구 1천 명당 객석 수는 17.5석이었는데, 7대 특별·광역시 중 서울(18석)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객석 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선보인 오페라하우스와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대구콘서트하우스(구 대구시민회관) 등 특화된 공연장은 대구만의 자랑거리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해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린 월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은 클래식 전용 공연장의 특성을 잘 살린 프로그램으로 호평받기도 했다.

또한, 대구 달서구에 2017년 착공 예정인 CT(Culture Technology) 공연 플렉스 파크가 들어설 계획임에 따라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T 공연 플렉스 파크는 뮤지컬을 비롯한 각종 공연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첨단 CT 기술 개발과 공연산업 생태계 조성 등 공연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꾀하는 글로벌 공연 생산기지를 말한다. [『대구 참 좋다』,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7 산업

‘대구’ 연상 단어] 7 산업				
순위	세부사항	일반 시민	오피니언리더	비고
1	사과	6.4	5.0	능금
2	섬유산업	3.3	2.7	섬유·섬유도시·쉬메릭

3	교육산업	3.0	2.7	교육도시·교육열이 세다·수성구 교육·경북대학교·계명대학교·영남대학교·학원
4	패션산업	1.3	1.8	옷·패션·유행·패션도시
5	산업단지	0.7	0.0	공단·공장·3지구
6	약령시약재산업	0.6	0.2	
7	안경산업	0.6	0.1	안경
8	삼성	0.3	0.1	
9	기타산업	1.7	1.4	자동차산업·전기자동차·병원·의료·첨단복합의료단지·기업·과일·관광

1) 사과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사과' 를 대구의 일반시민 6.3%, 오피니언 리더 5.0%가 산업 부문에서 첫 번째로 선정하였습니다.

왜 대구 사과가 유명해 졌을까요?

대구의 연평균 습도는 66%로서 강릉(65%) 다음으로 가장 낮고, 연 일조율(日照率;햇볕이 내리 쬔 비율)은 53%로서 여수(55%)다음으로 높다. 또한 흐린 날 일수는 대구가 99.9일로서 여수(96.1일) 다음으로 낮아서 우리나라에서 소우도시, 건조도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건조하고 일조율이 높아서 기온의 일교차가 큰 기후 조건은 대구근교 금호강 유역의 사질토(砂質土; 모래 흙)와 결합하여 대구가 일찍부터 사과의 고장으로서 명성을 떨치게 하였다. 일조율이 높으면 탄소동화작용이 활발하고, 일교차가 크면 당분이 많이 축적되어 사과의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대구시사』, 1995. 제4장 제1절 52쪽]

대구=미인=사과

대구 사람조차 이제 대구에서 사과를 재배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많다. 그러나 사실 팔공산 자락의 동구 평광동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과가 재배되고 있다. 하지만 대구에서 사과를 생산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 혹은 대구가 예전처럼 사과의 최대 생산지가 아니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이미 '대구=미인=사과'라는 공식으로 오래전부터 대구를 '미인의 도시, 대구'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사과나무!** 대구 **청라언덕**에는 곧 수령 90을 바라보는 오래된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다. 둘레 90㎝, 높이 6m인 이 사과나무는 얼마 전 수령이 오래되어 나무줄기와 껍질이 썩어 들어가 죽기 직전이었지만, 나무 전체를 살균 처리하고 썩어 들어가는 가지를 손질해주고 나무뿌리 부근의 흙을 교체하면서 영양제를 주자 다시 씩씩하게 살아났다.

동산의료원 초대 병원장인 우드브리지 존슨 박사는 1899년 동산의료원 개원 당시 미국에서 들여온 사과 묘목 72그루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구 남산동 자신의 사택 주변에 심었다. 100년 전 사과의 명맥을 잇는 마지막 남은 자손목이 바로 지금 청라언덕에 있는 나무이다. 이 나무는 1998년 남산동에서 현재의 청라언덕으로 옮겨졌다. 대구시는 대구 사과나무의 효시인 이 나무를 2000년부터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대구 **평광동 사과마을**에는 대구 사과를 지키고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사과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홍옥 사과나무로 인정받은 사과나무를 키우고 있는 우희광씨도 그러한 사람들 중 한 명이다.

대구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한 사과 재배가 시작된 것은 1905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호강 주변 칠성동과 침산동, 동촌과 반야월 일대에 대규모 사과밭이 들어선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17년 전후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반세기 넘게 우리나라 사과 산업을 대표하던 대구는 도시 팽창으로 사과밭이 공장과 아파트단지로 바뀌고 기후 온난화로 재배 적지가 북상하면서 1990년대 이후에는 대구의 사과밭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쇠락하고 말았다.

[『대구 참 좋다』,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2) 섬유산업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섬유산업' 을 대구의 일반시민 3.3%, 오피니언 리더 2.7%가 산업 부문에서 두 번째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메카, 대구

대구의 '섬유산업'은 일제 강점기에 섬유 공장이 들어서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 후 대구는 우리나라 섬유 공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1970년대는 수출을 많이 해서 크게 발전했다. 대구가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중심지가 된 또 다른 이유는 경상북도가 면화와 누에고치의 주산지였고, 인구가 많아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내 사랑 대구』, 대구광역시, 2017. 요약정리]

섬유산업의 역사를 한 눈에! - DTC섬유박물관

대구가 섬유산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은 6·25전쟁 때부터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산업이나 기반 시설이 대부분 파괴된 경인 지역과 달리, 대구는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죽을힘을 다해 싸운 덕분에 산업 전반이 무사할 수 있었다. 이후 대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면방직 공장인 대한방직을 비롯해 제일모직, 한국나이롱주식회사 등이 들어서며 섬유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대구에는 우리나라의 섬유산업과 패션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DTC섬유박물관이 있다.

박물관 입구에는 섬유와 패션을 상징하는 이상태 작가의 조형물 '비전'이 있고, 박물관에 들어서면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패션이 완성되는 과정을 광섬유로 표현한 박인숙 작가의 '고요 속의 움직임'이 천장부터 드리워졌다.

2층 패션관에는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패션이 20세기 유행 패션을 중심으로 소개된다. 두 차례 세계대전 속에 피어난 밀리터리 룩, 1950년대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비즈 장식 드레스 진품, 1960년대 미니스커트와 1970년대 나팔바지 등이 향수를 자극한다.

3층은 섬유 역사와 섬유 소재, 섬유기계를 살펴보는 산업관, 대구 섬유산업의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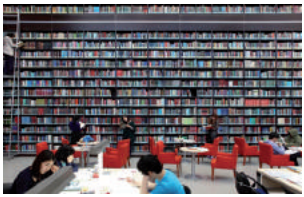
사를 알아보는 섬유 기업실이다. 산업관 입구에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사용된 재봉틀 90여 대가 전시된 아트 월이 눈에 띈다. 섬유 기업실은 우리나라 최초로 면사를 생산한 경방, 우리나라 최초의 면방직 공장인 대한방직, 우리나라 최초로 나일론을 생산한 코오롱 등 섬유 기업의 역사와 대구 섬유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기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4층은 소리 반응 의류, 감성 전달 의류, 펜싱이나 쇼트트랙 등 스포츠 의류는 물론, 최근 이슈가 되는 탄소섬유 강화 복합 소재를 활용한 자동차와 비행기, 메타물질을 이용한 투명 망토까지 최첨단 섬유와 섬유산업의 미래를 만나보는 곳이다. [『도시철도로 떠나는 대구 이야기 여행』,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DTC섬유박물관(www.dtmuseum.org) 참조】

3) 교육산업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교육산업' 을 대구의 일반시민 3.0%, 오피니언 리더 2.7%가 산업 부문에서 세 번째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도시 · 교육열이 세다 · 수성구 교육 · 경북대학교 · 계명대학교 · 영남대학교 · 학원' 등을 연상하였습니다.



교육을 산업 부문에 넣는 것이 적합하지는 않겠지만, 대구를 비롯한 주위 경상북도 지역에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리하여 교육에 관련된 각종 산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강남과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교육 성취도가 높은 곳이 대구의 '수성구' 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 '교육' 은 대구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별도의 장을 만들어 논의하고자 합니다.

▶6. 대구의 교육기관을 찾아서 참조

4) 패션산업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패션산업' 을 대구의 일반시민 1.3%, 오피니언 리더 1.8%가 산업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패션산업' 이 대구 대표 이미지로 연상되는 이유는 2003년 이전에 대구의 제1 주력 산업이 '섬유산업' 이였던 것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섬유패션의 도시, 대구' 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브랜드가 '쉬메릭(http://www.chimeric.kr)' 입니다. '쉬메릭' 은 대구시가 일정한 검증절차를 통해 선정한 우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활한 마케팅을 지원하기위해 운영하는 우수중소기업 공동브랜드라고 합니다. 대구시와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엄격하게 제품을 선정하여 품질이 검증된 상품에만 쉬메릭 상표 부착을 허락한다고 합니다.

5) 산업단지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산업단지' 를 대구의 일반시민 0.7%, 오피니언 리더 0.0%가 산업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일반시민과 오피니언 리더의 '산업단지' 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큰 것 같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즉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 한 명도 '산업단지' 를 대구 대표 이미지로 연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시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되는 대구의 공단/공장들이 소규모라서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는 대구를 대표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제5장 대구의 경제를 찾아서 나. 대구의 산업단지' 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 약령시 약재산업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약령시 약재산업' 을 대구의 일반시민 0.6%, 오피니언 리더 0.2%가 산업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약령시 약재산업도 대구를 대표할 만한 산업이므로 제5장 대구의 경제를 찾아서 가.대구의 경제 1.약령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 안경산업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안경산업' 을 대구의 일반시민 0.6%, 오피니언 리더 0.1%가 산업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안경산업의 메카, 대구

우리나라 안경은 질이 우수하고 개성 넘치는 디자인이 많기로 유명하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안경의 90% 이상이 대구 안경산업 특구에서 만들어진다. 대구는 국내 안경제조 업체의 85%인 400여 개의 업체가 있는 대한민국 안경산업의 메카이다.

대구는 1953년 동양셀룰로이드공업사가 지역에 문을 열면서 안경테 생산의 중심도시가 된다. 1960년에는 대구 최초로 홍콩에 3,000달러 규모의 안경테를 수출했다.

특히, 대구 북구는 안경테의 집산지로 성장했다. 현재 북구 침산교~노원네거리 1.1㎞ 구간에는 '안경거리'가 조성돼 있다.

[『대구 참 좋다』,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8) 삼성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삼성' 을 대구의 일반시민 0.3%, 오피니언 리더 0.1%가 산업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세계적 기업인 삼성(三星)의 홈타운, 대구

포드자동차 하면 디트로이트, BMW는 뮌헨, 코카콜라는 애틀란타, 로레알은 파리 등 세계적인 기업에는 그들의 고향이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에게도 고향이 있다. 바로 '삼성(三星)'의 고향은 '대구'이다.

스마트폰, 반도체, TV 등의 첨단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된 삼성이 '별표국수'를 만들던 때가 있었다. 삼성의 창립자인 호암 이병철(1910~1987)은 1938년 3월, 대구 상업 활동의 중심지였던 서문시장 한 편에 '주식회사 삼성상회'라는 간판을 걸었다.

'크고 강력하고 영원하라' 라는 염원이 담긴 삼성의 '삼(三)'은 큰 것, 많은 것, 강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성(星)'은 밝고 높고 영원히 빛나는 것을 뜻한다.

이병철은 자신의 뜻을 키워 서울로 상경해 삼성물산을 설립했다. 하지만 1950년 6·25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대구로 피난을 간 이병철은 대구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모두가 무리한 계획이라고 손사래를 치는 와중에도 제일제당과 제일모직을 창업하고, 고집스럽게 순수 우리 기술로 공장을 설립하여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시켰다.

▷대구창조경제단지 - 현재 제일모직 옛터에는 대구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2016년 12월, 창조경제존, 삼성 존, 아뜰리에 존, 커뮤니티 존 등 테마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조성될 예정인 이곳은 기술과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 창조경제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대구 참 좋다』,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 http://dscc.co.kr 참조】

9) 기타 산업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기타 산업'을 대구의 일반시민 1.7%, 오피니언 리더 1.4%가 산업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산업에서 대구 대표 이미지로 연상한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자동차 산업 · 전기자동차 · 병원 · 의료 · 첨단복합의료단지 · 기업 · 과일 · 관광 등입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지능형 자동차 주행시험장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연상은 최근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대구 산업단지에서 자동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여 울산 등지에 있는 자동차 생산 공장에 많이 공급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2003년을 기준으로 대구 제1 주력 산업이 섬유산업에서 기계금속산업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의료'관련에 대한 연상은 '약령시'에서 비롯된 의료 산업의 전통을 현대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알파시티나 신서혁신도시의 의료 산업단지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판단됩니다.

8 정서적 이미지

['대구' 연상 단어] 8 정서적 이미지				
순위	세부사항	일반 시민	오피니언리더	비고
1	보수적인	3.0	13.0	가부장적·남성중심
2	정체·침체	1.8	2.2	경기가 너무 안 좋다·경기침체·경제가 어렵다·대기업이 없다·산업체가 없다·실직·저임금·낙후·몰락·발전을 안 한다·빈익빈부익부·살기 힘들다·고령화도시·노인다수·인구감소·인재부족·청년층이 떠난다.
3	폐쇄적·배타성	1.5	3.4	사나움·드세다·불친절·무뚝뚝·이기주의·배려심 없음·솔직하지 않다·권위적·고집이 세다·경직성·불통·타협할 줄 모름·고지식하다·답답하다·소극적
4	정·따뜻함	1.1	1.2	가족·고향·집·포근하다·편안하다·형제같다·인정·인심 좋음·애향심
5	대도시	0.7	0.7	광역시·대규모도시·3대도시
6	살기좋은	0.7	0.5	복지·안전·살기 좋다
7	활기찬	0.6	0.5	역동·자유롭다·젊음의 도시·즐겁다·창조·화려하다·활기차다
8	복잡한	0.5	0.1	어지럽다·시끄럽다
9	선도적인	0.4	0.6	첨단도시·혁신도시·창의·발전되어있다·앞서 간다·변화가능성
10	의리·의지있는	0.3	0.4	의지가 강하다
11	쾌적한	0.3	0.1	깔끔·깨끗한 도시·아름답다·오목조목·조용함
12	기타 이미지	0.2	0.0	경망하지 않다·점잖다·좋다

1) 보수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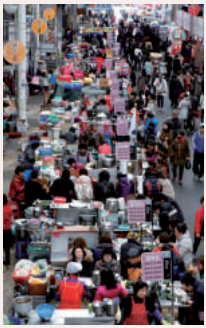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보수적인'을 대구의 일반시민 3.0%, 오피니언 리더 13.3%가 정서적 이미지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보수적인' 대구 이미지에 대하여 일반시민은 3%만이 연상하였으나, 오피니언 리더는 13.3%나 연상하여 극명한 차이를 보여 줍니다. 오피니언 리더가 대구 대표 이미지로 14.6%가 '더위'를 맨 먼저 연상한 다음 2위에 '보수적인'을 연상한 것입니다. 더구나 '보수적'에서 나아가 '가부장적'이며 '남성 중심적'이라는 관련 이미지까지 연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보다 다방면에 걸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2 역사적 사건 – '국채보상운동, 대구 2 · 28민주운동'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동안 '대구'가 추구하여 왔던 전반적인 가치관을 종합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앞의 두 운동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구인'들이 시대적 소명을 다하여 분연히 일어선 선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대구 대표 이미지에 나타난 '보수'에 대하여 대구의 '보수'는 단순히 과거의 것을 고집하는 '수구적인 보수'가 아니라 '국권 수호적 보수', '민주적 보수'라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열린 도시' 대구 – '열린 마음' 대구시민

전국에서 대구를 가장 보수적인 도시로 꼽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심지어 보수를 넘어 수구적인 도시로 지적하기도 한다. (중략) 대구는 개항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어떤 도시보다 '열린 도시'였으며, 시민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중략) 근현대사 속의 대구가 단순한 지역적 표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였다. 설령 다른 지역보다 특별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새로운 것에 민감하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구정체성 초·중등 교육포럼(2018.8.21.제6차) '한국 근현대사 속의 대구, 대구 정신' - 허종(충남대 국사학과)]

선비의 의리와 상인의 의리가 DNA를 이룬 대구 정신!



대구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정 많다, 의리 있다, 뚝심 있다'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있는가 하면 '보수적이다, 과격하다, 무뚝뚝하다'는 부정적인 모습도 있다. 사람들은 대구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하려면 개방성, 창조성, 단결성을 필요로 하며 보수성, 체면중시, 권위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대구 사람 이미지를 조사해보면 유난히 보수성이 부각된다. 이때의 보수란 지킬 것을 지키는 중심 잡힌 의식이라기보다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단단히 두른 배타적인 성향에 가깝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단언컨대, 아니다. 대구 2천년 역사는 이름 없던 읍락이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발전해 온 상승의 역사이고, 그러한 땅에서 살아온 대구 사람은 마땅히 지켜야할 것을 지켜왔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역사, 정신, 문화적 유산을 정리하여 분석해 본 결과, 대구정신은 선비정신과 상인정신, 언뜻 보기에는 상반된 두 정신이 DNA의 이중나선처럼 하나의 뿌리 위에 꽃피어 왔다. [『대구 참 좋다』,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2) 정체/침체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정체 · 침체' 를 대구의 일반시민 1.8%, 오피니언 리더 2.2%가 정서적 이미지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경기가 너무 안 좋다 · 경기침체 · 경제가 어렵다 · 대기업이 없다 · 산업체가 없다 · 실직 · 저임금 · 낙후 · 몰락 · 발전을 안 한다 · 빈익빈부익부 · 살기 힘들다 · 고령화도시 · 노인다수 · 인구감소 · 인재부족 · 청년층이 떠난다 등을 아울러 연상하였습니다.

1960년대 이후 주로 해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왔기 때문에 대구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할 기회를 잃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대구 시민들은 대구를 정체된 도시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폐쇄적/배타성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폐쇄적 · 배타성' 을 대구의 일반시민 1.5%, 오피니언 리더 3.4%가 정서적 이미지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본 항목을 세 번째로 넣은 이유는 일반시민과 오피니언 리더의 인식의 차가 커서 그렇습니다. 즉 '보수적인' 항목에서 두 집단의 인식차이가 컸듯이 여기서도 일반시민은 1.5%, 오피니언 리더는 3.4%가 대구가 '폐쇄적' 이라 했습니다.

더구나 이와 연관하여 사나움 · 드세다 · 불친절 · 무뚝뚝 · 이기주의 · 배려심 없음 · 솔직하지 않다 · 권위적 · 고집이 세다 · 경직성 · 불통 · 타협할 줄 모름 · 고지식하다 · 답답하다 · 소극적 등의 단어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자기 부정적 인식이 강한 대구 시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과 그에 대한 적절한 극복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음 항목에서는 희망도 보입니다.

4) 정/따뜻함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정 · 따뜻함' 을 대구의 일반시민 1.1%, 오피니언 리더 1.2%가 정서적 이미지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앞선 1)~3)번 항목의 인식에서 극명하게 갈렸던 두 집단이 4)번 항목에서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습니다. 이와 연관 된 단어로 '가족 · 고향 · 집 · 포근하다 · 편안하다 · 형제 같다 · 인정 · 인심 좋음 · 애향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한 때 정치적인 사건에 연관되어 부정적 평가를 받았던 '우리가 남이가?' 라는 경상도 사람들의 애향심을 나타내는 말은 지역에 대한 유별난 애착심을 표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렇듯 경상도 사람들의 애향심은 남다릅니다. 하지만 '대구' 사람들의 애향심은 편협된 지역감정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기 위한 마음의 출발로서 애향심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나에서부터 출발하여 가족, 이웃, 지역, 국가 나아가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을 간직해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혹시 대구 시민들의 인식이 특정 지역에 대한 사랑에 머물러 있다면 '대구 정체성' 인식을 통해 보다 더 큰 개념으로의 인식의 확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대도시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도시' 를 대구의 일반시민 0.7%, 오피니언 리더 0.7%가 정서적 이미지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역시 · 대규모 도시 · 3대도시 등을 연상하였습니다. 광역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행정제도입니다. 전국에 6개의 광역시가 있는데 2018년 현재 대구(약250만)는 인구 면에서 인천(약290만)에 뒤지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과거처럼 3대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의 지적처럼 대구가 정체되고 폐쇄인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6) 살기 좋은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살기 좋은' 을 대구의 일반시민 0.7%, 오피니언 리더 0.5%가 정서적 이미지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 시민들은 '복지 · 안전 · 살기 좋다' 등을 연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4)번 '정 · 따뜻함' 을 연상한 시민처럼 애향심이 강하거나, 자연재해가 심하지 않은 지역이거나, 혹은 6 · 25전쟁을 비껴간 곳이라서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7) 활기찬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활기찬' 을 대구의 일반시민 0.6%, 오피니언 리더 0.5%가 정서적 이미지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 시민들은 '역동 · 자유롭다 · 젊음의 도시 · 즐겁다 · 창조 · 화려하다 · 활기차다' 등을 연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수적인', '폐쇄적', '정체' 등을 연상한 시민과는 정반대의 인식을 하는 시민도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아마 젊은 층이나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시민의 답변이 아닐까 합니다.

8) 복잡한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복잡한' 을 대구의 일반시민 0.5%, 오피니언리더 0.1%가 정서적 이미지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지럽다/시끄럽다' 등을 연상하였습니다.

5)번 항목 '대도시' 를 연상한 시민들과 유사한 인식을 지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9) 선도적인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선도적인' 을 대구의 일반시민 0.4%, 오피니언 리더 0.6%가 정서적 이미지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단도시 · 혁신도시 · 창의 · 발전되어있다 · 앞서 간다 · 변화가 능성' 등을 연상하였습니다. 7)번 항목 '활기찬' 처럼 젊은 층이나 진보적인 시민의 응답으로 여겨집니다.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네트워크' 에 선정[매일신문(2017.11.2.)] 된 것을 보면 평소 보수적이라 단정을 짓는 도시이지만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언제나 미래를 향한 지향점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의리/의지있는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의리 · 의지있는' 을 대구의 일반시민 0.3%, 오피니언 리더 0.4%가 정서적 이미지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이 항목이 상위에 오를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의외로 '의리' 를 대구 대표 이미지로 인식한 시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속설로는 다수가 인정하지만 자화자찬식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다음에서 지적하듯이 '대구 사람들'에 대하여 『대구시사』에서는 신뢰성이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기후와 대구사람의 기질

좁은 국토에서 각 지방의 기질을 특징지우기는 어려우나 대구시민은 다른 지방의 주민들에 비하여 독특한 기질을 가졌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외면적으로는 **무뚝뚝**하고 **우직**스럽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끈기**가 있고 **신뢰성**이 강하다. 또 곤경에 처해서도 실망하거나 단념하지 않고 **끈끈**하게 이어가는 대구시민의 기운은 부분적으로는 대구 풍토의 산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하루 최고기온 42.4℃(1942.8.1.)까지 기록되는 내륙분지 특유의 여름 혹서(酷暑;몹시 심한 더위)와 겨울 혹한(酷寒;몹시 심한 추위), 빈번한 한발(旱魃;가뭄)·홍수(洪水) 등 가혹한 기후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질이라 할 수 있다. [『대구시사』, 대구광역시, 1995. 제4장 제1절 52쪽]

11) 쾌적한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쾌적한'을 대구의 일반시민 0.3%, 오피니언 리더 0.1%가 정서적 이미지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깔끔 · 깨끗한 도시 · 아름답다 · 오목조목 · 조용함' 등을 연상하였습니다.

대구는 특별히 발전된 지역이나, 특별히 낙후된 지역이 없는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모든 시민이 공생공영하는 곳이라 이러한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기타 이미지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기타 이미지'를 대구의 일반시민 0.2%, 오피니언 리더 0.0%가 정서적 이미지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망하지 않다 · 점잖다 · 좋다' 등을 연상하였습니다.

10)번 항목 '의리있는'을 연상한 시민처럼 매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과시하려하기 보다 겸손함을 앞세우는 시민의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⑨ 기타

['대구' 연상 단어] ⑨ 기타				
순위	세부사항	일반 시민	오피니 언리더	비고
1	미인	1.5	0.8	
2	정치적 이미지	1.0	3.4	TK·보수의 핵심·보수꼴통·정치적 다양성 부재·과거정권·지역감정·자유한국당·새누리당·보수단체
3	사건사고	0.7	1.9	고담·재난도시·화재·지하철참사·개구리소년·페놀사태·희망원사태
4	사투리	0.4	0.9	
5	스포츠	0.4	0.6	야구·삼성라이온즈·삼성라이온즈파크·육상
6	즐길거리 부족	0.4	0.0	문화가 없다·문화공간 부족·문화재가 없다·재미없다·공원없음·관광지 없음
7	낮은 물가	0.3	0.2	생활력·물가가 싸다
8	기타	1.6	2.2	경상도·50사단·K2·한국가스공사·운전험악·급한 성격·자연재해가 거의 없다·공기가 탁하다·환경오염·교통체증·소비의 도시·솔라시티·우물 안·양반·달성 서씨·학연지연

1) 미인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미인' 을 대구의 일반시민 1.5%, 오피니언 리더 0.8%가 기타 이미지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7 대구의 산업' 부문에서 대구의 일반시민 6.4%, 오피니언리더 5.0%가 첫 번째로 '사과' 를 선정하였는데, 이러한 사과를 많이 먹어 대구는 미인이 많은 도시가 되었다는 속설이 시민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미인의 도시, 대구

사과의 도시인 대구는 '미인의 도시', '사과 미인'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었다. 실제로 사과와 미인 이야기를 할 때 미스코리아를 빼놓을 수 없는데, 1980년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당시 아름다움의 비결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능금을 많이 먹어서예.'라고 출전자들이 대답했기 때문이다. 미스코리아 전체 수만 놓고 보면 서울 강세가 두드러지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방 출전자 중에서는 대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쯤 되면 '대구에는 미인이 많다'는 설이, 설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여질 법도 하다.

대구 미인을 입증할 객관적인 의견을 내놓은 사람도 있다. 얼굴연구소장 조용진 한서대 교수는 '우리 얼굴에 담긴 역사와 과학'이라는 글에서, 경북지방은 남방계 형과 북방계 형이 5대5로 분포하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즉, 대구·경북 지역은 키가 크고 늘씬하며 피부가 희고 콧날이 좁고 긴 북방계 인자와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는 남방계 인자가 조합되어, 피부가 희며 눈이 크고 품위가 있는 여성스러운 얼굴이 나오기 쉽다는 것이다. [『대구 참 좋다』,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2) 정치적 이미지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정치적 이미지' 를 대구의 일반시민 1.0%, 오피니언 리더 3.4%가 기타 이미지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TK · 보수의 핵심 · 보수꼴통 · 정치적 다양성 부재 · 과거정권 · 지역감정 · 자유한국당 · 새누리당 · 보수단체' 등을 연상하였습니다.

8 정서적 이미지 1) '보수적인' 항목에 나타난 정서와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일반 시민과 오피니언 리더의 인식에서 차이가 3배 정도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즉 일반시민들은 대구가 '보수적'이라는데 대해 다소 무감각하지만 오피니언 리더들은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사건사고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사건사고'를 대구의 일반시민 0.7%, 오피니언 리더 1.9%가 기타 이미지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담 · 재난의 도시 · 화재 · 지하철참사 · 개구리소년 · 페놀사태 · 희망원사태' 등을 연상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 있는 '개구리소년사건' 등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이 대구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지하철 참사는 두 차례나 대형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주목 받는 사건사고가 되어 대구가 '재난의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테마파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전의 생활화 -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2003년 2월18일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안전체험장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어, 대구광역시에 총 303억을 투자하여 종합안전 체험장(1관, 2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지하철안전,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지진안전, 옥내소화전 등 다양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발생시 안전체험교육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http://www.daegu.go.kr/safe119/index.do 참조】

4) 사투리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사투리'를 대구의 일반시민 0.4%, 오피니언리더 0.9%가 기타 이미지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경상도 사투리(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가 대구 대표 이미지 상위권에 속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의외로 소수가 연상을 하였습니다.

경상도 방언(사용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은 '동남 방언'라고도 하는데 신라 천년의 중심언어였고, 중세 성조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사람들이 '더워'를 '더버'라고 하는 이유는 '더워'가 중세에 '더 벙'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무뚝뚝하면서도 딱딱한 억양을 지녀서 간혹 다른 지역 사람들에의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오히려 경망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5) 스포츠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스포츠'를 대구의 일반시민 0.4%, 오피니언리더 0.6%가 기타 이미지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야구 · 삼성라이온즈 · 삼성라이온즈파크 · 육상' 등을 연상하였습니다.

야구 이외에도 축구, 농구, 배구 등이 있지만 대구를 연고로 한 삼성라이온즈 야구단이 오랫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초 · 중등학교에 야구단이 많이 있어서 이런 연상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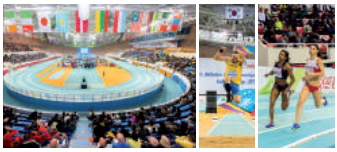
》 '라팍'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 삼성라이온즈파크

2016년 3월에 개장한 삼성라이온즈의 전용야구장으로 2만 90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입구를 장식한 대형 야구공 'blue FEVER'가 인상적이다. 팔각 다이아몬드형 구조로 원형 구장에 비해 관람객 공간이 넓어 시야가 넓게 확보되며, 좌석은 모두 마운드를 향해 어느 좌석이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 관중석과 마운드 거리를 좁혀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또 동북 방향으로 설계되어 하절기 관람석에 그늘이 최대한 확보된다. 독립된 스카이 박스와 바비큐석, 패밀리석, 잔디석 등 다양한 이벤트석이 있다. [『도시철도로 떠나는 대구이야기여행』,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삼성라이온즈 http://www.samsunglions.com 참조】

6) 즐길거리 부족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즐길거리 부족'을 대구의 일반시민 0.4%, 오피니언리더 0.0%가 기타 이미지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가 없다 · 문화공간 부족 · 문화재가 없다 · 재미없다 · 공원없음 · 관광지 없음' 등을 연상하였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에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인식은 아마 대구가 내륙 분지에 위치하고 있고 자연경관에 특별한 곳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에는 대구에 각종 문화공간이 확보되고, 축제나 공연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도 일반시민들은 즐길거리가 부족하다고 하고,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구의 즐길거리들이 상대적으로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한 것이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예상해 봅니다.

비록 소수의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보다 더 보편화되고 대중화된 즐길거리가 필요하다는 요구일 것입니다.

7) 낮은 물가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낮은 물가'를 대구의 일반시민 0.3%, 오피니언 리더 0.2%가 기타 이미지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대구는 임진왜란과 6 · 25전쟁을 겪으면서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그리하여 대구는 타 도시에 비해 물가가 싼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전국의 온갖 물자들이 모였다가 필요한 지역에 공급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 대구인 관계로 생활비가 적게 드는 도시로 성장한 것입니다.

8) 기타

'대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기타'를 대구의 일반시민 1.6%, 오피니언 리더 2.2%가 기타 이미지 부문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도 · 50사단 · K2 · 한국가스공사 · 운전험악 · 급한 성격 · 자연재해가 거의 없다 · 공기가 탁하다 · 환경오염 · 교통체증 · 소비의 도시 · 솔라시티 · 우물 안 · 양반 · 달성 서씨 · 학연지연' 등을 연상하였습니다.

제2장

대구의 정신문화를 찾아서

제2장 대구의 정신문화를 찾아서

제1장 '대구의 이미지를 찾아서 1 문화유산' 에서 살펴보았듯이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하여 대구의 일반 시민 700명 중에서 0.6%가 '불교유산' 을 선택하였고, 오피니언 리더 집단 300명 중에서는 선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구의 일반시민 700명 중에서 0.1%만이 '유교유산' 을 선택하였고 오피니언 리더 집단 300명 중에서는 선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타문화 유산' 에서는 대구의 일반시민 700명 중에서 0.5%가 선택을 하였고 오피니언 리더 집단 300명 중에서는 0.8%가 선택을 하였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구는 '정신문화' 가 대표적인 이미지가 될 만하다고 대구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대구에 종교나 사상과 같은 정신문화가 빈곤해서가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대표 이미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즉 '더위' 라든지 자연환경을 대표 이미지로 선택하는 바람에 정신문화를 미쳐 선택하지 못 했던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 제시하는 대구의 '정신문화' 유산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대구의 정체성' 에 다가가 봅시다. 전래된 시대별로 고찰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남아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자료는 대구광역시와 해당 정신문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1 불교문화 : 동화사

1) 창건

신라시대 때인 493년(소지왕 15년) 극달화상(極達和尙)이 창건하여 유가사(瑜伽寺)라 불렀는데, 832년(흥덕왕 7년) 심지왕사(心地王師)가 중창하여 동화사[桐華寺;겨울철인데도 절 주위에 오동나무꽃(桐)이 만발(華)하였다고 하여 지음]로 개칭함.

2)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 (동화사1길 1)

3) 홈페이지

【http://donghwasa.net】

4) 주요 유적

약사여래 대불

전체 높이가 33m에 이르러 석조 불상으로는 세계최대의 규모이며 1990년 10월 26일 착공하여 1992년 11월 27일 점안대법회를 봉행함.

대웅전

보물 1563호(조선)로서 장대석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가공하지 않은 나무를 그대로 활용하여 배흘림이 있는 두리기둥을 세워 건축함.

마애불좌상

보물 243호(통일신라)로서 높이 106cm이고 봉황문 입구에 있음. 지면에서 높이 조성되어 있으며 연화 대좌 아래로 구름무늬가 생동감이 있음.

석조비로자나불 좌상

보물 244호(통일신라)로서 높이 129cm이고 비로암 대적광전에 있음. 대좌와 광배가 완전히 보존됨. 민애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만듦.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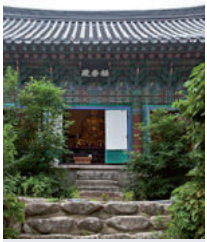
보물 248호(통일신라)로서 금당 극락전을 사이에 두고 동서 양쪽으로 서 있음. 1957년 탑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99개의 공양탑과 항아리 모양의 사리장치가 발견됨.

당간지주

보물 254호(통일신라)로서 높이 321cm이고 금당선원으로 올라가는 언덕 위에 있음. 당간지주는 당간을 세우기 위해 좌우에 지탱하는 돌기둥임.

홍진국사부도

보물 601호(고려)로서 높이 208cm이며 탑신 폭은66cm이고 홍진국사 혜영(1228-1294)의 탑으로 추정되는 부도탑임. 동화사를 중창하여 고려 말 법상종의 중심사찰이 되게 함.



극락전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11호(조선)로서 금당선원 내에 있는 전각임. 측면 3칸의 다포식 팔작지붕 건물로서 넓게 자른 판석을 세워 연결하는 가구식 기법을 사용함.

2 유교문화

1. 대구향교

1) 창건

조선시대 때인 1398년(태조 7년) 지금의 중구 교동에 창건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1599년 현 달성공원에 이전하여 재건함. 1605년 교동으로 다시 옮겨와서 1625년 명륜당을 복원함.

2)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35-4 (명륜로 112)

3) 홈페이지

【http://www.daeguhyanggyo.org】

4) 주요 유적

대성전

대구시 문화재자료 제1호로 1398년 창건함. 공자와 사성(안자, 증자, 자사, 맹자)을 배향하고 동종과 서종에는 송조 이현, 신라조 이현, 고려조 이현, 조선조 십사현의 위패를 모심.

서무

서무는 좌측, 동무는 우측에 있음. 대성전의 부속건물로서 1948년까지는 송조 이현과 동국 18현의 위패를 모셨으나, 지금은 대성전으로 옮김. 현재는 서고와 전사청으로 활용함.

내삼문

대성전과 양사재를 이어주는 문임. 바로 옆에 대성전과 낙육재 그리고 명륜당을 이어주는 작은 문인 동소문이 있음. 현재 대구향교의 주된 출입구는 외삼문임.

명륜당

1398년 창건함. 대성전과 함께 향교의 기본 건물로 창건되었으며, 대구지역 유림들이 모여 학문과 도의를 강마하던 곳임. 건물이 노후하여 1974년 와즙(기와 지붕)으로 중건함.

서재

좌측에 서재, 우측에 동재가 있음. 유생들이 수학을 할 당시 기숙사로 쓰임. 명륜당 창건할 때 함께 세웠으나, 이건 후에 건립하지 못하다가 1990년 낙육재 건립 시에 건축됨.

양사재

1766년(영조42년)설립함. 향내의 유생들을 선발하여 기숙하고 강학하였으며 향시를 치를 때는 과장(科場)으로 사용함. 현재 여성유도회, 여성예학연구원의 교육도장으로 사용함.

낙육재

1721년(경종1년)설립함. 관립 도서관으로 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일제가 조선인의 학교운영을 방해하여 그 재산으로 협성학교를 설립하고, 장서는 시립도서관으로 옮김.

유림회관

1986년 설립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향교발전과 유교진흥에 기여하고자 대구시 협조와 유림들의 성금으로 개관함. 충효예절교육, 윤리도덕교육, 경전강의 등을 함.

2. 달성 도동서원

1) 창건

조선시대 때인 1568년(선조 1년)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함. 1610년 사액서원(賜額書院:왕으로부터 편액 · 서적 · 토지 · 노비 등을 하사받아 그 권위를 인정받은 서원)이 되었으며, 서원 앞의 신도비, 은행나무 등을 포함한 서원 전역이 사적 제488호로 지정됨. 대구 최초의 서원은 '연경서원'이나 서원철폐령(1868) 때에 훼철(毁撤 ; 헐어서 치워 버림)됨.

2)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 (구지서로 726)

3) 홈페이지

【http://dalseong.daegu.kr/new/culture】

4) 주요 유적

도동서원 강당사당부장원

보물 350호로서 도동서원 강당과 사당 및 담장이란 뜻임. 중정당과 더불어 보물로 지정됨. 담장 면의 변화와 담장 지붕이 그리는 선이 아름다워서 보물로 지정됨.

중정당(中正堂)

서원의 중심 건물인 중정당은 강학을 하는 건물임. 현판은 왕이 친히 내렸고, '중정(中正)'은 음과 양이 조금도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중용의 상태를 말함.

거인재(居仁齋)

강당 앞마당 좌우에는 동재인 거인재(居仁齋)와 서재인 거의재(居義齋)가 대칭을 이루고 있음. 공자의 인의예지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인 '어짐'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임.

거의재(居義齋)

의가 머무는 곳이라는 뜻임. 이황은 김굉필을 두고 '동방도학지종'이라고 칭송했는데 이름을 도동(道東)으로 사액한 것도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라 함.

수월루(水月樓)

서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으로 1888년 소실되었다가 1973년 복원됨. '물 위에 비친 달빛으로 글을 읽는다.'는 뜻으로 공부하던 유생들이 답답한 마음을 풀던 곳임.

환주문(喚主門)

'내 마음의 주인을 부른다.'는 뜻으로 수기(修己)를 중시했던 김굉필의 시에서 따왔다고 함. 이 문은 몸을 굽혀 겸손하지 않으면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 높이가 낮음.

내삼문(內三門)

사당의 통로 역할을 하는 문임. 이곳은 제향공간으로 서원에서 가장 높고 깊은 곳에 위치함. 김굉필과 정구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데 매년 두 번 향사를 지낸다고 함.

장판각(藏板閣)

유물과 목판 보관하는 곳임. 달성 도동서원은 우리나라 5대 서원으로 영주의 소수서원, 안동의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과 함께 우리나라 서원의 백미라 함.

3 천주교문화 : 계산성당

1) 창건

조선시대 때인 1898년 9월(고종 35년) 한옥식 계산성당을 완공하였으나, 1901년 2월 소실되자 4월에 프와넬 신부로부터 벽돌식 계산성당 설계도를 입수하여 1902년 12월 3일 외부 공사를 완료한 다음 첫 미사를 봉헌하고, 1903년 11월에 뮈텔 주교가 축성식을 거행함.

2)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2가 71-1 (서성로 10)

3) 홈페이지

【http://www.kyesan.org】

4) 주요 유적

1891년 대어벌 임시 성당(현 인교동)

1899년 축성된 한국식 십자형 목조성당이나 1901년2월4일 지진으로 인한 화재로 소실됨.

1902년 벽돌로 된 성당을 완공후 12월 3일 첫미사를 봉헌함.

증축된 성당 안에서 김보록 신부님과 전교 회장님들이 기도하는 모습(1918년)

1935년 성당 주변 전경

주교좌 대성당 사제관(1935년) 현재 성당마당의 등나무 휴게소 자리

1935년 신축된 대성당 정문과 강당

1954년 성당 일대 사진 좌편이 성당, 우편이 사제관

1970년대 성당 주변 모습

1980년 부활대축일 미사 전경

1985년대 성당 주변 모습

2011년 성당 모습

4 개신교문화 : 대구제일교회

1) 창건

조선시대 때인 1898년(고종35년)에 와가 4동을 교회당으로 사용함으로써 경북 최초의 기독교 교회인 남성정 교회가 창립됨. 1933년 벽돌조 교회당(현재 대구제일교회기독교역사관)을 세워 제일교회로 개명함. 현재의 동산동 본당은 1994년에 새로 건축하였음.

2)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234번지 (국채보상로102길 50)

3) 홈페이지

【http://www.firstch.org】

4) 주요 유적

최초의 성전
(1898)

두 번째 성전
(1908)

세 번째 성전
(1933)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30호(1992년) 제일교회(대구제일교회 기독교 역사관)

안의와 목사 기념비 (The monument for Rev. James Adams.) 1935년 경북노회에서 건립

창립 50주년 기념비(The monument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church) 1947.10.10.

70주년 기념예배
(1964)

100주년
기념일 모습

교회창립 120주년 기념예배(2013)

남성로 선교관. 1933년 입당식, 1936년 벽돌조 5층 높이의 종탑을 세워 현재 모습을 갖춤.

대구제일교회 100주년 기념관 (2007년 교육문화관으로 건축한 후 명칭변경)

대구제일교회본당
(1994년 입당예배)

제3장

대구의 역사를 찾아서

제3장 대구의 역사를 찾아서

대구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 「대구교육누리」에서는 여러 차례의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제4차 대구정체성 초 · 중등교육 포럼〉 – '초등 사회과(역사 영역) 지역사 학습의 개선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대구 지역의 역사를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본 책에서 제시하는 유물과 유적에 관련된 사진은 대구광역시와 유적지 소재 구청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1 선사시대

대구에서는 언제 처음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 선사 시대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겨놓은 유적과 유물의 발굴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추적해 볼 수 있다. 2000년 파동 바위그늘 유적에서 '인공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강자갈' 들이 유적의 제일 아래층에서 출토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하여도 이것이 《구석기 시대》의 유물일 가능성이 보고가 되었으나 정확히 알 수 없었다.

□ 파동 바위그늘[암음(巖陰)] 유적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112

▷특징 : 수성구의 남쪽 경계지점인 장암사로 가는 길 입구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이 유적은 신천의 상류지역으로 유적의 서쪽으로 산성산이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법이산이 자리하여 좁고 긴 협곡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2000년 12월에 국립대구박물관에서 학술발굴조사 차원으로 실시하였는데 암음의 크기는 가로 8.5m, 높이 5m정도이다. 파동 암음유적에서 수습된 유물은 신석기시대의 갈돌, 긁개와 청동시기시대의 무문토기편, 박편 등과 삼국시대의 토기편, 고려, 조선시대의 자기편 등 16점이 확인되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문화관광(https://www.suseong.kr/tour)]

그러다가 2004년 대구 월성동 유적지에서 《후기 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되면서 대구에서도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좀돌날을 비롯하여 긁개와 새기개, 흑요석 석기 등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로써 **대구에는 약 2만년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 월성동 유적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월성동 777-2

▷ 특징 : 2006년까지 조사결과 1만 3184점의 다양한 구석기 유물이 나왔다. 특히 흑요석으로 만든 구석기 유물이 357점이나 나와 주목 받았는데 연구 결과 백두산이 원산지임이 밝혀졌다. 대구에서 정식 발굴 조사된 최초의 구석기 유적으로 후기구석기(1만~4만년 전)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 참조 : [국립대구박물관(http://daegu.museum.go.kr)]

대구월성동 유적 백두산 흑요석

대구월성동 유적의 위치와
구석기시대 흑요석 네트워크

□ 진천동 선사유적 공원

◇ 선사유적공원 : 달서구 진천동 470-38

◇ 고인돌소공원 : 달서구 진천동 713-14

◇ 한샘공원 : 달서구 대천동 353-5

◇ 선돌공원 : 달서구 월암동 431

▷ 특징 : 진천동 입석은 평면이 장방형으로 만들어진 나지막한 석축단 중심에 세워져 있다. 주변에 무늬없는토기(無文土器) 조각과 석기(石器) 등이 출토되었다.
입석 주위에는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무덤인 돌널무덤 5기가 있는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1998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411호)로 지정되었으며, 선사유적공원을 조성하여 2000년부터 개방했는데 입석 1기, 석관묘 5기, 모형 석관묘 2개소, 모형 입석 1개가 있다.

▷ 참조 : [달서구청 문화체육관광과 (www.dalseo.daegu.kr/pages/tour)]

진천동 입석(선사유적공원)

대천동 청동기유적(한샘공원)

진천동 고인돌(지석묘)

상인동 입석(선돌)

《신석기 시대》 유물로는 1998년과 1999년에는 신천변 상동 유적지와 동화천변의 서변동 유적지에서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고, 서변동 유적지에서는 주거지까지 확인되었다. 당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의 모양과 무늬는 중부지역이나 산청 강누리에서 발견된 빗살무늬토기와 비슷했는데 이로 볼 때 이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3천년전 어느 시기에 경북의 서쪽 내륙이나 혹은 충청도지역에서 이동해 와서 터를 잡고 살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 서변동 유적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산 38

▷ 특징 : 서변동 유적은 1964년 청동도끼의 출토지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집자리 48기, 고상가옥 3기, 돌널무덤 6기, 구덩유구 39기, 집석유구, 도랑유구 3기, 옛 하천과 그밖에 신석기시대의 집자리 1기, 돌무더기, 구덩이와 삼국시대의 도랑 및 논이 확인되었다. 금호강에서 1㎞ 정도 거슬러 올라온 동화천 서쪽의 산지퇴적물과 하천퇴적물이 만나면서 형성된 충적평야에 위치한다. 돌널무덤은 장방형계 집자리 주변에서 5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목기 외에 토기류는 골아가리무늬, 구멍무늬, 짧은빗금무늬, 혹은 서로 무늬가 복합된 바리모양이 주류이며 항아리모양도 일부 있다. 석기로는 삼각만입돌화살촉, 반달돌칼, 조갯날도끼, 양날도끼, 톱니날도끼, 돌끌, 돌낫 등 다양하다.

서변동 빗살무늬토기

서변동 주거지

□ 대구 서변동 선사유적 전시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724-1

▷ 참조 :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1층 www.ulsc.co.kr/subpage/index/28]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유적인 고인돌과 돌널무덤은 신천과 진천천, 가창, 칠곡 동명일대를 따라 존재하는데 이곳에서 돌을 갈아 만든 무기류와 농기구 및 청동 칼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북구 서변동, 동천동, 팔달동 그리고 달서구 월성동, 송현동에서는 집자리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연암산 유적에는 돌로 만든 무기나 농기구를 전문적으로 대량 생산해 주변 마을에 공급하였던 '석기제작장'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전문 석기 제작장을 볼 때 이 시기에 이르러 대구가 하나의 정치권역으로 묶여졌고, 그 안에 있던 여러 동네의 거주 집단들이 가장 강한 정치 세력의 지배권 아래로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즉 전문 수공업집단의 출현과 사회의 분화, 이를 통제할 수장의 출현 등은 대구도 단위 국가 정치체로의 발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 주는 귀중한 자료다.

□ 연암산 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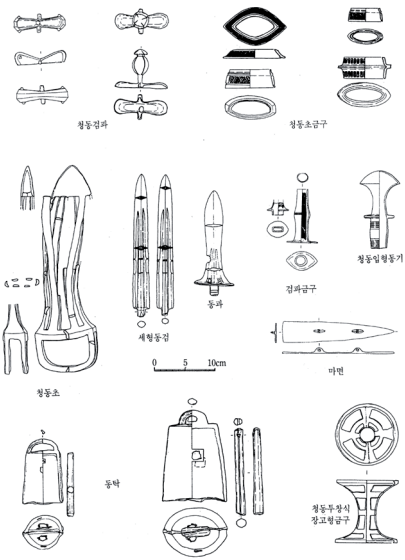
▷ 소재지 : 대구시 북구 산격동 연암산

▷ 특징 : 연암산 근처는 대구 선사문화 태동지 =연암산은 경북도청 바로 뒷산으로 금호강, 신천, 동화천과 침산을 아우르는 위치에 있으며 천혜의 지세를 자랑한다. 영천을 지나온 금호강이 바로 밑에서 동화천과 합류하고 대구 도심의 자양분인 신천이 턱밑에서 물길을 연다. 수렵과 농경, 사냥이 손쉬운 곳. 선사인들이 이곳을 거주지로 정한 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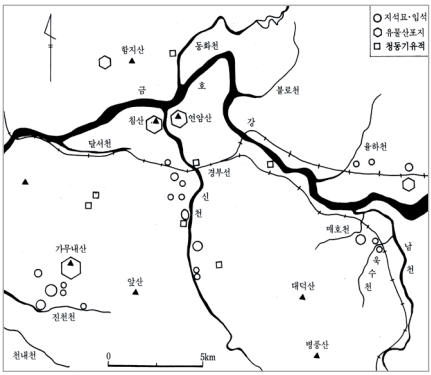
연암산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각종(〈古文化〉5·6합, 1968

주변 동서변동에선 대구 최초로 신석기 빗살무늬토기 유적이 발견됐고 신천 자락에선 청동기문화 벨트가 형성되었을 만큼 이 근방은 일찍부터 선사문화의 태동지로 주목을 받았다. 출토 유물로 추정한 연암산 유적지의 연대는 초기 철기시대. 대략 2세기 전후로 추정된다. 이 시기 대구는 4, 5개 그룹의 부족들이 일정 영역을 나누어 할거하던 시기였다. 당시 소국(小國) 같은 정치체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족 집단들은 일정 지역을 근거로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부족의 수장(首長)은 해당 지역 물자의 생산과 분배, 교역을 통제했다. 각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어로, 금속, 석기 등은 이웃 부족들과 교역을 통해 대구 전역으로 유통되었다. [매일신문 2014-4-12 한상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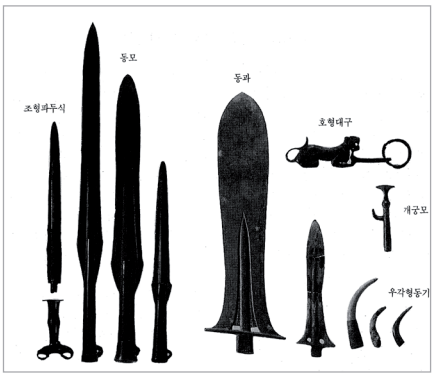
이러한 대구지역의 청동기사회는 새로운 초기철기문화의 영향을 받아 국보 제137호인 대구 비산동 출토 동기류 중 세형동검을 비롯해 만촌동, 평리동 등에서 청동거울 · 꺾창과 같은 보다 다양한 청동기가 출토되어 다각도로 변하는 대구의 사회변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전의 청동기는 의식용이나 장식용으로 쓰이게 되고, 철기는 실용의 도구나 농기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대구 지역의 선사 시대 유물은 국립대구박물관, 각 대학박물관등에서 만날 수 있으며, 가창과 국립대구박물관에서는 고인돌 유적을 볼 수 있다.



평리동 청동기유적 출토유물(≪한국고고학보≫10·11합, 1981)



청동기시대 및 초기철기시대 유적 분포도



비산동 청동기유적 출토물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청동기문화≫1992)

2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대구에서 본격적으로 금속 유물이 사용된 것은 기원전 1세기에 이르러서다. 이 시기에 대구의 몇몇 구릉에는 청동기와 철기를 소유한 세력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구지역의 집단 간에는 세력격차가 생겨났는데 대표적인 세력이 평리동, 비산동 일대의 집단이다. 이들은 주변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나가면서 소국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대구의 핵심세력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비산동에 있는 《초기철기시대》 무덤유적에서 발견된 유물인데 이곳에서 동검칼집부속구, 투겁창, 꺽창, 소뿔모양 동기를 비롯한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지금의 **대구는 2세기 초 신라에 병합된 것으로 추정**되며,『삼국사기』및 고분군 분포를 보면 대구지역에는 최소 4~5개의 정치체가 존재(불로동고분군, 칠곡 구암동고분군, 화원 성산고분군, 비산동고분군, 달성고분군 등)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 불로동 고분군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335

▷ 전쟁으로 아이만 남고 늙은 사람이 없었다 하여 이름 붙은 불로동에는 고분 수백 기가 있다. 사적 262호로 지정된 대구 불로동 고분군이다. 이곳의 역사는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이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던 5세기 전후, 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토착 지배 세력이 조성한 무덤이다. 1938년 조선총독부가 2기를 발굴하고, 1963~1964년에 경북대학교박물관이 발굴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고분 214기가 불로동과 입석동 언덕에 모여 있다. 발굴할 때 대부분 도굴된 상태여서 토기와 굽다리접시, 그릇받침, 말띠드리개, 재갈 등 일부 유물만 출토되었다. 유물은 경북대학교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도시철도로 떠나는 대구 이야기 여행』,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그중 지금의 **달성토성**을 중심으로 한 **달구벌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문헌자료에 등장하는 지명은 달벌(達伐)이며 이후 달구화(達句火), 달구벌(達句伐) 등도 함께 사용되었다. 아마도 대구에는 달구벌 또는 달구벌국, 달벌국이라는 초기 국가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달구벌의 벌(伐)은 벌판 혹은 평야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고 화(火)의 훈(訓)이 '불'로 '벌'과 비슷하기 때문에 '벌(伐)'이나 '화(火)'는 통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대구가 달벌, 달구화, 달구벌 등으로 각기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벌'과 '화'는 둘 다 '취락'이나 '성(城)'을 뜻하며 대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첨해이사금 15년(261)에 달벌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으나, 고고학적으로

4세기 중엽이후 달벌성이 축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후 달벌은 신라에 속한 큰 읍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 달성공원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공원로 35

▷ 특징 : 사적 제 62호. 달성의 옛 이름은 이 달구화(達句火) 달불성(達弗城)에서 유래된 것이다. 달성은 청동기시대 이래로 이 지방의 중심세력을 이루고 있던 집단들이 그들의 생활근거지에 쌓은 성곽(城廓) 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벽의 아래층에는 조개무지 유적이 있고 목책(木柵)의 흔적도 있다. 따라서 달성은 우리나라 성곽발달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난 형식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첨해왕(沾解王) 15년(261)에 달벌성을 쌓고 나마(奈麻)인 극종(克宗)을 성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에 합병된 뒤에는 군사요지로 중시되었으며 그 후 고려 공양왕 2년(1390) 토성에 석축을 더했다. 조선조 선조29년(1596)에 석축을 더하고 경상감영을 이곳에 둔 일이 있다. 성벽은 주로 흙으로 축조되었고 주위 길이는 약1,300m 높이는 4m 안팎이다.

▷ 참조 : [대구광역시 문화관광(http://www.daegu.go.kr/cts)]

관풍루

경상감영 풍속재연 행사

대구의 뿌리, 달성

지금은 주택가가 들어서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비산동과 내당동 일대에는 87기의 삼국시대 고분들이 일제강점기까지 남아 있었다. 이 고분에서는 경주와 유사한 양식의 금동관, 금제귀걸이 등 화려한 유물이 출토되어 대구지역 중심 집단의 무덤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밖에도 불로동고분군, 구암동고분군, 성산리고분군 등이 존재해 신라에 통합되기 전 대구지역에 여러 정치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기 국가 당시 달구벌국은 달성 토성을 중심으로 대체로 현재의 대구시내에 속하는 지역을 범위로 하는 정치적 중심지인 국읍 아래 화원권, 칠곡권, 다사강창권, 두산동파동권, 불로동동촌권에 각각 존재하던 읍락이 결합되어 있는 읍락국가 형태였다. 그러다가 4세기 무렵에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사로국에 병합됨으로써 신라의 일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달구벌국이 신라에 복속되기는 했지만 내부의 지배세력이 변한 것은 아니었다. 신라는 달구벌국의 세력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간접 지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신라 마립간은 달구벌국 수장에게 금동관을 비롯한 위세품을 하사하였는데 이는 달구벌간을 위무하는 동시에 독립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다. 그 후 신라는 5세기 후반을 전후로 하여 복속한 지역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하고 왕명을 대행하는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역의 백성들을 직접 지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제 대구는 완전한 신라의 지방으로 재편되어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당시 지방관은 왕명을 대신하여 각 지역에 파견되어 지역민을 통치하고 조세 수취를 담당하였으며 달구벌의 지지세력들은 그 지방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인 신문왕 9년(689)에는 "**달구벌로 천도를 시도**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라는 『삼국사기』 기록이 보인다. 또 『삼국사기』의 신문왕 9년에는 "(신문)왕이 장산군 지금의 경산에 순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아마도 신문왕은 장산군을 순행하는 명분으로 천도 지역을 사전 답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당시 신라는 대구로의 천도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나 실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원활한 지방 지배를 위해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편제하고, 9서당 설치,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 등 일련의 제도 정비를 통해 전제 왕권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는데, 신문왕대의 달구벌 천도 계획은 이러한 통일 사업의 마무리 차원에서 시도된 것으로 여겨진다.

달성37호분 출토 금동관

달구벌이 신라의 수도 후보지였다는 것은 통일신라시대에 대구가 차지하는 위상이 만만치 않았음을 짐작케 해준다. 대구는 수로와 육로 교통의 중심지였고, 분지지형으로 외적을 방어하기에 매우 유리한 곳이다. 또한 농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농업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고 왕경으로부터 가까우며, 신라의 오악(五岳) 가운데 중악(中岳)혹은 부악(父岳)으로 숭배한 팔공산도 대구에 인접해 있어서 수도로서의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경주가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기에 대구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것이다.

□ 신라의 대구 천도 계획

군사·교통의 요지…신라 정부, 대구 주목=그러면 대구가 천도 후보지로 거론된 이유가 무척 궁금해진다. 학자들은 대략 세 가지로 그 현상을 요약한다.

신문왕릉

첫째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장점이다. 6세기 신라는 가야와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대구의 요새로서의 매력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두 수역(水域)을 끼고 있는데다 사방이 막힌 분지 지형이어서 진지(陣地)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교통 요지로서의 특징이다. 낙동강, 금호강 수계를 끼고 있는데다 남해와 중부 내륙을 넘나드는 사통팔달의 도시 매력은 신라 정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밖에 대구가 곡창지대가 넓어 농업 생산력이 풍부한 점이나 신라 5악 가운데 중악(中岳)인 팔공산을 끼고 있다는 종교·사상적 상징성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신문왕에 의해 야심차게 추진되던 천도 계획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계획이 무산된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중앙 귀족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단행되었던 녹읍 혁파로 귀족, 관료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보았다. 위기감을 느낀 기득권층의 반발이 거세졌음은 물론이다. 더구나 즉위 초 김흠돌(金欽突) 반란 사건을 경험했던 왕으로서는 이런 귀족들의 집단적 반발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다.

이렇게 한바탕 소란을 겪고 난 대구 지역은 신라 말에 다시 한 번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신라 하대 왕위 쟁탈전의 여러 사건이 대구를 무대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김우징의 난 당시 장보고의 주력 부대가 경주로 진군할 때 격전을 벌인 곳이 팔공산 일대고 왕건과 견훤이 후백제 패권을 놓고 결전을 벌인 곳도 대구였다. 신라 하대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에 천도가 실행되지 못했지만, 신라 말 이후 대구는 여전히 지방과 왕경을 잇는 중심축이자 균형추였던 것이다. [매일신문 2014-06-21한상갑]

신라 행정체계인 군현체제 아래서 대구는 위화군과 달구화현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경덕왕 16년(757)에는 양주(良州)의 관할아래 군명을 수창군으로 개칭하였으며 그 안에 군치와 대구현 팔리현 하빈현 화원현등 4개현이 속하게 되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대구(大丘)'라는 지명이 기록에 나타난다. 신라의 지방행정구역 명칭은 그 후 혜공왕 12년(776) 복고정책에 따라 전국의 지명이 원래 지명으로 환원되었는데, 이때 대구의 여러 지명도 그 이전의 이름으로 되돌아갔다. 신라 말까지 달벌이라는 지명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까지는 대구보다는 주로 달벌, 달구화. 달구벌 등이 대구의 지명으로 더 많이 쓰였던 것 같다.

또 대구는 교통로상 경주와 연결되는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경주 방어를 위한 외곽요충지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신라말기 왕위쟁탈전 당시 격전지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청해진에 근거지를 둔 장보고의 도움을 받은 우징(뒤의 신무왕)의 군대와 중앙정부군이 한바탕 격돌을 벌인 전쟁터였으며, 또한 후삼국 정립기에 신라의 요청을 받아 출정한 고려 왕건이 경주를 유린하고 퇴각하던 후백제 견훤의 군대를 맞아 싸웠던 격전장이기도 했다.

장보고 영정

신무왕릉

836년 12월 흥덕왕이 후계자 없이 죽자 그의 사촌동생 균정과 다른 사촌동생인 헌정의 아들 제륭이 왕위를 두고 다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균정이 살해되고 제륭이 김명 등의 추대를 받아 희강왕이 되었다. 하지만 희강왕이 즉위한지 3년만에 김명의 핍박을 받아 자살하고 김명이 뒤이어 민애왕이 되었다. 이때 균정편에 섰던 김우징과 김양은 청해진대사 장보고에게 의탁하여 군사적 후원을 받았다. 839년에는 경주를 향하여 총진격을 하였는데 당시 김우징의 명령으로 청해진에서 5,000여 기병을 이끌고 달려온 김양은 달구벌에서 민애왕의 10만 군대와 접전을 벌여 크게 승리하였다. 대구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승리한 우징은 신무왕으로 즉위하였다. 동화사 비로암에는 '민애대왕석탑사리호' 가 남아 있는데, 이사리호는 전쟁에 패해 죽임을 당한 민애왕을 애도하기 위해 경문왕 3년(863)에 만든 것이다.

민애왕릉

민애대왕석탑사리호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3 고려시대

후삼국 정립기에 고려와 후백제의 쟁패 과정중에 공산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 **공산전투**는 경애왕 4년(927) 후백제의 견훤이 고울부(지금의 영천)를 습격하고 경주로 진격해갈 즈음 위기를 느낀 신라가 고려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927년 8월 견훤은 마침내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신라 근암성(지금의 문경)과 고울부를 공격해 함락시키고 수도 금성(지금의 경주)으로 진군했다. 위기를 느낀 신라 경애왕은 고려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왕건은 신라를 돕기 위해 9월초에 시중 공선에게 1만 명의 군사를 맡겨 원군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고려군이 미쳐 신라에 도착하기도 전에 후백제군이 경주를 점령하여 경애왕을 자결케 하였으며 경순왕을 새 왕으로 세우고 보물들을 약탈한 후 귀환 길에 올랐다.

□ 공산전투도

○ 전투국 : 고려 - 후백제
○ 시기 : 927년(태조 10) 9월
○ 전투지역 : 대구 팔공산 일대 [출처:문화콘텐츠닷컴]

이 소식을 접한 왕건은 크게 분노하여 친히 5000명의 정예 기병을 이끌고 퇴각하는 후백제군을 격파하기 위해 출정했다. 당시 양국의 군대가 가장 치열하게 격전을 벌인 곳이 바로 지금의 파군재에서 동화사로 올라가는 길과 파계사로 올라가는 길 사이에 위치한 지묘동의 왕산 아래 기슭인 미리사(美里寺) 앞이었다. 이 전투에서 고려군은 참담하게 패했으며 **김락**과 **신숭겸**도 전사했다. 특히 신숭겸은 왕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왕의 갑옷을 대신 입고 군사들을 지휘하다 후백제군의 화살을 맞고 목숨을 잃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신숭겸의 순절단과 표충재가 이곳에 세워져 있다. 공산 전투이후 고려 태조 12년(929)까지는 경상도 지역에서의 주도권은 후백제가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930년 고창(현재 안동)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한 이후 경상도지역에서의 주도권은 완전히 고려로 넘어갔으며 대구지역 또한 고려의 세력권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 **신숭겸 유적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신숭겸길 17

▷ 특징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1호이다. 신숭겸 장군은 왕건을 받들어 고려를 개국하였다. 그 뒤 대장군이 되어 927년(태조 10)태조와 신라를 도와 후백제를 공격하고자 하였으나 대구 공산(公山) 싸움에서 후백제군에 포위되어 태조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 때 자신이 왕으로 변장하여 김락(金樂)장군과 같이 싸우다가 왕건을 대신하여 전사하였다.

태조는 장군의 죽음을 애통하게 여겨 그의 시신을 거두어 광해주(지금의 춘천)에 예장(禮葬)하고, 전사한 자리인 이 곳 대구 공산에 순절단과 지묘사를 세워 그의 명복을 빌게 하였다.

그 후 지묘사는 고려의 멸망과 함께 폐사되었으나 1607년(선조 40) 경상도 관찰사 유영순(柳永詢)이 이 자리에 표충사·표충단·충렬비를 건립하여 공의 혼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였다. 1672년(현종 13)이 서원에 사액을 내려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1871년(고종 8) 서원훼철령에 의해 표충사가 훼철된 뒤로 후손들이 재사(齋舍)를 신축하여 지켜오고 있다.

▷ 참조 : [신숭겸장군유적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대구에는 왕건과 관련된 무수한 지명 이야기들이 속전이나 설화를 통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 군사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경계하라는 **[무태]**
- 이곳을 지날 때 마을에서 글 읽은 소리가 들려 **[연경]**
- 왕건의 군대가 크게 패한 고개 **[파군재]**
- 신숭겸의 지략으로 교묘하게 왕건을 구출할 있었다고 해서 **[지묘]**
- 왕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백안동]**
- 왕건이 패하고 쫓겨 혼자 앉았다는 **[독좌암]**
- 어른들은 피란가고 아이들만 남아 있어 **[불로]**
- 위험을 피해 얼굴이 펴진 곳 **[해안]**

- 왕건을 살렸다고 **[왕산]**
- 한밤중에 달이 중천에 떠 탈출로를 비췄다고 **[반야월]**
- 이곳에 도착해서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는 **[안심]**
- 왕건이 견훤에게 포위당했을 때 8명의 공신에 의해 살아남았다 **[팔공산]**
- 신숭겸이 전사한 것을 기린 사당 **[표충단]**

그 외에도 무사히 앞산까지 피신한 왕건이 머물렀다는 사찰들이 여럿이 있다.

□ 임휴사(臨休寺)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대덕산(앞산

▷ 특징 : 921년(신라 경명왕 5년)에 영조대사(870-947)가 창건하였다. '임시로 쉬어갔던 절'이란 뜻의 임휴사는 태조 왕건이 패배로 지친 심신을 부처님 전에 달래어 심기일전하고 다시 전장에서 승리를 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도량이다.

□ 은적사(隱跡寺)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대덕산(앞산)

▷ 특징 : 926년(신라 경애왕 3)에 역시 영조대사가 창건하였으며, 고려의 태조가 '몸을 숨겼던 곳'이라 하여 은적사라 하였다.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석가여래좌상이 고려 말 경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지장탱화 역시 1880년대에 조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안일사(安逸寺)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대덕산(앞산)

▷ 특징 : 927년(신라 경순왕1) 역시 영조대사가 창건하였다.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후백제 견훤에게 패하여 이곳에 숨은 적이 있으며, 그래서 이 절이 있는 곳을 왕건이 앉았던 곳이라고 해서 [**안지랭이골**]이라고 부른다. 또 절 위 500m 지점에는 왕건이 머물렀던 [**왕굴**]이 있고 그 아래에는 [**장군굴**]과 [**장군수**]가 있다. 왕건이 이곳에서 3개월 동안 '편안하게 있었다' 해서 사찰 이름을 안일암(安逸庵)이라 했다.

고려 초기의 대구지역은 수성군, 대구현, 해안현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대구현은 수성군에, 해안현은 장산군에 속해 있었고, 이후 인종 21년(1143) 대구현 현령관으로 승격되어, 지방관이 파견되고 화원현과 하빈현이 속읍으로 포함되면서 점차 그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무신정권기에 전국적으로 민란이 일어났을 때 대구가 그 중심지의 하나가 되었고, 몽고 침입기에는 **부인사**에 소장되어 있던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었으며, 전란을 피하여 팔공산 공산성에서는 항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부인사는 선덕여왕 초상이 모셔져 있어 부인사(夫人寺)라고 부르기도 한다.

□ 부인사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 9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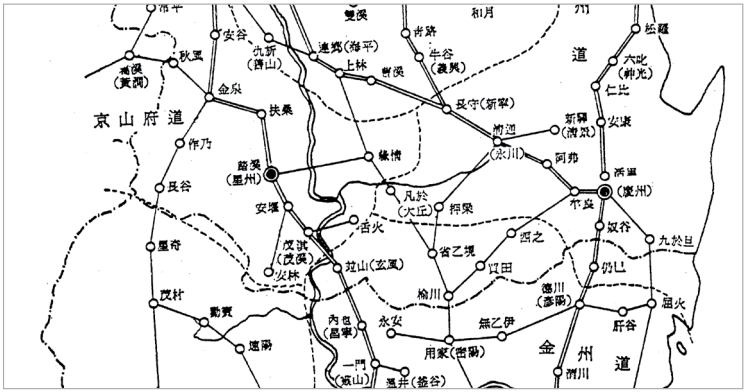
▷ 특징 :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된 절로 짐작되며,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39개의 부속암자를 관장하였고 2천여 명의 승려가 머물며 수도하였다고 한다.

고려 현종 때부터 문종 때까지 도감을 설치하고 고려 초조대장경(初彫大藏經)을 판각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판각은 몽골의 침입으로 대부분 소실되었고, 현존하는 1,715판도 일본 교토[京都] 난젠사[南禪寺]에 보관되어 있다. 몽골 침입 이후 중건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다시 불탔다.

문화재로는 신라시대의 당간지주, 쌍탑(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7호), 석등(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6호), 석등대석, 마애여래좌상, 배례석 등이 있다.

고려시대 경상도지역의 역도



4 조선시대

조선이 세워진 후 대구는 농업의 주요 생산지로 인구가 점차 증가하였고, 또한 **영남 내륙교통의 중심지**로 부각되었다. 세종 1년(1419)에는 대구현이 대구군으로 격되었으며, 세종 30년(1448)에는 복지제도인 사창(社倉)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설치되어 시범 운영되기도 하였다.

□ 구암서원(龜巖書院)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산79-1

▷ 특징 : 구암서원은 조선 현종6년(1665)에 구계 서침 선생의 덕을 기리기 위해 봉안·제향하였다. 그 후 사가 서거정, 약봉 서성, 함재 서해, 낙재 서사원을 추가 배향하였다. 고종5년(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가 1924년 유림에 의해 중건되었고, 1996년에 북구 산격동 산 79-1번지 현 위치로 다시 옮겨지게 되었다.

▷ 참조 : [구암서원(www.sunbicamp.co.kr)]

□ 현풍향교

▷ 소재지 : 대구 달성군 현풍면 상리

▷ 특징 : 현풍향교는 조선 초에 건립되었으나, 현감 이영도가 옛 교동에 중건하였고 영조 34년(1758)에 현감 김광태가 현 위치로 이건하였다. 그후 고종 광무 5년(1901)에 다시 현감 허길이 중수하였고 1931년 군수 신현구가 대성전, 명륜당, 동·서무를 중수하였다. 1750년대 건물로 추정되는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집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7호로 지정되어 있다.

▷ 참조 : [달성군청(www.dalseong.daegu.kr)]

□ 칠곡향교

▷ 소재지 : 대구 북구 읍내동 600

▷ 특징 : 조선 인조 경진년(1640년)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성전·명륜당·동무(東) 등이 있다. 대성전에는 5성(五聖), 송조2현(宋朝二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대성전은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6호로 지정되어 있다.

▷ 참조 : [칠곡향교(www.chilgokhyanggyo.org)]

세조 12년(1466)에는 도호부가 설치되어 군사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높아지게 되었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부터 영남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대구를 침략 · 보급의 통로로 이용하자, 대구 주변에서 곽재우 등의 의병들이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결전을 벌였고, 낙동강을 따라 퇴각하는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한 조선과 명의 연합군의 군사 작전 또한 대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후 대구는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으며 위상이 점차 높아져 갔다. 그 결과 임진왜란 직후인 1601년 선조 34년에 경상감영이 대구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경상도의 행정 · 군사 · 경제 · 문화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다.

그 후 효종 9년(1658)에는 대구객사 주변에 약재시장이 개설되면서 약령시가 개설되고, 대구읍성이 축조되면서 대구는 해안현, 하양현, 경산현, 수성현, 화원현, 하빈현을 거느린 명실상부한 영남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다.

□ 녹동서원

▷ 소재지 :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길 218

▷ 특징 : 이 서원은 임진왜란때 귀화한 삼란공신 모하당 김충선(일본명:사야가)을 추모하기 위해 정조 13년(1789)에 건립되었으나, 1971년에 현위치로 옮겨 증축하였다. **김충선**(金忠善,1571~1642)은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휘하의 좌선봉장으로 참전하였다가 조선에 귀순하였다. 이후 조총 제작 기술을 전수하고 경주, 울산 전투에서 공을 세워 조정으로부터 김충선이라는 성과 이름을 하사받았다. 이후 이괄의 난과 병자호란 당시에도 큰 역할을 하였으며 말년에는 낙향하여 향리교화에 힘썼다.

▷ 참조 : [대구시 달성군청(www.dalseong.daegu.kr)]

□ 모명재, 뽕나무골목

▷ 소재지 : 대구 수성구 만촌동 716 모명재
대구 중구 계산동 137 뽕나무 골목

▷ 특징 :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원병으로 왔던 명나라 장수 **두사충**(杜師忠)이 귀화한 후 그의 후손들이 1912년에 세운 것이다. 모명재라고 한 것은 두사충의 고국인 명나라를 사모한다는 뜻이고 대문에 달려있는 만동문 역시 그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순신 장군이 지어 보냈다는 한시가 새겨져 있는 대청기둥이 있다. 두사충은 1592년 임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명나라 제독(提督)이던 이여송(李如松)등과 함께 원병을 왔다.

정유재란 때 두 아들과 함께 원병을 와서 공을 세웠는데 난이 평정되고 난 후, 조선에 귀화하였다. 대구에 정착하면서 계산동 일대를 하사 받았는데 여기에 뽕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하여 여기를 '뽕나무 골목'이라 한다. 경상도 감영을 여기에 옮기자 그 땅을 내어놓고 앞산 밑으로 거주지를 옮겨 명나라를 생각한다는 뜻으로 동네 이름을 대명동(大明洞)이라 붙이고 매월 모국을 향해 배례를 올렸다고 한다.

▷ 참조 : [대구시 수성구청(www.suseong.kr), 대구시 중구청(www.jung.daegu.kr)]

하지만 지금은 대구읍성과 감영의 여러 건물들이 즐비했던 당시의 모습은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정조와 순조때 새로 지은 징청각과 선화당이 그나마 남아 있어 조선시대 관아의 모습을 살필 수 있을 뿐이다. 현재는 성곽의 흔적도 4대문의 자취조차 찾아보기 힘들지만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구는 견고한 읍성을 중심으로 성 안과 성 밖이 구분되어 있었으며 백성들은 성문을 통해 드나들었다. 대구시내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 거리를 연결하면 사각형에 가까운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길이 예전 읍성의 성벽이 있던 자리이다. 현재 동성로 1가 제일은행대구지점앞 진동문~조흥은행 서성로지점앞네거리 달서문~북성로 대안성당뒷길과 북성로가마주치는지역공~북문~남성로 약전골목구대~남한의원앞네거리 영남제일문을 연결하면 대구 읍성의 모습을 대충 그려볼 수 있다. 하지만 대구 읍성은 1906년 일본인들의 성곽 철거 요구로 파괴되었고 그 후로 흔적마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 대구읍성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 17

▷ 특징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축성되었던 대구읍성' 대구읍성은 본래 1590년(선조23) 왜구의 침략에 대비해 쌓은 토성으로, 청도, 영천, 안동, 상주, 부산, 동래, 진주 등의 읍성과 같이 만들어졌다. 임진왜란 때 파괴되었으며, 이후 1736년(영조12) 석성으로 다시 축성되었다.

성의 둘레는 약 2,650m, 성곽의 폭은 약 8.7m, 여첩 819개, 높이는 서남쪽 18척(약 3.8m), 동북쪽 17척(약 3.5m)에 이르렀다. 영남제일관(남), 달서문(서), 진동문(동), 공북문(북)을 기본으로 동소문과 서소문 등 총 6개의

문을 두었으며, 네 모퉁이에는 장대(망루)가 있었다.

읍성 안 북동쪽에는 경상도의 정치·행정·군사의 중심이 되었던 **경상감영**이, 북서쪽에는 관리들이 머물던 객사 달성관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읍성 남서부와 동남부를 중심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었다.

□ 경상감영

▷ 관풍루 : 경상감영의 정문인 외삼문(포정문)의 2층 누각을 관풍루라고 불렀다. 1906년 읍성이 철거될 때 지금의 달성공원으로 관풍루와 망경루 건물을 옮겼으며, 지금의 관풍루는 1970년 해체 복원된 것이다. 관풍루는 감영과 민가의 경계 위치에서 동서남북 4개의 성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에 맞춰 풍악을 울리며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렸다고 한다.

▷ 선화당 : 지금의 일반도청 청사의 기능과 법원의 기능을 복합한 건물로써 관찰사의 정무를 처리하던 감영의 본관건물이다. 1601년(선조34) 세워졌으며 몇 차례의 화재를 겪은 후 1807년(순조7) 새로 지었고 1970년에 중수하였다. 선화당이라는 이름에는 '임금의 덕을 선향하고 백성을 교화한다(宣上德而化下民)'는 뜻이 담겨 있다.

▷ 참조 : [대구시 중구청(www.jung.daegu.kr)]

□ 옻골마을

▷ 소재지 : 대구 동구 둔산동 옻골로 167

▷ 특징 : 옻골마을은 경주최씨 광정공파 후손들의 집성촌으로서 조선 중기의 학자 최동집(崔東集)이 1616년(광해군 8) 이곳에 정착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옻골은 마을 남쪽을 뺀 나머지 3면의 산과 들에 옻나무가 많아 붙은 둔산동의 다른 이름이고, 경주최씨 종가 및 보본당 사당(報本堂祠堂)을 비롯해 20여 채의 조선시대 가옥으로 이루어져 있다.

▷ 참조 : [대구시 동구청(www.dong.daegu.kr)]

□ 삼가헌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 800

▷ 특징 : 묘골마을은 사육신의 한 사람인 충정공 박팽년(朴彭年,1417~1456)의 후손

들이 모여 사는 순천 박씨 집성촌이다. 삼가헌은 묘골마을과 낮은 산 하나를 경계로 하고 있는 파회마을에 자리잡은 조선시대의 주택이다. 박팽년의 11대손인 박성수가 1769년에 이곳에 초가를 짓고 자신의 호를 따서 '삼가헌'이라 한 것에서 유래한다. '삼가(三可)'란 중용 9장에 나오는 선비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말하는데,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수 있고, 벼슬과 녹봉을 사양할 수 있고, 날카로운 칼날을 밟을 수 있다'라는 뜻이다. 중요민속문화재 제104호.

▷ 참조 : [달성군청(www.dalseong.daegu.kr)]

□ 남평문씨본리세거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401-2

▷ 특징 : 남평문씨 본리(인흥)세거지는 옛 인흥사 절터에 형성된 민속마을이다. 인흥사는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스님이 1264년에 포항 오어사에서 옮겨와 중창한 사찰인데, 임진왜란 때 전부 소실되었다. 19세기 중반 인산재 문경호가 지금의 광거당 자리에 용호재를 건립하면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본 세거지는 20세기 초 민족의식을 고취하면서 근대화를 지향했던 철학이 엿보이는 곳으로 기존의 전통마을의 풍수지리적 정서와 민속적인 풍습도 간직하고 있으며, 특히 배산향천의 조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평지에 위치하여 농경생활을 근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참조 : [달성군청(www.dalseong.daegu.kr)]

□ 현풍석빙고

▷ 소재지 :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상리 632

▷ 특징 : 국가 지정 보물 제 673호로 전면에는 개울이 흐르고 후면은 낮은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석빙고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의 형태를 띠는데, 입구를 산기슭으로 향하여 돌아앉아 남쪽을 바라보도록 설치하였다. 우리 선조들의 온·습도 유지에 대한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982년 건성비가 발견됨에 따라 1730년에 만들어진 것임이 밝혀졌다. 대체로 큰 고을에 석빙고를 설치하였던 사실을 감안할 때, 고을의 규모가 현(縣) 수준에 불과한 현풍에 석빙고를 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참조 : [달성군청(www.dalseong.daegu.kr)]

□ **사문진 주막촌**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274

▷ 특징 : 사문진은 낙동강 하류로부터 유입되는 물산을 공급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물산운송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낙동강의 대표적인 나루터였다. 옛날 보부상들이 부산에서 낙동강을 거슬러 대구로 오는 뱃길로 이용되었으며, 1900년 3월 26일 미국선교사 사이드 보탐에 의해 그 당시 '귀신통'이라 불린 한국 최초의 피아노가 유입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이다. 또한 1932년 일제 강점기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이규환 감독의 '임자 없는 나룻배'촬영지로 추정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에 사문진교가 완공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기존의 식당가가 철거되는 등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2013년 '주막촌 복원' 등 도심형 수변 공원 조성 계획을 통해 명품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 참조 : [달성군시설관리공단(www.dssiseol.or.kr)]

한국 최초 피아노

5 근대

대구근대역사관 전경

대구는 경상도 감영 소재지로서 **영남 지방의 중추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해 오다가, 1895년 지방제도의 개혁으로 8도에서 23부로 개편됨에 따라 대구관찰부가 설치되었고, 예하 23개 군을 관할하였다. 이듬해 전국을 13도로 개편하면서 대구부는 대구군으로 개칭되는데, 부청 소재지로서 그 관할구역과 지위에는 변화가 없었다.

을사늑약으로 일제의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1906년 그 산하기관인 대구 이사청이 설치되는 등 일제의 국권침탈은 가속화 되었으며 1910년 이사청을 폐지하면서 대구군은 다시 대구부로 바뀌게 되며, 부제는 1945년까지 계속되었고 일본식 동명(洞名)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명치정(明治町):계산동, 대화정(大和町):대안동]

대구부는 1914년 3월 새로운 부제가 실시됨으로써 행적구역은 더욱 축소되었는데 이유는 당시의 빈약한 일본 식민정부의 재정으로는 광역도시를 지탱하기 힘들 기도 하였고, 일본인 중심의 시가지를 마련하여 집중적으로 일본인을 위한 도시 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영역은 옛 대구읍성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대구시 중구 지역에 칠성동을 포함하는 정도로 작아졌다. 일제에 의한 대구의 도시 개발은 1937년에 처음으로 대구부와 인접한 달성군 수성면, 달서면, 성북면의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면서, 도시 공간은 도시 개발로 인해 확대 · 변화되었다. 또한 수탈을 위한 공업단지가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 침산동, 비산동 일대에 최초로 조성되어 현재의 대구 공업지역이 형성되는 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대구 외곽에 위치한 달성군은 일제 강점기에는 대부분 농촌 지역으로 형성되었으며, 일부 중심지의 일본인 거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근대 도시로의 진행은 미미하였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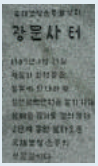
1907년 1월 30일 경북도내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문사**에서 특별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후 **서상돈**이 "우리나라의 국채가 현재 1,300만 원인데 정부의 국고금으로는 갚을 수 없는 형편이니 우리 국민의 힘으로 나라의 빚을 갚자" 고 제안했다. 서상돈이 건의서를 낭독하자 참석한 회원들이 동조했고 즉시 모금 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하면서 각도에 이 취지를 알려 전국적인 모금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그 후 시민회관 자리에서 모금운동을 결의하는 **국채보상운동** 국민대회를 개최했는데 대구 군민들의 금연 운동을 필두로 대구 여성들도 가락지 비녀 등을 가져와 동참하였다.

□ 대구광문사

▷ 소재지 : 대구시 중구 달성로 22길 30(수창초등학교 후문)

▷ 특징 : 1906년 설립된 계몽 운동 단체로서 교육 운동과 경제 운동을 전개하고, 국채 보상 운동을 발기하여 전국적인 경제적 민족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구 광문사에는 거대 상인, 지주층, 전직 관료, 개명 유교



지식층 등 지역의 공망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대구 광문사의 사장에는 김광제, 부사장에는 서상돈이 맡았고, 그 회원으로 400~500명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구 광문사 문회는 일본 동아 동문회, 청나라 광학회와 국제적으로 연계하여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동시에 교육 진흥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 참조 : [대구시 중구청(www.jung.daegu.kr)]

이 운동이 알려지자 당시 일제의 침탈을 피부로 느끼고 있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어갔다. 그러나 명분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수급관리소가 여러 곳에 세워짐에 따라 운동 자체가 점차 통일성을 갖기 어려웠고 운동을 이끌어 가기에도 제약이 따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운동에 대한 온갖 비방과 훼방 그리고 탄압이 곳곳에서 일어나 국채보상운동은 결국 그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하지만 국채보상운동이 당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전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전개된 최초의 국민경제운동으로 이후 일제하의 물산장려운동, 해방 후의 국산품애용 운동, 최근 IMF사태 이후 금모으기 운동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이른바 경제 살리기 운동의 서막을 열었으며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감동적인 국민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대구시에서는 1998년 공평네거리 옛 대구여고 터에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이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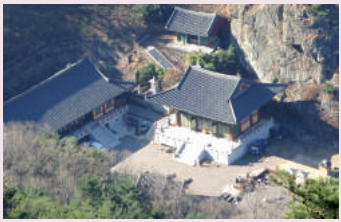
1910년 일제는 조선을 강제로 병합했다. 일제의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기 보다는 일제에 저항하며 민족의 해방을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선 대구 사람들이 있었다.

일제는 일찍부터 대구를 조선 침략의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침략의 마수가 다른 지역보다 일찍 뻗쳐 있었고, 그들의 영향력 또한 심각했다. 이에 대구의 민족적 인사는 **일제 침략에 저항하는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으며, 그 열기는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대구에서 서상일, 이시영, 정운일 등이 중심이 되어 한말 계몽운동을 계승한 교육 · 문화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그들은 한말 계몽운동의 성격을 계승하고 독립운동 자금과 해외 독립운동 세력과의 연계를 통한 국권회복 달성을 목표로 1915년 2월 28일 안일사에서 비밀결사단체인 **조선국권회복단 중앙총부**를 결성했

다. 그리고 1915년 8월에는 **박상진, 정운일** 등의 조선국권회복단 단원이 달성공원에서 **풍기광복단**이 1913년 채기중 등 결성과 연계하여 **대한광복회**로 조직을 확대하고 무장투쟁을 통해 민족의 독립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전환을 맞기도 했다. 그들은 대구 · 경북지역에서 독립운동자금 마련과 반민족적 친일부호 처단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대한광복회 단원인 정운일 등이 대구의 지주 서우순을 찾아가 독립운동자금을 요구하며 권총으로 위협하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체포된 대구 권총사건이 일어났고, 칠곡의 부호 장승원이 사전에 독립운동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막상 광복회 회원이 찾아가자 이를 거부하여 그를 권총으로 죽인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박상진을 비롯한 대한광복회 회원들이 구속됨으로써 이후 광복회 활동은 지속되지 못했으나 그들의 저항정신만은 계속 이어졌다.

□ 조선국권회복단 중앙총부 - 안일사(安逸寺)

▷ 소재지 : 대구시 남구 대명동 산 225



▷ 특징 : 고려 태조 왕건이 편안하게 있었다고 하여 이름이 지어진 안일사에서 1915년 1월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 시회(詩會)라고 꾸며 조선국권회복단 중앙총부 결성을 위한 회합이 있었다. 중심인물은 달성친목회의 **박상진·홍주일·이영국·김응섭·장석영·서상일** 등으로 당시 각계 지도적 인물이 망라되어 있었다. 단원들은 단군께 제사를 드리고 신명을 바쳐 국권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을 맹세하였으며, 활동자금을 모았다. 박상진은 같은 해 7월 이 조직을 바탕으로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였다.

▷ 참조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편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 시위가 시작되자 **남성정교회**(현 제일교회) 목사 **이만집**을 중심으로 대구지역에서도 만세시위운동을 벌였는데 **1919년 3월 8일 서문시장의 만세 시위**가 그것이다. 당시 만세운동에는 이만집, **김태련** 등 기독교계 인사와 **계성학교 신명여학교 등의 학생들과 교사, 대구시민**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그 후 3월 9일과 10일 달성공원과 덕산정시장, 남문시장 등에서 만세 시위를 하려다가 거듭 실패한 후, 3월 30일에는 동화사 소속 학교인 지방학림의 **불교계 학승**이 주도하여 덕산정시장에서 만세 시위가 이어졌다. 이후에도

대구지역에는 소규모의 만세시위가 계속되어 4월 말까지도 이어졌다. 일제의 잔인한 탄압에 저항하여 전 민족이 들고일어나 투쟁했던 3·1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어졌지만, 통일된 지도자와 올바른 투쟁 방법도 없이 산발적이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 3·1만세운동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234

▷ 특징 : 1919년 서울에서 일어난 3·1운동이 3월 8일 오후 대구에서도 일어났다. 제일교회 신관 왼편의 3·1운동 계단에서부터 동산박물관을 지나 이어진 길이다. 3·1운동 당시 대구의 학생들이 일본경찰을 피해 몰래 만세장소로 이동한 곳이다. 계성학교, 신명학교, 대구고보, 성서학당 등에 재학 중이던 각 학교 학생들이 이곳을 지나 3·1운동 집결지로 이동했다.

▷ 참조 : [대구시 중구청(www.jung.daegu.kr)]

3·1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소위 문화정치로 조선에 대한 지배 방식을 바꾸었는데, 부르주아지 세력은 점차 개량화, 친일화 되어간 반면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기층 민중은 스스로 조직적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민족해방운동의 주체로 성장해 갔다. 독립 청원 군자금모집, 무관학교 생도모집, 암살, 음모, 폭탄테러 등을 전개한 비밀결사운동이 이어졌고, 3·1만세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동맹휴교와 비밀조직을 통한 항일투쟁도 계속되었다. 만주의 민족해방운동을 국내에서 지원하기 위해 대구에서 1928년 조직한 비밀결사조직인ㄱ당사건등이 있으며, 1919년 **김원봉**에 의해 조직된 **조선의열단**에는 특히 대구 · 경북출신 인사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였으며, 1927년 의열단원 **장진홍**에 의해 대구에서 거행된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으로 **이육사** 등이 옥고를 치루었고, 달성공원 '향토역사관'에는 장진홍이 사형되기 전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아직도 남아 있다.

그 외에도 대구지역 학생들이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일제에 격렬히 저항했는데 대구사범학교의 **'주먹대'**와 **'다혁당'**, 대구상업학교의 **태극단(T.K.D)** 등의 비밀결사운동이 유명하다. 또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이상화**, '광야'의 **이육사**등 **민족 저항시인**의 활약도 있었고, 달성군 소작쟁의 대구정미소의 운수노동자파업 등을 전개한 일제하의 **대구지역의 노농운동**, 신간회 대구지회활동 등 당시 대구지역에는 일제의 지배하에 순응하기보다는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노력한 수많은 항일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 진골목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132

▷ 특징 : 여성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진골목은 '길다'의 경상도 사투리 '질다'에서 기원하였다. 조선시대 때부터 존재한 진골목은 그 시절 내로라하는 대구의 유지들이 많이 살았다. 특히 대구 토박이 달성 서씨 부자 서병국과 그의 형제들이 모여 살았던 곳으로 유명하다. 그 뿐만 아니라 코오롱 창업자 이원만, 정치인 신도환, 금복주 창업자 김홍식도 이 골목에 살았다. 부자들이 하나 둘 떠나면서 저택들은 화교협회와 정소아과의원, 식당 등으로 남아 있다. 지금 현재 이 골목의 길이는 100미터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골목이 여전히 진골목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건 이 골목이 담고 있는 시간들이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느끼며 걷는다면 절대 금방 걸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참조 : [대구시 중구청(www.jung.daegu.kr)]

대구지역의 항일활동의 흔적은 3·1운동 만세길을 비롯하여 여성국채보상운동을 시작한 진골목기념비,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인 광문사터, 대구시민만세운동기념비 서상돈과 이상화고택, 대구사범학교 학생항일의거비, 신암선열공원 등의 유산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 서상돈 고택

▷ 소재지 : 대구시 중구 계산동2가 83-1

▷ 특징 : 국채보상운동을 통해 국권 회복을 꿈꿨던 민족 운동가이며 구한말 시대의 장사꾼으로, 청렴한 선비로, 교육가로 산 서상돈 선생이 머물렀던 고택을 복원한 곳이다. 만석꾼이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소박한 집으로 서상돈의 청빈한 삶을 짐작할 수 있다. 1850년 김천에서 태어난 선생은 17살 때부터 보부상을 하기 시작해 큰돈을 벌었고 대지주가 되었다. 선생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부를 많이 썼다고 한다. 또한 선생은 국채보상운동을 제의하고 시작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선생은 구한말부터 63세의 일기로 별세할 때까지 민족을 생각하며 민족을 위해 일했던 진정한 민족운동가였다.

▷ 참조 : [대구시 중구청(www.jung.daegu.kr)]

□ 이상화 고택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2가 84

▷ 특징 : 항일시인 이상화 선생이 1939년부터 1943년에 사망할 때까지 살았던 집이다. 상화는 건강악화로 사망하기 직전까지 예술혼을 불태우며 작품활동을 했지만 상화의 시가 조선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한 일제 순사가 상화의 원고를 모두 압수해 갔다. 그런 이유로 상화는 생전에 시집 하나 발간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시인으로 남게 되었다. 1943년 상화는 빼앗긴 들에 봄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최근 개발로 허물어질 뻔했지만 시민들의 도움으로 철거를 면하고 상화와 그의 문학을 기념하는 장소로 남게 되었다. 고택 안에는 상화의 작품세계와 생애가 정리되어 있어 상화와 상화의 문학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상화선생은 떠났지만 그의 시와 함께 고택 곳곳에 선생의 흔적과 역사가 남아있다.

▷ 참조 : [대구시 중구청(www.jung.daegu.kr)]

□ 신암선열공원

▷ 소재지 : 대구시 동구 신암동 산 27-1

▷ 특징 : 신암선열공원은 대구시 남구 시립공동묘지 일대에 흩어져 있던 애국지사 묘 7기를 1955년 현재 위치로 이전한 것이 시초다. 대구시가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묘역 성역화에 나서 이듬해 3만7천800여㎡ 터에 위패를 모신 단충사, 관리실 등 3개 건물로 공원을 만들어 준공했다. 건국훈장 독립장(1명), 애국장(12명), 애족장(33명), 대통령표창(2명)을 받은 독립유공자와 서훈 미취득자 4명 등 대구·경북에서 태어났거나 주소를 뒀던 독립유공자 52명이 묻혀 있다. 이들은 3·1만세 운동, 광복군·의병활동, 일본·만주를 포함한 국내외 항일운동 등에 참여했다.

▷ 참조 : [국립신암선열공원(http://sinam.mpva.go.kr)]

□ 조양회관

▷ 소재지 : 대구시 동구 효목동 1214

▷ 특징 : 조양회관(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4호)은 1922년 10월 30일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3·1운동 이후 문화정책으로 전환되자 대동청년단을 조직하여 무장 항일 투쟁에 앞장서 오던 서상일 등 당시 민족지도자들이 민중을 깨우치고 민족혼을 불어넣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염원으로 당시 달성공원 앞에 서구식 건물을 세웠다. 건축 자재는 백두산에서 가져온 낙엽송과 붉은 벽돌로, 착공 7개월 만에 완공된 이 회관에는 당시 대구구락부, 대구여자청년회, 대구운동협회, 농촌봉사단체 등이 입주하여 민족계몽운동의 진원지 역할을 해 왔었다. 조양회관은 명칭도 은연 중에 광복의 염원을 내포하고 있는데 아침 해를 향해 희망을 찾는 배달민족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관건립 7년 만에 이곳이 영남지역 항일운동의 본거지로 지목되면서 우국지사들이 일경에 체포되고 조선 총독부에 징발되어 대구시립 도서관으로 사용되었고, 1940년부터는 광복 때까지 일본군 보급부대가 주둔하는 등 민족의 수난사와 운명을 함께 해 왔다. 1983년에 효목1동 망우당공원 내에 이전하여 복원하였고 1987년부터는 광복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 참조 :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http://cafe.daum.net/indepedent)]

■ 참고문헌

- 대구시사편찬위원회『대구시사』, 대구광역시, 1995.
- 주보돈「신라국가 형성기 대구사회의 동향」『한국고대사논총』8, 1996.
- 이희준「대구지역 고대 정치체의 형성과 변천」『영,남고고학』26, 2000.
- 대구국립박물관『대구 오천년』, 통천문화사, 2001.
- 대구광역시『대구향토사연구』, 2004.
- 대구·경북역사연구회편『역사 속의 대구, 대구사람들』, 중심, 2001.
- 향토사연구회편『새로 쓴 대구 역사기행1』, 영한, 2002.
- 대구·경북연구원『진짜 대구를 말해줘』, 홍익포럼,2006.
- 대구역사교사모임『선생님이 들려주는 근현대 대구이야기』, 영한, 2010.
- 대구MBC 창사35주년 특별 다큐멘터리『대구 대구인』, 1998.
- 경북대학교 사학과 역사 교재

※본문 집필 : 손흥호(대구교동초등, 경북대 사학과 박사수료) ♧

제4장

대구의 인물을 찾아서

제4장 대구의 인물을 찾아서

1 삼국 ~ 조선시대 (출생순)

일연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1206년(희종2) ~ 1289년(충렬왕15)]은 고려 후기의 승려로 경상북도 경산 출신이다.

22세에 과거시험의 승과에 나가 합격한 일연은 이후 몽골 전란기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경상도 달성의 비슬산**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1277년(충렬왕3)부터 1281년까지 청도 운문사에서 기거하면서 선풍(禪風)을 크게 일으켰다. 이 때 『삼국유사』를 집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1282년 충렬왕에게 선(禪)을 설하고 국존(國尊)으로 책봉되어 원경충조(圓經冲照)라는 호를 받았다. 1289년 손으로 금강인을 맺고 입적하였다.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는 보물 제428호로 지정되었다. [경상북도 군위군청(http://www.gunwi.go.kr/fun/samguk) 참조]

서거정 (조선 전기 대표 문신)

서거정[1420(세종2) ~ 1488(성종19)]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본관은 대구이며 호는 사가정(四佳亭)이다.

학문이 매우 넓어 천문 · 지리 · 의약 · 복서 · 성명 · 풍수에까지 관통하였으며, 문장에 일가를 이루고, 특히 시(詩)에 능하였다.

서거정의 한문학에 대한 입장은『동문선』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 한문학의 독자성을 내세우면서 우리나라 역대 한문학의 정수를 모은『동문선』을 편찬했는데, 서거정의 한문학 자체가 그러한 입장에서 형성되어 자기 개성을 뚜렷이 가졌던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의 서문에서는 우리나라가 단군(檀君)이 조국(肇國: 처음 나라를 세움)하고, 기자(箕子)가 수봉(受封: 봉토를 받음)한 이래로 삼국 · 고려시대에 넓은 강역을 차지했음을 자랑하고 있다. 대구의 구암서원에 배향되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사가정역은 그의 호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서거정이 당시 대구 풍경을 노래한「달성 십경」이 전해온다.

【영남선비문화수련원(http://www.sunbicamp.co.kr) 참조】

김굉필 (조선 전기 성리학자)

한훤고택과 소학세향

김굉필[1454(단종 2)~1504 (연산군 10)]은 조선 전기의 문신·학자이며, 호는 한훤당이다. 주로 영남 지방의 현풍, 합천, 성주 등지를 내왕하면서 선비들과 사귀고 학문을 닦았다. 이 때 김종직의 문하에 들어갔는데, 이를 계기로『소학』에 심취해 스스로를 '소학동자'라 일컬었다.

이황은 김굉필을 두고 '동방도학지종(東方道學之宗)'이라고 불렀다. 학문적으로는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유학사의 정통을 계승하였다.

1494년 남부참봉에 제수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무오 당인이라는 죄목으로 극형에 처해졌다. 중종반정 뒤 연산군 때에 피화한 인물들의 신원이 이루어면서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아산의 인산서원, 서흥의 화곡서원, 희천의 상현서원, 순천의 옥천서원, 현풍의 도동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경현록(景賢錄)』·『한훤당집(寒暄堂集)』·『가범(家範)』등이 있다.

【한훤당종가(https://bysoga.modoo.at) 참조】

곽재우 (영남의 대표 의병장)

곽재우[1552(명종7)~1617(광해군9)]는 조선 중기의 의병장으로 호는 망우당이며 경상남도 의령 출신이다.

1592년 4월 14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관군이 대패하자, 고향인 경남 의령에서 스스로 의병을 조직한 다음 붉은 비단으로 된 갑옷을 입고 활동하여 천강홍의장군(天降紅衣將軍)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처음 10여 명으로 출발한 그의 의병은 2천 명 정도로 유지되었다. 의령을 거점으로 현풍·창녕·진주 등 낙동강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중요한 전공을

세웠는데, 왜군의 호남 진출을 막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묘지는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신당리에 있다.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망우공원은 임진왜란 때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키며 큰 전공을 세운 곽재우 장군의 호로 공원명을 지었고 공원 내에는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망우당 기념관을 지어 장군의 유품(보물 제671호)을 보관해 두고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http://www.dong.daegu.kr) 참조]

이서 (조선 후기 대구신천 설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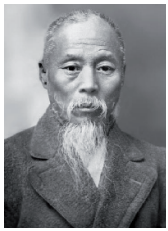
이서(李溆:1732~1794)는 1776년 **대구판관**으로 부임하여 주민의 피해를 염려해 정조2년(1778년) 주민들의 부담이 없이 사재를 털어 10여리에 걸쳐 제방을 축조하여 홍수의 피해를 막았다. 이에 주민들은 이판관이 쌓은 제방을 중국 송나라의 명학이던 소식이 항주자사로 있을 때 축조한 제방을 "소공제"라고 명명한 것을 본떠서 "이공제(李公堤)"라 칭하였다. 1797년(정조 21)에 이공제비를 세우고 매년 1월 14일에 향사를 올렸다. '**이서공원**(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17)'은 **신천의 물줄기**를 바꾼 이서공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 신천동로변에 조성된 공원이다. [대구시 수성구청(http://www.suseong.kr/tour) 참조]

이공제비 및 군수이후범선영세불망비

2 근대

1) 민족·독립 운동가 (출생순)

서상돈 (국채보상운동의 주창자)



- 1859년 대구 정착
- 1871년 독학을 하면서 행상과 포목상 시작
- 1886년 재벌로 부상, 정부 세금 관리
- 1907년 국채보상운동 주창
- 1998년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조성

서상돈(1851 ~ 1913)은 **대구 출신**으로 민족운동가 · 기업인 · 공무원이었으며, 세례명은 아우구시티노이다. 증조부 때부터 천주교 가문이 되었고,

1801년(순조1) 신유박해 때 강원도와 충청도로, 1839년(헌종5) 기해교난 때는 경상북도 문경 · 상주 등지로 피난, 1859년(철종10) 대구에 정착하였다.

1866년(고종3) 병인교난 때는 신앙문제로 문중에서 쫓겨나고 가산도 탕진해 버렸다. 1871년 대구로 돌아온 뒤 독학을 하면서 지물 행상 및 포목상을 시작하면서 1886년경에는 상당한 재벌로 부상했으며, 정부의 검세관이 되어 정부의 조세곡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그 뒤 대구교구가 설립되자 이의 발전에 힘쓰면서 성직자 돕기와 수녀 보호에 솔선수범하였다.

외세의 국권침탈에 맞서 수호에 앞장선 독립협회의 주요 회원으로 활약했으며, 독립협회 제4기 민중투쟁기에는 재무부과장 및 부장급의 일원으로 활약하였다.

1907년 2월 16일 **대구 광문사**에서 그 명칭을 대동광문회로 개칭하기 위한 특별회를 마친 뒤, 광문사 부사장으로서 담배를 끊어 당시의 국채 1300만환을 보상할 것을 제의하였다.

서상돈 고택

그 내용을 담은 국채보상취지서를 작성하고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2000만 국민이 3개월 동안 흡연을 하지 않고 20전씩 거둔다면 1300만환을 모을 수 있고, 나머지는 특별모금을 한다는 것이다.

대구광문사 사장 김광제 등과 함께 전개한 국채보상운동은『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제국신문』등을 비롯한 민족 언론기관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에 불안을 느낀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때 모인 자금은 그 뒤에 전개된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쓰였다. 1998년 대구에서는 항일독립운동의 하나인 국채보상운동의 구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중구 동인동에 조성**하였다. 이곳에는 이육사 · 박목월 · 조지훈 · 이호우 · 윤동주의 시비와 이언적 · 김굉필 · 서거정 · 이황 · 정몽주 · 서상일 · 서상돈 · 이상화의 명언비가 있는 오솔길이 있다. [대구시 중구청 (www.jung.daegu.kr) 참조]

김광제 (국채보상운동의 주역)

- 1907년 국채보상운동 제의
- 1910년 대한협회에서 활동
- 1920년 동경유학생들과 제2독립선언서 작성과 배포
- 1920년대 마산구락부 문예활동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

김광제(1866~1920)는 민족운동가로서 충청남도 보령 출신이다. 1907년 **대구에서 출판사인 광문사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부사장 서상돈과 함께 「국채일천삼백만환보상취지서(國債一千三百萬圜報償趣旨書)」라는 격문을 전국에 발송하여 국채보상운동을 제의하였다.

그 요지는 대한국민 2000만명이 담배를 끊어 1개월간 담배값 20전씩을 3개월 저축하면 1,300환이 되므로 전국민이 3개월간 단연(斷煙)하여 그 돈으로 이완용 내각이 일본으로부터 차관한 1300만환을 갚아서 경제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었다. 이 운동은 민족 언론기관들의 적극적 호응을 얻은 결과 전국적 운동으로 발전하여 한말국권회복운동 가운데 중요한 운동의 하나가 되었다.

1910년 국권피탈 직후까지 대한협회에서 활동하였으며, 1910년대 마산구락부에서 활발한 문예활동을 펼쳤다. 1920년 3·1운동 1주년을 맞이하여 동경유학생들과 제2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국내외에 배포하고 제2의 3·1운동을 일으키려다 일본경찰에 잡혔다. 1982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일식 가족 (3대(代) 독립운동가)

김진만(1876~1933)

- 1916년 '대구권총사건'
- 1921년 '폭탄범'사건
- 1926년 김영우의 사회운동단체연합장
- 1928년 대구학생비밀결사 사건
- 1931년 적색학생비밀결사 사건

개항 이래 근대화의 시도, 국권회복, 민족독립과 해방, 국가

건설 등으로 이어져온 것이 우리 근현대사의 특성이다. 이런 우리 역사의 특성에 3대를 바친 가족이 있다. 그 주인공은 김진만 형제, 김영우 형제, 김일식 형제로 이어지는 **대구 남산동 출신의 3대 가족**이다. 그들은 1910년대에서 해방 후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국권회복운동과 민족독립운동 그리고 국가건설운동을 전개한 활동가들이었다. 김진만 · 김진우 형제는 1910년대 무력독립운동을 추구하였고, 김영우 형제는 3 · 1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국내외를 연계한 항일운동에서 사회운동으로 전환하였으며, 김일식 형제들은 1920년대 이후부터 해방 후에 이르기까지 학생운동, 반제운동, 해방 후 국가건설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한 집안이 3세대에 걸쳐 근대 변혁운동을 벌인 사례는 흔치 않는 경우이며, 김일식과 그의 가족들이 겪은 감옥생활이 언도 기준으로 무려 27년 6개월 정도에 이를 정도로 장기적이었다. 그야말로 우리의 근대변혁운동에 표본이 될 수 있는 집안이었다.

김일식의 조부 김진만(金鎭萬, 호 긍석, 1876.8.24.~1933.11.20.)은 대구 남산동에서 분성(盆成) 김씨 재양(金在穰)과 전주 이씨 춘옥(李春玉)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서우순(달성 서씨) 딸과 결혼하여 4남 6녀 등 10명의 자식을 두었다. 김진우(1881~?)는 차남으로 태어났고, 손춘이(孫香伊, 밀양 손씨)와 결혼하여 옥이(玉伊), 소달(少達), 영조(永조), 영수(永守) 등 네 명의 자식을 두었다. 김진만은 대구지역의 유명 예술가인 석재 서병오(石齋 徐丙五)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시서화가였다.

김진만과 김진우의 국권회복운동은 달성친목회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의 이름이 세상에 떨치게 된 계기는 1916년 독립운동자금 모집 사건, 이른바 '**대구권총사건**'을 통해서였으며, 그들은 얼마 후 일제 경찰에 의해 모두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애국단사건', '대구권총사건'으로 알려졌다. 1917년 8월 대구복심법원에서 김진우는 징역 12년, 김진만은 징역 10년을 언도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대구 부호들의 협조 거부로 실패하였고, 그 대가가 수감생활로 옥고를 치렀다. 이처럼 1910년대 대구 독립운동자금 사건을 김진만, 김진우 형제들이 주도하였던 것이다.

김영우(金永祐, 1895.4.15.~1926.4.16.)는 김진만과 서복 사이에서 4남 6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는 이귀갑(李貴甲)과 결혼하여, 일식(一植)과 이식(二植) 등 두 아들을 두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약종상으로 일하면서, '대구권총사

건'으로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아버지 형제들의 옥살이를 뒷바라지하였다.

그는 3·1운동 뒤인 1920년 음력 12월 무렵 상해임시정부 군사부 참사(參事) 황일청(黃一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중국 봉천으로 갔다.

그는 1921년 4월 25일 파고다공원 인근의 민갑식 집에서 김현수로부터 일제의 주요 시설을 폭파할 용도로 다이나마이트 7개, 뇌관 8개, 화선 11개 등을 전달받았다.

김영우(1895~1926)

서울에 머물며 구체적 활동을 모색하던 중 김영우는 1921년 6월 29일 경북경찰부의 고등경찰과 형사에게 체포되어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같은 해 7월 9일 대구지방법원 재판에서 제령 제7호 위반 및 총포 취체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그 뒤 열린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언도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되는 옥고를 겪었다. 이 사건은 '폭탄범'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1924년 만기 출옥을 한 김영우는 1925년 봄에 사상단체 정오회에 가입하였다. 수감생활 이후 무력적 독립운동에서 사회주의운동으로 운동 방향을 전환하였던 것이다. 1926년에는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노농운동단체이자 사회운동단체인 대구노동공제회에 가입하여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그해 늑막염에 걸렸고, 늑막염은 감옥생활로 인해 건강을 해친 몸을 더욱 악화시켰다. 4개월 동안 삼광의원(三光醫院)과 제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1926년 7월 16일에 3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는 같은 해 7월 21일 대구지역 최초의 사회운동단체연합장으로 진행되었다. 그의 영결식은 대구노동공제회 한규석(韓圭錫)의 식사로 덕산장 관덕정에서 거행되었다. 그는 황청동(오늘날 수성구 황금동) 뒷산에 안장되었다. 김영우의 동생 김영○도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만주 하얼빈에서 사망하였다.

김일식(金一植, 1912.10.3.~1953)은 1911년 대구의 남산동에서 김영우와 이귀갑의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형제와 아버지 형제의 항일독립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대구고보에 입학할 즈음 1926년에 6·10만세운동 이후 학생운동의 양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 변화는 학교 내 사회주의사상에 영향을 받은 독서회 등 교내 비밀결사가 생기면서 학생운동이 자치운동에서 정치운동으로 변모하였던 것이다. 그는 1928년 신학기 초에 대구고보 일본인 교사의 이순신 폄하 사건을 계기로 **대구고보폭압정책에 반대하는 동맹휴학**을 벌이다 정소수 · 김성칠 · 황보선 등과 함께 퇴학당했다.

1930년대 들어 김일식은 대구지역의 학생운동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성장하였다. 사회과학연구회를 조직해 활동하였으며, 사회과학연구회는 혁명적 대중운동의 조직원리가 학생층에 적용된 일종의 '혁명적 대중조직'으로서 좌익적 성격이 강한 조직이었다.

김일식은 이 운동으로 인해 1932년 일제 당국에 검거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이처럼 김일식은 사회과학연구의 핵심인물로 성장한 뒤 1930년대 대구지역 사회운동의 대표적 인사로 거듭 났다. 곧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를 이어 3대째에 걸쳐 민족운동을 전개하게 됨으로써 항일투쟁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해방후에 그의 행적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다. 그리하여 그의 유족들은 6 · 25전쟁 이후 1953년에 사망한 것으로 제적신고를 하였다.

■ 참고문헌

- 김일수, 『인물로 보는 근대 대구의 역사와 문화-인물로 본 대구정체성』, 대구역사문화연구소, 2017.

송두환 (신간회대구지회 집행위원장)

- 1912년 산직장려계 조직
- 1914년 새배달모듬 조직
- 1920년 독립운동자금 모집 중 가이순사살해사건 연루
- 1923년 최윤동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연루
- 1929년 신간회대구지회 집행위원장

송두환 기념비
(앞산공원)

송두환(宋斗煥;1884.12.27.~1969.5.28.)은 경상북도 **달성군** 수성면(壽城面) 신암동에서 예산송씨 송주석(宋柱錫)과 장수황씨(長水黃氏) 사이에 외아들로 태어났다. 호는 심연이라 하였다. 그는 여섯 살 때부터 한학을 배웠다.

그는 17세 때 부모의 권유로 두 살 위인 광산 김씨와 결혼하였다. 슬하에 안제(安濟), 안건(安建), 안립(安立), 안관(安寬) 등 4형제를 두었다. 이 가운데 장남 안제는 대구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 천장절 때 식장에서 일본 국기를 보고 웃었는데, 이것이 일장기를 모욕한 것이라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는 1914년 **신암동 뒤 반월산**에서 지역 출신 정운해 · 최윤동(崔胤東) · 최혁(崔赫) · 엄주동(嚴柱東) 등의 청년들과 비밀리에 새배달모듬(新倍達會)을 조직하였다. 이 조직의 목적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고, 민족 사상을 고취하여 단결된 민족의 힘을 통하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그는 1915년 보성학교를 졸업하고 경산 하양에서 미곡상점을 차렸다. 미곡상점은 독립운동의 통로로도 활용되었다. 1916년 9월에는 만주와 시베리아로 떠났다. 1919년 5월에는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 연락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대구와 신의주에 거점을 확보하였다. 1920년 5월에는 경북 달성에서 빈민회(貧民會)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았으며, 수성면장 서재문(徐載文)의 협조로 농민 회원을 규합하여 국산품 장려와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 힘썼다.

3 · 1운동 직후 달성군 수성면의 송두환은 독립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던 중 일본 순사 가이를 사망케 하는 사건에 연루되었다. 1919년 9월에 무기 구입과 독립운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정부에 가입한 후 삼남(三南) 지방을 중심으로 군자금 모집의 사명을 띠고 입국하였다. 그리하여 만주에서 권총을 구입하고 사형집행장을 전달받아 군자금 모집 활동을 폈으며, 1920년 12월 김종철(金鍾喆), 김봉규(金鳳奎)에게 권총과 사형집행장을 교부하여 이들로 하여금 경남 합천(陜川)과 의령(宜寧) 등지에서 군자금을 수합하게 하였다. 이에 같은 해 12월 8일 김종철(金鍾喆)과 김봉규(金鳳圭) 등이 경남 의령군 유곡면 칠곡리(漆谷里) 남정구(南廷九) 집에서 독립 군자금을 마련하던 중 일제 관헌에 체포되었다. 체포되어 주재소로 이동 중 김종철이 순사 가이를 총을 쏴 사망케 하고 탈출하였다. 이른바 일본 경찰 가이 순사 살해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 일제 관헌은 이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연인원 5백 명의 인력을 동원했으나 범인 검거에는 실패하였다.

3년 뒤인 1923년 11월 3일 최윤동과 이수영이 경북 군위군 부계면에 사는 홍정수(洪禎修)에게 군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이어 관련자들이 체포

되면서 가이 순사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곧 가이 순사 사망 때 체포되어 가던 사람이 김종철과 김봉규임이 드러났고, 또 이들에게 무기를 주고 군자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한 배후 인물이 송두환인 것으로 밝혀졌던 것이다.

송두환은 1927년 무렵 좌우익 세력이 민족통일협동전선으로 결성한 신간회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는 1927년 9월 3일 **신간회 대구지회의 설립대회**가 개최될 때 서무부 총무간사로 선정되어 활동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신간회대구지회 화포분회 설립에 관여하였다. 같은 해 12월 9일 신간회대구지회 화포분회 설립을 위한 발회식이 열렸다.

송두환은 한일병합 이후부터 국내외에서 무장 독립운동 노선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며, 가이순사살해사건, 최윤동의 독립운동자금 모집 사건 등에 연루되어 옥고를 겪었다. 1927년 신간회운동이 전개되자 신간회대구지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집행위원장이 되어 대구지역 민족통일전선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4 · 19 혁명 시기에는 이승만을 통렬히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민주운동에 힘을 보탰다. 1969년 사망한 뒤 신암선열공원에 안장되었다.

■ 참고문헌

- 김일수, 『인물로 보는 근대 대구의 역사와 문화-인물로 본 대구정체성』, 대구역사문화연구소, 2017.

김홍조 (약령시의 거상)

- 1892년 대구 거주, 인삼장사
- 1923년 대구약령시 이전 반대
- 1940년 선한약재수출입통제조합 및 조선생약수출입통제조합 이사
- 1941년 주식회사 김홍조한약방 설립
- 해방 후 약령시개시준비위원장

김홍조(金弘祚, 출생 · 사망 미상)는 한국 근대시기 **대구약령시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대구는 근대시기 상업중심지로 성장하였으며, 대표적 상업은 미곡과 한약재라 할 수 있고, 약재 시장은 오늘날에도 대구의 명물로 손꼽히고 있다. 약령시가 열렸던 곳인 남성로(南城路) 일대에는 지금도 약전골목이 자리하고 있어 일제시기 중국, 만주, 일본을 비롯한 국내 약재상들로 넘쳐났을 옛 대구약령시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근대 시기 대구약령시는 대구의 대표적 명물로서 거래액만 백만 원에 이를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는데, 그 중의 10분의 1정도인 10만 원이라는 큰 규모로 거래한 이가 김홍조였으며, 이런 점에서 그는 바로 대구약령시를 대표하는 약종상이자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인물이었다.

1930년대 약전골목의 한약재 거래 모습

약령시가 개설된 시기는 인조 연간에서 효종 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체로 1640년부터 1658년에 걸치는 시기로서 17세기 중반이었다.

약령시는 약재의 집산지였던 경상도 대구를 비롯하여 강원도 원주, 전라도 전주에서 먼저 열렸다. 약령시는 일반 시장과는 달리 봄, 가을 등 일 년에 두 차례에 걸쳐 계절적으로 열렸다. 대구약령시의 경우 봄 시장은 음력 2월 3일에서 13일까지, 가을 시장은 음력 10월 3일에서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보통 10일간 열렸다.

대구약령시장의 모습

장이 열리면 조선 정부에서 파견한 심약이 내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대외적 수요에 따라 약재를 품목과 수요량대로 다 사들인 다음에 개인들의 매매가 진행되었다. 관의 매상이 끝나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약초 재배자, 채취자 그리고 상인과 의생, 일반 수요자 사이에 본격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

대구약령시가 개설된 장소는 당시 **경상감영의 객사**(客舍, 당시 감영의 서북쪽에 위치했으며, 현재는 대안동 경북인쇄소 부근) 일대였다. 경상감영의 객사는 흔히 달성관(達城館)으로도 불렸고, 조선 역대왕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 종묘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상감영을 방문한 조정 관리들의 숙박 편의 시설로 이용된 곳이다. 객사의 경내는 1천여 평이 넘는 넓은 공지가 있었고, 여기에서 약령시가 열렸다. 대구에는 예로부터 한약객주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대구의 한약객주가 다루는 약재의 내용은 1백여 종으로서 판매처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 일본 · 만주 · 러시아 등이었다.

일제는 일본군 대구 수비대의 1개 대대를 출동시켜 객사를 포위하고 군중을 강제로 몰아내 파괴 작업을 강행하였으며, 일본인들은 객사 주변의 땅을 매입하여

도로를 만들었다. 이에 약령시는 더 이상 객사에서 열릴 수 없었고, 남문의 성벽 거리로 이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곳이 남성로 일대이며 지금의 약전골목이다.

김홍조는 개성 출신으로서 1892년 무렵 대구로 들어왔다. 사람들은 그가 개성 출신이라 송상[(松商), 개성상인]이라 알고 있다. 그는 점포를 얻을 만 한 돈이 없어 행상을 할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구약령시를 대표하는 약종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가 갑작스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개성출신으로 상술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장사의 밑천으로 삼은 '신용' 덕분이었다고 한다. 대구 상업계에서 일정 정도의 신용을 얻은 그는 대구의 부자들로부터 장사에 필요한 자본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었고, 큰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무려 20여 년간 행상을 한 끝에 1915년 무렵 드디어 자신의 약종상을 개업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약종상을 개업할 때에는 개업에 필요한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약종상을 개업한 이래 10여년 만에 10만 원 규모의 대상인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김홍조한약방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당재(唐材)를 많이 취급하였다. 그는 그 가운데서도 녹용에 대한 탁월한 전문가였다. 녹용 감별력이 탁월했던 그였으므로 그가 감정한 녹용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높았을 뿐 아니라 가격도 거의 그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고 한다. 그가 한 해에 취급했던 녹용만 하더라도 2백 근 정도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당시의 시가로 하면 7만 원 정도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해방 후 김홍조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구약령시를 부흥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약령시개시준비위원장**을 맡아 대구약령시의 옛 영화를 다시 한 번 부흥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1947년 11월 자신의 약방과 붙어 있던 대남약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의 한약방과 창고의 절반이 불길에 타버렸다. 당시 약재가격이 대구에서 형성될 정도로 대구약령시는 실재로 한약의 유통과 신뢰에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그리고 전국에서 생산된 약재들이 대구약령시를 거쳐 전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은 물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까지 갈 정도였다. 이렇듯 대구약령시는 당대의 명물이었다. 그런 대구약령시를 지배

약령시의 김홍조 건재약방

했던 상인이 바로 김홍조였다. 그러나 김홍조 한약방의 전성시대에는 일제강점기에 한정되었고, 그 맥은 끊어졌다.

■ 참고문헌

- 김일수, 『인물로 보는 근대 대구의 역사와 문화-인물로 본 대구정체성』, 대구역사문화연구소, 2017.

서상일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의 실천자)

- 1909년 국권회복을 위한 대동청년당을 조직함
- 1910년 '9인결사대'를 조직하여 '9공사사건'을 일으킴
- 1913년 광복단을 조직하여 군자금을 모집함
- 1915년 조선국권회복단 중앙총부에서 활동함
- 1919년 대구에서 3 · 1운동에 참가
- 1922년 민족의식 교육을 위해 조양회관을 설립함
- 1948년 제헌국회 국회의원

서상일(1887 ~ 1962)은 **대구 출신**으로 독립운동가 · 정치가이며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호는 동암이다.

1909년 안희제 · 김동삼 · 윤병호 · 남형우 · 박중화 · 배천택 등 80여 명의 동지들과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청년단체로서 대동청년당을 조직하여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다. 1910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병탄하자 '9인결사대'를 조직, 민족의 강경한 반일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서울에 있던 각국 공사에게 돌린 뒤 전원이 할복자살을 계획했던 세칭 '9공사사건'을 일으켰다.

1913년에는 태궁상점을 설립하고, 남문 안에서 곡물 및 숯장사를 시작했다. 장사가 잘 되자, 1918년 봄 윤상태와 서창규의 보증으로 농공은행에서 1만원을 융통하여 확장하였다. 태궁상점은 서상일, 안희제, 남형우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조선국권회복단의 활동거점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구에서 박상진 등과 함께 광복단을 조직하여 군자금 모집사업을 했으며, 1915년 조선국권회복단 중앙총부에서 활동하였다.

1919년 **대구에서 3 · 1운동에 참가**했으며, 1920년 3월 만주에서 무기를 반입해 일제 관서를 습격할 계획을 세우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 투옥되었다.

1921년 8월 미국에서 열리는 태평양회의에 동지들과 함께 독립청원서를 보내고 이 청원서에 대표로 서명하였다.

1922년 대구지역 청년의 민족계몽운동을 위해 **조양회관**(현재 원화여자고등학교 기초)을 세웠다. 1924년 『농림』과 『민중운동』이란 잡지를 발행하고, 흑우회 계통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1945년 광복 후 정당 활동을 하다가 1948년 **제헌국회의 국회의원으로 대구을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헌법기초위원으로 활약했으며, 정치인으로 계속 활동하다가 별세했다.(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인 (항일 변호사)

- 1922년 일본 변호사 시험 합격
- 1923년 의열단 사건 변호
- 1924년 경북 중대사건 변호
- 1927년 조선공산당 사건 변호
- 1930년 수원 고등농림학교 사건 변호

이인은 1896년 10월 26일 **대구 사일동**(현 중구 동성동)에서 부친 이종영(李宗榮)과 모친 연일 정씨 복희(福姬)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경주로 전통적인 유학자 집안이었다. 대대로 경주에 살아오다가 그가 태어나기 60여 년 전 조부대에 달성으로 이주하였다. 그 후 이인이 태어나기 바로 전 해인 1895년에 대구로 나와 살다가, 1920년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했다. 호는 애산(愛山)이며, 일제강점기 항일 민족변호사로 이름을 떨쳤고, 한글과 민족문화의 보급운동에 힘썼다. 과학과 발명을 장려하고 국산품 애용운동에도 앞장을 섰다. 광복 후 1946년 미군정하 검찰총장, 1948년 대한민국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1949년 제헌국회의원, 반민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우리나라의 헌법 기초와 사법계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다.

그가 맡았던 사건이 600여 건에 달하는데, 그 8할이 사상사건이라는 것이다. 일제는 항일민족운동가들을 체포, 고문, 구금하였고, 강력한 사법 권력을 통해 가혹한 형벌을 가하였다. 이때 항일민족운동가의 무료 변론을 도맡아 항일민족운동을 지원했던 변호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식민지 법정에서 재판투쟁 등을 통

하여 조선의 독립을 변호하였다. 항일민족운동가들과 같이 호흡하고 연대하며 전개한 법정변론은 독립운동사건의 파장을 증폭시켜 일제를 당혹케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이른바 '무료변호사', '좌경변호사', '사상변호사' 등으로 불렀다. 넓은 의미에서 요즘말로 하면 인권변호사이다.

이인은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해 도쿄 소재 세이소쿠(正則)중학에 입학했다. 1914년 졸업과 동시에 일본대학 법과 야간부에 입학하였으며 곧바로 메이지(明治)대학 전문부 법과 2학년에 편입하여 두 대학을 다녔다. 바쁜 유학생활 속에서도 이인은 일본의 국수주의 잡지 『일대제국(一大帝國)』에 「조선인의 고정(苦情)을 조야(朝野)에 호소한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였다. 기고문을 통해 일제 총독정치가 착취와 기만으로 우리 민족을 노예화하려는 포악성을 폭로하였다.

그는 1919년 9월 다시 도쿄로 건너가 본격적인 법률공부를 하였다. 2년여를 준비한 끝에 일본변호사시험에 도전했으나 실패하였다. 1922년 일본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고, 1923년 합격증을 받았다. 이인이 법률을 전공한 것은 일제의 압제에 신음하는 조선 동포를 위하고 독립투사의 변호를 전담하는 등 합법적인 항일투쟁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1923년 5월 서울에서 사무실을 내고 변호사 개업을 하였으며, 첫 번째 맡은 사건이 바로 의열단사건이다. 이른바 제2차 의열단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일명 '황옥(黃鈺) 경부(警部) 폭탄사건'이라고도 한다. 2016년 개봉한 영화 '밀정'의 소재가 된 사건이다.

1924년 이인은 '경북(慶北) 중대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최윤동(崔允東)·이수영(李遂榮)·송두환(宋斗煥) 등이 약 5년 동안 **대구를 중심으로 동지를 규합**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상해임시정부 등과 연락하고 독립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권총으로 협박하여 부호들의 재산을 강탈하였다. 중국에서 폭탄과 권총을 몰래 들여와 은닉하였고, 더욱이 그들을 체포하러간 일본인 순사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상북도 경찰부에 의해 붙잡혔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경북지역의 뜻있는 변호사 6명이 무료변론을 자처했다. 이때 이인은 경성에서 홀로 내려가 가세했다.

1925년 11월 '제1차 조선공산당 검거사건'과 1926년 4월, 6·10만세운동 직전에 제2차 조선공산당사건이 터졌으며, 이 사건 역시 변론을 맡게 되었다. 본격적인

제1심 공판은 1927년 9월 13일에 시작되었다. 사건 및 관련자의 규모가 압도적인데 공판 직전까지 검거된 인원이 220여 명이었고, 공판에 회부된 인원이 101명이었다. 때문에 이 재판을 '101인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피고인에 대한 취조기록만도 무려 4만 쪽에 달했으며, 첫 체포에서 공판개시일까지 22개월이나 소요된 것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수사과정에서 극심한 고문이 자행되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고, 공판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옥사한 피고인도 있었다. 공판은 모두 48회를 거듭하였고, 1928년 2월 13일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고등농림학교(이하 수원고농) 학생들은 수원시내에서 야학을 하고, 인근 농촌지역에서 농민야학을 운영하면서 야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었다. 수원경찰서는 1928년 9월 수원고농 학생 11명을 체포하였다. 그런데 일제는 이를 비밀결사라는 대형 조직사건으로 비약시켰다. 구속된 11명의 학생들에 대한 예심재판 결과 2명만 보안법 위반으로 공판에 회부되었고, 나머지 9명은 면소처분으로 석방되었다. 무려 1년 5개월 동안 미결상태로 구금되었던 것이다. 2명에 대한 제1심 공판이 개정된 것은 1930년 3월 6일이었다. 이인은 단순한 야학 활동을 중대한 비밀결사 사건으로 조작한 부분을 통렬히 비판했다. 결국 변론이 정치에 관한 불온의 언동이었다는 이유로 1930년 5월 5일자로 변호사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인은 변호사 정직 6개월을 받아 한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었다.

이인은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 관여한 혐의로 1942년 12월 경성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평소 민족문화의 보급운동에 힘써왔는데, 특히 역점을 두었던 것이 조선어학회사업이었다. 1942년 9월 정태진의 연행을 시작으로 이극로 · 김윤경 · 최현배 · 이희승 등의 조선어학자들과 회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일제는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이인이 붙잡혀오자 모진 고문을 가했다. 이때 받은 고문으로 평생 보행이 불편할 만큼 다리를 상했다.

1943년 9월 검사는 신문을 마치고 이인을 비롯한 16명을 예심재판에 회부하고, 12명을 기소유예 하였다. 이인은 동지들과 함께 함흥형무소로 이감되었다. 함흥형무소에서는 혹심한 추위와 극심한 식량난으로 큰 고초를 겪었다. 이인은 예심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944년 11월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공판 중에 다시 수감되었다가 1945년 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후 경기 양주군에 은거하다가 해방을 맞이했다.

이인의 한글 사랑은 유별났다. 이는 해방 후에도 계속 이어져 노후에 사재를

정리하여 한글학회에 3천만 원을 기부하였다. 이를 계기로 2억 원의 모금운동을 벌여 종로구 신문로에 한글회관을 건립할 수 있었다. 1979년 유언으로 자신이 살던 집까지 한글학회에 기증하였다. 이인은 조선어학회 · 한글학회의 후원자로서 역할을 끝까지 다하였던 것이다.

■ 참고문헌

- 전병무, 『인물로 보는 근대 대구의 역사와 문화-인물로 본 대구정체성』, 대구역사문화연구소, 2017.

현정건 (민족혁명 운동가)

- 1910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
- 1919년 독립운동자금 마련을 위해 서울 입국
- 192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 참석
- 1924년 임시의정원 회의에 경상도 의원으로 선출
- 1928년 평양형무소에서 3년 징역

현정건(1893~1932)은 한국 사실주의 소설의 대가로 유명하고 『동아일보』 사회부장직에 있던 1936년에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는 빙허 현진건(玄鎭健)의 바로 위 형이다.

현정건은 일찍이 1910년에 중국으로 건너가 상하이에서 공부하고 영어 잘하는 통관업자에서 신문기자로 전직하여 활동하다 1919년 3 · 1운동 무렵부터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이어서 1920년 이후로 상해파 고려공산당 및 상해청년동맹회 간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한인학교 교사 등을 역임하며 활약했고, 1926년부터는 한중연대 강화라는 측면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으며, 대독립당 조직 결성도 적극 추동하여 독립운동의 기반 강화와 세력 확충에 기여한바 컸다. 그러다 1928년 상하이 일본경찰의 공작으로 체포되어 신의주로 압송된 후 재판 받고 징역형의 옥고를 겪었는데, 출옥 6개월 만에 급서하고 부인도 곧 그 뒤를 따라가고 말았다. 어찌 보면 비운의 인물이다.

정건의 조부 현학표(玄學杓)가 일본어에 능통하여 부산 동래에서 역관으로 종사하다 1880년 무과에 급제하여 중앙 관직에 진출했는데, 무과 등과 후의 첫 보임이 아마도 **경상감영**으로 발령되면서 밀양에서 대구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

된다. 그는 뒤에 가서 종2품 중추원 의관을 거쳐 내장원경(內藏院卿)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정건의 아버지 현경운(玄擎運)은 완산 이씨 부인과의 사이에 5남을 두었다. 장남 홍건(鴻健)은 제정러시아의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학부 교관과 러시아공사관 통역관을 지냈고, 차남 석건(奭健)은 일본 메이지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판사로 재임하다 사직하고 대구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3남이 바로 정건이며 출생지는 **대구부 서상면 인교동**[일제 강점기에 수정(竪町/竪町)으로 되었다가 현재는 대구광역시 중구 인교동] 200번지이다. 정건의 아래로는 4남 진건과 5남 성건(聖健)이 있었다.

현정건은 임시정부개조운동을 벌였으며, 이는 개조파 주축의 좌우합작 조직으로 1924년 4월에 창립되어 기세를 올려간 (상해)청년동맹회의 주도로 추동된 것이었다. 동년 10월에 열린 청년동맹회 임시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현정건은 그 조직의 중심부로 들어서고 지도부에 합류했다. 그리고 1925년 3월부터는 월간 기관지 『거화』(炬火:'횃불')의 편집 · 발간을 윤자영과 함께 주관하였다.

현정건은 1928년 3월경 프랑스 조계 패륵로(貝勒路)에서 일경에 체포되었으며, 5월에 변장성과 함께 국내 압송된 그는 아무 연고도 없는 신의주의 경찰서로 인계되어 있다가 그 지법 검사국으로 송치되어 예심 회부되었다.

1928년 12월 21일 신의주지법에서 검사 구형대로 3년 징역형이 언도되었고, 이에 항소했지만 이듬해 6월 10일 비공개로 진행된 평양복심법원 판결에서도 원심형량 그대로 선고되었다. 평양형무소로 이감되어 미결구금일수 공제도 없이 형기를 꼬박 채워 복역한 그는 피체 후 4년 2개월여 만인 1932년 6월 10일에 출옥하였다.

출옥 후 그는 서울로 가서 가회동의 부인 저택으로 들어갔으며, 쇠약해진 몸을 정양하던 그는 갑자기 발병한 복막염으로 경성의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계속하던 중 1932년 12월 30일에 눈을 감고 말았다.

현정건은 1920년대 상하이 한인사회의 정치적 격랑과 굴곡 많은 운동형세 속에서 진작부터 고려공산당 등 좌파조직에 몸담아 주도적으로 활동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고 그가 공산주의 사상과 이론을 맹목적 · 교조적으로 추수했다는 증거나 흔적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대표회의와 상해청년동맹회 및 임시의정원 참여를 통해 독립전선의 일치단결 · 대동통합의 방향으로 임시정부를 개조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이 민족유일당 운동에 적극 참여로도 이어졌다.

그는 계속 겪게 되던 실패와 좌절에도 굴함이 없이, 초지일관 꼿꼿한 삶의 자세와 비타협적 항일행보를 보여주었다. 여러 운동 계열과 조직의 중심부에 서 있으면서도 자신을 별로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길만 일관된 발걸음으로 걸어간 사람이었다.

현정건은 민족독립 달성과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 분투하면서 방법론적 차원에서는 사회주의노선을 택하여 실천해간 전형적 민족혁명운동가였다.

현진건에 비해 현정건은 아는 이조차 거의 없으며, 그의 고향인 대구에서도 아는 이가 드물다. 직계 혈육을 남기지 못한 탓도 있지만, 생전의 그의 활동 무대가 국내나 대구 현지가 아니었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하지만 그는 1992년에 '독립유공자'로 당당히 인정받고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었으며, 2012년 12월에는 국가보훈처가 매년 선정해 발표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

■ 참고문헌

- 김영범, 『인물로 보는 근대 대구의 역사와 문화-인물로 본 대구정체성』, 대구역사문화연구소, 2017.

이종암 (의열 투사)

- 1908년 공립대구보통학교 입학
- 1912년 대구농림학교 입학
- 1913년 부산 공립상업학교 입학
- 1914년 대구은행 입사
- 1915년 서희안(徐喜安)과 결혼
- 1919년 의열단 결성, 창립단원 10인 중 이종암 해당
- 1922년 의열단의 상하이 황포탄(黃浦灘) 의거 가담
- 1925년 경북경찰부 고등과원에게 체포

이종암은 1896년 음력 1월 12일, 대구부(府) 대구군 해북촌면 백안동(일제의 행정구역 재편 때 경북 달성군 공산면으로 편입되었다가, 현재는 대구 동구 공

산동으로 편제)에서 태어났다. 서리직에 있는 하빈 이씨 석능(石能)과 그 부인 남원 양씨의 차남으로였다. 항렬자인 '종'을 얹어 지어진 아명이 종암이었고, 호적과 족보 명은 종순(鍾淳)이었다. 나중에 독립운동에 투신하고부터는 외가 성을 빌려서, 양건호 · 양주평(梁州平) · 양근오(梁槿吾) 등의 가명을 만들어 썼다.

이종암(李鍾岩, 1896~1930)은 1926년 11월 11일자의 『동아일보』 2면 '경북 중대사건' 혹은 '양건호(梁建浩) 사건' 기사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동아일보』의 연속된 기사 제목들은 다음과 같이 뽑혀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사건의 경개를 대략 짚어볼 수 있었다.

"경북 중대사건의 其一, 의열단 전후활동 진상 - 과거 7년간 관계자 전후 30여 명, 만 1주년 만에 해금된「양건호(梁建浩)」사건"; "경계망을 돌파, 전후 출입 6차"; "변명(變名) 7종"; "이종암(李鍾巖) 활동을 통하야 판명된 의열단의 정체"; "김원봉(金元鳳)을 단장으로 의열단을 조직"; "곽재기(郭在驥)와 공모, 폭탄수송에 전력"; "동지는 군자원(軍資員), 자기는 직접파(直接派)"; "金益相(김익상)을 선발로 전중대장(田中大將) 저격"; "대관암살 담당한 배중세(裵重世)"; "김시현(金始顯)을 선두로, 황옥사건(黃鈺事件) 실패"; "관서폭파 담당한 고인덕(高仁德)". 제목만 봐도 실로 굉장한 사건인 것이었다.

의열단은 1920년대 항일독립투쟁의 최전선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최고의 성가를 올리고 일제 당국을 전전긍긍케도 만든 비밀결사 조직이었다. 1932년의 윤봉길(尹奉吉) 의거에 그 뜻이 가장 잘 담겨있을 '의열투쟁'이란 용어가 만들어진 때는 1970년대였지만, 그 말의 기원을 이루고 최고상징도 되는 존재가 바로 의열단이었다. 그 스스로는 일컫기를 '암살파괴운동'이라 했고, 그에 걸맞게 일곱 부류의 처단 대상과('7가살') 다섯 종류의 폭파 대상 기관을('5당파') 정해놓고 있었다. 1919년 11월 10일 새벽, 만주 지린(吉林)의 성밖 한 농가에서 10명(13명으로 알려져 왔으나 근래의 연구에서 10명이었던 것으로 인원과 명단이 재확정되었음)의 열혈 애국청년들에 의해 창립된 후로 군사 · 정치운동으로 노선을 바꾸게 되는 1926년까지 의열단이 기획 · 시도 · 감행한 암살 · 파괴 거사는 무려 23차례에 이르렀다. 이종암은 그 창립단원 10인 중의 1인이었고, 1922년경부터는 간부진의 일원이 되어 활동하였다.

이종암은 1926년 여섯 번째 국내 잠입에서 체포되었고, 같은 해 12월28일 선

고공판에서 (다나카)살인미수, 폭발물취체벌칙 위반, 제령 제7호 위반 죄목으로 징역 13년형을 언도받았고, 항소를 하지 않아 곧장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었다. 거기서 복역하며 옥고를 겪던 종암은 경찰과 검사국에서 받은 악형의 후유증에다 감옥 환경마저도 극악한지라, 위장병 · 폐병 · 인후병 등의 증세가 지병이던 각기병에 더해져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더 이상은 손써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1930년 5월 19일에야 그는 형 집행정지로 가출옥하였다. 피체 구금 후 4년 6개월 만이었다. 위중한 상태에 처한 그는 친형 종윤의 남산동 집으로 가서 병석에 누웠다가 열흘 후인 5월 29일(아우 종범의 기억으로는 6월 10일) 세상을 뜨고 말았다. 간고한 투쟁의 일생을 그렇게 서른다섯 나이로 마감하고 순국한 것이다.

이종암의 가열찬 삶의 행로와 그 속의 독립운동 공적은 뒤늦게 공적 인정을 받아, 1962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 참고문헌

- 김영범, 『인물로 보는 근대 대구의 역사와 문화-인물로 본 대구정체성』, 대구역사문화연구소, 2017.

이상백 (한국 사회학의 개척자 · IOC위원)

- 1927년 와세다 대학 문학부 사회철학과 졸업
- 1944년 지하 독립운동 단체인 건국동맹에 참여
- 1947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창설
- 1951년 대한체육회 부회장에 취임
- 1957년 한국사회학회 창설
- 1964년 우리나라 두 번째로 IOC 위원 선출

이상백(1904~1966)은 **대구 출신**으로 독립운동가 · 사회학자 · 사학자 · 체육인이다.

호는 상백 또는 백무일재이다. 아버지는 이시우인데 그의 셋째 아들로, 맏형은 중국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상정, 중형은 민족시인 **이상화**, 아우는 수렵인 상오이다.

한말의 선각자이며 큰 부호였던 큰아버지 일우가 세운 우현서루(지금의 대륜중고등학교)에서 한학을 수학하고, 1915년 **대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어

일본 와세다제일고등학원을 거쳐, 1924년 일본의 일본 대학농구연맹을 결성하고 와세다 대학 농구팀 대표로 일본 대학농구연맹에 참여하였다. 그밖에 축구, 야구에도 주전 선수로 실력을 보여주었다.

1927년 와세다 대학 문학부 사회철학과를 졸업하고, 이 대학에서 사회학과 동양학을 연구하였다.

1932년에는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 일본 선수단 임원으로 참가하여 로스앤젤레스에 다녀왔다. 1935년 일본체육회 전무이사에 취임하고 1936년에는 베를린 하계 올림픽 일본 대표선수단 총무로 참가, 베를린에 다녀왔다.

그 뒤 와세다대학 동양사상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이 대학 재외특별연구원으로 중국에 파견되어 동양학연구를 더욱 깊이 있게 하였다(1939~1941).

일본에서 수학, 연구하는 동안에도 자주 서울을 내왕하며 국내 학계와 긴밀히 제휴, 진단학회 창립에 참여하고 『진단학보』에 무게 있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1944년에는 여운형이 결성한 지하 독립운동 단체인 건국동맹에 참여하여 활동했다.

1946년 경성대학 교수로 취임하고, 1947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를 창설, 임종 때까지 사회학과 주임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와 교육에 진력하였다.

대한체육회 설립 이후 1951년에는 대한체육회 부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아시아경기연맹 집행위원을 거쳐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57년 한국사회학회를 창설하고 이 학회의 1·2대 회장으로서 한국사회학계를 주도하였다.

이상백 / 제2회 아시아경기대회 시상

그의 국사 연구는 그 시대·내용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나, 그 가운데서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은 여말선초의 사회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그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사회사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저서로 《조선 문화사 연구 논고》, 《이조 건국의 연구》 등이 있다.

사후 그를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그의 이름을 딴 이상백배 한-일 대학선발농구대회가 개최되고 있고, 아시안게임 최우수선수에게는 이상백배가 특별 수여되고 있다.

그의 활동과 업적의 한 면이 학자 · 교수였다면 또 다른 한 면은 체육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체육계에서의 그의 위치 또한 뚜렷하였다. 그는 일찍부터 유명한 농구선수로 활약하였으며, 평생을 체육 이론가로서 그리고 체육 행정가로서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문화 예술인 (출생순)

서병오 (시서화 삼절의 대가)

- 1879년(고종 16) 흥선대원군과 교유
- 1882년(고종 19) 흥선대원군이 <행서>대련을 써줌
- 1891년(고종 28) 진사시 합격
- 1896년(고종 33) 대구부 주사 판임관 7등에 임명
- 1908년 신령군수 부임, 중국 기행
- 1922년 교남시서화연구회 회장

석재(石齋) 서병오(徐丙五, 1862~1936)는 근대기 **대구 서화계를 대표**하는 서예가, 문인화가이다.

서병오는 아버지 서상민(1833~1918)과 어머니 경주 최씨 사이의 4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후에 딸 만 아홉을 두어 아들이 없는 숙부 서상혜(1837~1909)에게 양자로 갔는데 생부와 양부 모두 만석군이라고 했던 부자였다. 그의 가계는 양반은 아니었고 향리 집안으로 알려져 있다.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소문났던 그는 영남의 고명한 학자에게 공부했고 10대 말 서울로 올라가 견문을 넓혔다. 이때 대원군 이하응의 총애를 받고, '석재'로 아호를 하사받은 일은 서화에 관심을 쏟는 계기가 되었다. 서병오는 과거를 보아 진사에 급제했으나 나라는 망하고 시대는 바뀌어, 근대적 경제 활동을 하며 애국계몽 운동에도 참여했다.

30대와 40대 두 차례 중국 여행을 통해 민영익, 포화와 교유하며 그들의 묵란, 묵죽을 접한 것은 그가 자신의 화풍을 이루는 자산이 되었다.

서병오는 60세 무렵부터 많은 작품을 남기며 서화가로 활동했다. 운미란(芸楣蘭)을 계승하여 강건하면서도 졸박한 '석재란'을 이루었고, 포죽(浦竹)을 바탕으로 거침없고 호방한 '석재죽'을 완성했다.

서예는 안진경체의 바탕 위에 김정희 서풍을 영향을 받은 개성적인 예서와 행서를 잘 썼다.

서병오는 시서화를 향유하는 일생을 통해 일기가성의 호쾌한 필력과 정감이 우러나는 창윤한 묵법의 개성적인 필묵 세계를 이루었다. 1922년(61세) **교남 시서화 연구회**를 결성해 지역 서화의 구심점을 이루고 후진을 양성함으로서 대구와 영남지역 서화의 융성에 이바지했다.

서병오는 '팔능거사(八能居士)', '십만석군'으로 불렸다. 팔능은 한시(詩), 서예(書), 그림(畵), 거문고(琴), 바둑(棋), 장기(碁), 의술(醫), 약재(藥) 등 여덟 가지에 모두 능해 붙여진 호칭이며, 십만석군은 생가와 양가 만석군 재산에 더해 그의 팔능이 각각 만석의 가치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서병오는 시서화를 다 잘했을 뿐 아니라 바둑과 장기를 잘 두었고, 거문고의 명수였으며 의술과 약재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

서병오는 360여 수 이상의 시를 남겼고 팔능 중에서도 시를 '제일능(第一能)'이라고 했던 시인이다. 여러 시사에 참여하며 시작 활동을 했고, 한시 공모에 입상했으며, 백일장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고, 신문과 잡지에 시가 실리기도 했다. 서병오는 생존 당시 신문에 글씨와 그림이 여러 차례 실렸고, 잡지에 '**대구의 자랑**'으로 소개되었으며(『별건곤』33, 삼천리사, 1930), 사망기사가 신문에 보도된 명사였다(『동아일보』1936. 3. 30).

서병오<묵란> 서병오<분란>

작고한 후 대표적 전시로 1973년 대구 미국 공보원(USIS)에서 '석재 서병오선생 유묵전'이 최초로 열렸고, 1989년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석재 서병오 회고전'이 열렸으며, 2017년 대구미술관에서 '대구미술을 열다 석재 서병오'전이 열렸다. 서병오의 서화 380여 건, 시 360여 편을 실은 상하 2권의 대형 도록 『석재 시서화집』이 간행되었고, 서병오의 서예, 회화에 대한 3편의 석사논문을 비롯해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참고문헌

- 이인숙, 『인물로 보는 근대 대구의 역사와 문화-인물로 본 대구정체성』, 대구역사문화연구소, 2017.

김녹주 (판소리 명창)

김녹주(1896~1923)는 일찍이 어린나이에 명창이었으며, 뛰어난 여류 판소리명창으로 판소리를 통한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하였다. 경상남도 김해 출생으로 12세 때 김정문에게 판소리를 배웠고, 일찍이 어린 나이에 명창이란 말을 들었다. 1918년 송만갑협률사의 단원으로 발탁되어 공연에 참가하였다. 체구가 당당하고 성격도 활달한데다가 천성적으로 좋은 목청과 재질을 타고났다.

강소춘 · 이화중선 · 배설향과 함께 뛰어난 여류 판소리명창으로 꼽혔는데,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 **대구에서 소리사범**을 하다가 27세라는 젊은 나이로 병사하였다. 「춘향가」를 잘 불렀고, 특히 어사또가 춘향집에 당도한 대목과, '사랑가' · '육자배기'를 잘 불렀다. 민족항일기 초에 축음기 음반에 「화초사거리」를 취입하였다고 하나 전하지는 않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태준 (대구 최초 근대음악 작곡가)

- 1920년대 우리나라 예술가곡류의 효시 형태 작곡
- 1924년~31년 대구 계성중학교에 재직, 「오빠생각」작곡
- 1932년 웨스트민스터대학에서 합창지휘로 석사학위 취득
- 1936년 숭실전문학교 교수
- 1945년 전문 합창단 한국 오라토리오합창단 창단
- 1968년 한국음악협회 회장

박태준(1900~1986)은 **대구 출생**으로 작곡가 · 합창 지휘자이다. 1900년 11월 22일 세례교인이자 포목상을 운영하던 박순조의 3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대구 계성학교를 거쳐 1921년 평양 숭실전문학교 문학부를 졸업하였다.

숭실전문 재학 시절 선교사 말스배리를 만나 화성학 등을 배워 음악가의 기반을 다지면서 같은 대구 출신으로 2년 후배인 현제명(玄濟明)과 함께 음악부에서 중요한 몫을 다했다. 1920년 6월에 열린 평양음악회에서 그의 독창은 만장의 갈채를 받았다.

대구지역 최초의 작곡활동은 1920년대 박태원과 박태준 형제의 동요곡을 들 수 있다. 졸업 후 마산 창신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며 이은상과 함께「미풍」·

「님과 함께」·「소나기」·「동무생각」·「순례자」 등의 예술가곡 형태의 노래를 작곡하였다. 작곡 형식은 1920년대 초반에는 진취적이고 시의 선택도 유절가곡에서 자유스러운 형태를 채택하여 우리나라 예술가곡류의 효시 형태를 취하고 있다. 1924년에서 1931년까지 모교인 **대구 계성중학교**에 재직하면서「오빠생각」·「오뚝이」·「하얀밤」·「맴맴」등의 우리나라 동요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작곡하였다.

1932년 이후는 미국의 더스커럼(Tusculum)대학과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대학에서 합창 지휘를 배워 최초로 합창지휘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한 뒤 1936년 숭실전문학교 교수로 취임하였으며, 민족 항일기 말에는 민족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1945년 전문 합창단인 한국 오라토리오합창단을 창단하였으며, 1962년 예술원회원과 연세대 교수를 지냈고, 1968년 이후 한국음악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서울음악제를 창설하기도 하였다. 1973년까지 지휘자로 활동하며 합창음악 발전에 기여하였다. 박태준 작품은 동요 등 150여 곡으로, 정돈되고 아름다우면서 격정이 내재되어 있다. 문화훈장 · 서울시문화상 · 예술원상을 수상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현진건 (현대 단편소설의 개척자)

- 1915년 일본 유학
- 1920년 ≪백조≫ 창간 동인 참여
- 1921년 단편소설 <빈처>발표 조선일보사 입사
- 1936년 동아일보 일장기말살사건으로 구속됨

현진건(1900~1943)은 **대구 출생**으로 호는 빙허이다. 1915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세이조중학 4학년을 중퇴하고 상해로 건너가 후장대학에서 수학하였다. 1919년 귀국하여 당숙 보운에게 입양되었다.

1920년 ≪개벽≫에 <희생화>를 발표함으로써 문필 활동을 시작하여 <빈처>

(1921)로 문명을 얻었다. 1921년 조선일보사에 입사하여 언론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홍사용 · 이상화 · 나도향 · 박종화 등과 함께 ≪백조≫ 창간 동인으로 참여하여 1920년대 신문학운동에 본격적으로 가담하였다.

1922년에는 동명사에 입사, 1925년 그 후신인 ≪시대일보≫가 폐간되자 동아일보사로 옮겼다. 1932년 상해에서 활약하던 셋째 형 정건의 체포와 죽음으로 깊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자신도 1936년 동아일보사 사회부장 당시 일장기말살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었다.

1937년 동아일보사를 사직하고 소설 창작에 전념하였으며, 빈궁 속에서도 친일문학에 가담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1943년 장결핵으로 사망하였다.

장편 · 단편 20여 편과 7편의 번역소설, 그리고 여러 편의 수필과 비평문 등을 남겼다. 그의 작품 경향은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은 사실주의 계열로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자전적 신변소설, 하층민과 민족적 현실에 눈을 돌린 소설, 1930년대의 장편소설과 역사소설 등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전적 소설인 <빈처> · <술 권하는 사회>(1921) · <타락자>(1922) 등에서는 순수한 젊은이가 구체적인 생활 안에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좌절의 경험을 기록함으로써 한 양심적 지식청년의 고민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둘째, 창작집 ≪조선의 얼굴≫(1926)을 간행한 시기는 그의 의식이 자전적 세계를 벗어나 식민지의 민족적 현실 및 고통받는 식민지 민중의 문제로 옮겨간다.

도시하층민의 운명을 추적한 <운수 좋은 날>(1924), 고통받는 농촌 여성을 그린 <불>(1925), 땅을 잃고 뜨내기 노동자로 전전하는 한 이농민을 탁월하게 형상화한 <고향>(1926) 등은 1920년대 단편문학의 한 정점으로 기록된다.

셋째, 장편소설 <적도>(1933~1934)에서는 삼각관계의 연애소설 구조 속에서, <무영탑>(1938~1939) · <흑치상지>(1939~1940, 미완) · <선화공주>(1941, 미완) 등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민족해방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30년대의 암울한 시대적 압박으로 말미암아 외면적인 통속성이 강화되고, 민족정신은 내재화 · 추상화의 경향에 빠졌다. 이밖에 <조선혼과 현대정신의 파악>(개벽 65호, 1926) 등의 비평문을 통하여 식민지시대의 조선 문학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는 김동인 · 염상섭과 더불어 근대문학 초기에 단편소설 양식을 개척하고 사실주의 문학의 기틀을 마련한 작가이다. 특히 식민지시대의 현실대응 문제를 단편기교와 더불어 탁월하게 양식화한 작가로서 문학사적 위치를 크게 차지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상화 (대표적 민족시인)

- 1919년 3 · 1운동 때 대구 학생봉기 주도
- 1920년 ≪백조≫ 동인 참여
- 1922년 일본유학
- 1926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발표
- 1927년 의열단 이종암 사건에 연루되어 구금
- 1933년 교남학교(현재 대륜중고등학교)에서 조선어와 영어, 작문교사로 근무

이상화(1901~1943)는 **대구 출신**으로 시인 · 작가 · 독립운동가 · 문학평론가 · 번역문학가 · 교육자 · 권투 선수이다.

호는 무량 · 상화(尙火, 想華) · 백아이며, 아버지는 이시우, 어머니는 김신자이다. 4형제 중 둘째이다. 형 이상정은 독립 운동가이며, 셋째 아우 이상백은 한국최초의 IOC위원이자 한국 사회학계의 선구자이고 넷째 아우 이상오는 수렵가이자 바둑 유단자이다.

7세에 아버지를 잃고 14세까지 가정 사숙에서 큰아버지 이일우의 훈도를 받으며 수학하였다. 18세에 경성중앙학교(지금의 서울 중앙고등학교) 3년을 수료하고 강원도 금강산 일대를 방랑하였다.

1919년 3 · 1운동 때에는 백기만 등과 함께 **대구 학생봉기**를 주도하였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21세에는 현진건의 소개로 박종화를 만나 홍사용 · 나도향 · 박영희 등과 함께 '백조' 동인이 되어 본격적인 문단 활동을 시작하였다.

1922년 파리 유학을 목적으로 일본 동경의 아테네 프랑세에서 2년간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다가 동경대지진을 겪고 귀국하였다.

대표작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1926년《개벽》에 발표되었다. 작자의 반일 민족의식을 표현한 작품으로 비탄과 허무, 저항과 애탄이 깔려 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겨 얼어붙어 있을망정, 봄이 되면 민족혼이 담긴 국토, 즉 조국의 대자연은 우리를 일깨워준다는 것이다. 국토는 일시적으로 빼앗겼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민족혼을 불러일으킬 봄은 빼앗길 수 없다는 몸부림, 즉 피압박 민족의 비애와 일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식을 담고 있다.

1927년에는 의열단 이종암 사건에 연루되어 구금되기도 하였다.

1933년 **교남학교**(지금의 대륜고등학교)에서 조선어와 영어, 작문교사로 근무했다. 이듬해 교남학교 교사직을 사직하며, 조선일보 경상북도총국을 경영하였다가 1년 만에 실패하였다.

상화(이상화)와 고월(이장희)
백기만 편

1937년 3월에는 장군인 형 이상정을 만나러 만경에 3개월간 갔다 와서 일본관헌에게 구금되었다가 11월 말경 석방되었다. 그 뒤 3년간 대구 교남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권투부를 창설하기도 하였다. 그는 약소 민족은 주먹이라도 잘 써야 된다며 학교 체육대회 종목에도 권투를 넣었는데, 교남학교 권투부 출신들은, 졸업 후 훗날 대구 권투 클럽을 결성하였다.

그의 나이 40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독서와 연구에 몰두하여 「춘향전」을 영역하고, 「국문학사」·「불란서 시정석」 등을 시도하였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고 43세에 위암으로 사망하였는데 이상화의 오랜 친구인 소설가 현진건도 같은 날 경성부에서 폐결핵과 장결핵의 합병증으로 숨을 거두었다.

이상화는 1922년 《백조》 1호에 〈말세의 희탄〉, 〈단조〉, 〈가을의 풍경〉세 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이후 《백조》나머지 호, 《개벽》, 《문예운동》, 《삼천리》, 《여명》, 《신여성》, 《조선문단》, 《조선지광》, 《별건곤》등 잡지에 〈나의 침실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대구 행진곡〉, 〈서러운 해조〉 등 60여 편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생전에 출간된 시집은 없으며, 사후 1951년 백기만이 청구출판사에서 펴낸 《상화와 고월》에 시 16편이 실렸고, 이기철 편 《이상화 전집》(문장사, 1982)과 김학동 편 《이상화 전집》(새문사, 1987), 대구문인협회 편 《이상화 전집》(그루, 1998) 등 세 권의 전집에 유작이 모두 실렸다. 대표적인 작품들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의 침실로> 이다.

이상화의 시비는 1946년 동향인 김소운의 발의로 대한민국 최초의 시비를 대구 달성공원에 세웠다. 이상화의 고택은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 2가 84번지**에 있으며, 맞은편에 서상돈의 고택도 함께 위치해 있다. 1999년 도시개발로 한때 헐릴 위기에 놓이기도 했으나 1999년부터 고택을 보존하자는 시민운동이 벌어졌고 2008년 8월 13일 결실을 맺어 이상화 고택 개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상화 시인의 고택은 2008년 8월 12일 새롭게 단장되어 일반인들에게 문을 열었다.

이상화 고택

[대구시 중구청 (www.jung.daegu.kr) 참조]

이육사 (대표적 일제 저항시인)

- 1925년 대구에서 의열단에 가입
- 1927년 장진홍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 참여
- 1929년 광주학생운동 참여
- 1930년 대구 격문사건 참여
- 1933년 『신조선』 <황혼>으로 본격적인 시작 활동
- 1937년~41년 「청포도」, 「광야」, 「절정」 발표
- 1944년 1월 베이징 감옥에서 41세의 나이로 작고

이육사(1904~1944)는 시인 · 독립운동가로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다. 본명은 이활이며 개명하기 전의 이름은 이원록 · 이원삼이다. 육사는 그의 아호로 대구형무소 수감생활 중 수감번호인 264를 후일 아호로 썼다.

퇴계 이황의 14대손이다. 어려서 할아버지에게 한학을 수학하다가 도산공립보통학교에 진학하여 신학문을 배웠다.

경력은 항일운동가로서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1925년에 형 이원기, 아우 이원유와 함께 **대구에서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1927년에는 **장진홍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에 연루되어 대구형무소에 투옥되었다.

이밖에도 1929년 광주학생운동, 1930년 **대구 격문사건** 등에 연루되어 모두 17차에 걸쳐서 옥고를 치렀다.

이육사 생가

중국을 자주 내왕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1943년 가을 잠시 서울에 왔을 때 일본 관헌에게 붙잡혀, 베이징으로 송치되어 1944년 1월 베이징 감옥에서 41세의 나이로 작고하였다.

문단 활동은 조선일보사 대구지사에 근무하면서 1930년 창작시 <말>을 이활이라는 필명으로 『조선일보』에 발표하고 10월 대중지 『별건곤』에 '대구 二六四' 라는 필명으로 「대구사회단체개관」을 발표하였으며 1933년 『신조선』에 시 <황혼>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시작 활동을 보여주었다. 1934년 신조선사 근무를 비롯하여 중외일보사, 조광사, 인문사 등 언론기관에 종사하면서 시 외에도 한시와 시조, 논문, 평론, 번역, 시나리오 등에 손을 대어 재능을 나타냈다.

1935년 시조 「춘추삼제」와 시 「실제」를 썼으며, 1937년 신석초 · 윤곤강 · 김광균 등과 『자오선』을 발간하여 「청포도」, 「교목」, 「파초」등의 상징적이면서도 서정이 풍부한 목가풍의 시를 발표했다.

그의 시 발표는 주로 『조광』, 『풍림』, 『문장』, 『인문평론』을 통하여 1941년까지 계속되었으나, 시작활동 못지않게 독립투쟁에 헌신하여 전 생애를 통해 17회나 투옥되었다.

이육사시고 '의의가패'

그 뒤 여러 잡지사에 30여 편의 시와 그밖에 소설 · 수필 · 문학평론 · 일반평문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생존시에는 작품집이 발간되지 않았고, 1946년 아우 이원조에 의하여 서울출판사에서 『육사시집』 초판본이 간행되었다.

대표작으로는「황혼」·「청포도」(문장,1939)·「절정」(문장, 1940)·「광야」(자유신문, 1945. 12. 17)·「꽃」(자유신문, 1945. 12. 17) 등을 꼽을 수 있다.

그의 생애는 부단한 옥고와 빈궁으로 엮어진 행정으로, 오직 조국의 독립과 광복만을 염원하고 지조와 절개로써 일관된 구국투쟁은 민족사에 큰 공적으로 남을 것이다. 육사의 의식 공간은 항시 쫓기고 있는 불안한 마음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빼앗긴 조국에 대한 망국민의 비애와 조국광복에 대한

염원을 그의 시에 새겨놓은 것이다.

무려 17회에 걸쳐 옥살이를 하면서도 오로지 독립을 위해 의열 투쟁 대열에 앞장섰으며, 육신이 쇠약해지자 민족시인으로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등 암흑기에 주옥같은 많은 작품을 남겼다.

1968년 시비가 안동에 건립되었고, 유저로 『육사시집』, 유고 재첨가본 『광야』(1971), 시와 산문을 총정리한 『광야에서 부르리라』(1981) · 『이육사전집』(1986) 등이 있다. 2004년에는 고향인 경북 안동시 도산면 원촌마을에 '이육사 문학관'이 건립되었으며 시문학상이 제정되었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이육사문학관(http://www.264.or.kr) 참조】

이인성 (천재 서양화가)

이인성(1912~1950)은 대구 출신으로 1928년 세계아동예술전람회의 특선 수상을 시작으로 조선미술전람회부터 연속6회 입상기록으로 26세 젊은 나이로 추천작가가 되었으며, 재능과 감각은 우리근대 화단의 신미술 도입과 정착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대구시에서는 대구 출생의 천재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인성 화가의 작품세계와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인성미술상'을 제정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는 한국 근대 미술의 도입기이자 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 때 수채화로 독특한 자기표현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국의 고갱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그를 기리기 위해 중구 북내동 종로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고택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 양화계의 거벽 천재화가 이인성(http://www.leeinsung.com) 참조】

■ 참고문헌

- 『나의사랑 대구』, 대구광역시, 2014.
- 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구시사』, 대구광역시, 1995.
- 이정웅, 『대구의 역사 인물』, 학이사, 2014.
-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제5장

대구의 경제를 찾아서

제5장 대구의 경제를 찾아서

1 대구의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예로부터 생활인들의 삶이 그대로 묻어 있는 장소입니다. 현대식 마트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전통시장은 언제나 푸근한 고향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부터 물류와 유통의 집산지였던 대구에서의 전통시장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구에서 전통시장에 대해 고찰하여보는 것은 '대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미래의 도시를 운영하고 설계하는 선거 기간이 되면 가장 먼저 입후보자들이 공약을 제시하는 장소가 전통시장인 것을 보면 전통시장에 담긴 의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일반 시민들의 현실적인 삶의 장소인 동시에 시민들의 일터일 수도 있고, 미래세대로 이어 가야 할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평소 다양한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방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약령시

약령시에 대하여 '(사)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658년(효종 9년) 무렵 한약재 수집의 효율성을 위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1년에 두 번(봄과 가을 1개월씩) 대구성 북문 근처의 객사 뜰에 개설되었다가 1908년 일제에 의해 대구성벽이 철거되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연락의 거점이 되어 지속적인 탄압을 받다가 결국 1941년 약령시가 폐쇄되고, 광복 후 약령시가 재개하였으나 1950년 6 · 25전쟁으로 다시 폐지되었다. 전쟁 이후 변모된 모습으로 형성된 한약재 상설시장이 현재의 남성로 일대 약전골목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1920년대 약전골목

현재 약령시는 남성로와 동성로3가, 계산1 · 2가, 수동, 종로2가, 장관동, 상서동 일부를 포함하는 전장 715m의 도로변을 따라 많은 상가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그중 한약관계 점포(약70%~80%)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

1988년 8월 1일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로 부터 전통한약시장으로 지정될 당시의 면적은 324필지 3654.9㎡이지만 관련 업소의 증가로 차츰 권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대구약령시는 중앙대로와 달구벌대로를 가로지르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도보로 2~3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 교통수단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약령시의 발생에 관한 제설

약령시의 형성배경 대구 약령시의 형성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특히 대구 약령시의 형성과 관련하여 대시(大市)설, 중국 조공설, 일본 수출설, 대동법 실시설과 자연 발생설 등의 다섯 가지 설이 있다.

먼저, 대구 약령시의 발생 동기가 약재의 효과적인 채집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계획과 지원 하에 국가의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대시설은 생산자와 중개상 간의 유통을 원할하게 하는 도매시장으로서의 대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설이다.

둘째, 경상도 지방에서 풍부하게 산출되는 약재도 조공품의 하나로 제공되었다는 중국 조공설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약재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개설되었다는 설이다.

셋째, 일본의 조선약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용 약재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대구 약령시가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일본 수출설은 1943년에 출간된 '대구부사(大邱府史)'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인들로 하여금 현물대신 특산물을 대납하게 한 대동법 실시설과 교통 및 우수한 약재들이 자생하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자연 발생적으로 약령시가 생성되었다는 자연 발생설이 있다.

이러한 설을 바탕으로 볼 때 대구 약령시는 국가 차원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한방(韓方)문화의 정보를 습득하고 체험하는 곳 - 약령시한의약박물관

전국의 한의대생은 물론, 한방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박물관은 3층에서 관람을 시작한다. 한방 역사실에서 약령시의 역사와 발자취를 살펴보고, 2층 한방 체험실에서 한방 원리 탐험과 한방 체험을 하는 코스이다. 한방 역사실에는 1910년대 대구 약령시의 한약방과 주막 등을 재현했는데, 난생처음 보는 한약재와 한방 도구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동의보감》,《향약집성방》등 보기 힘든 옛 의서도 있다.

다양한 체험으로 한방에 쉽게 접근하는 한방 체험실은 방문객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곳이다. 피부에 좋은 당귀, 감기 회복에 효과적인 박하, 지혈 작용을 하는 애엽 등으로 만든 한방 족욕제를 첨가한 한방 족욕은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이다.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이치대로 족욕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족욕을 하다 보면 잠이 솔솔 온다.

2층에는 한방 문화 체험 시설과 한방 제품 판매장이 있다. 한방 웰빙 체험은 한방 향첩, 한방 비누 등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다.[『도시철도로 떠나는 대구이야기여행』,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http://dgom.daegu.go.kr 참조】

한방문화를 즐기자! -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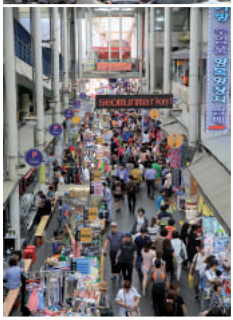
1658년 무렵부터 해마다 열리던 대구약령시는 개시 때마다 약상(藥商)과 의원(醫員)을 비롯한 전국의 한의약업인과 전체 지역민이 함께 어울려 약재를 사고 팔며 인심과 문물을 전하던 축제 그 자체였다.

개시일에는 약령시 동 · 서쪽에 커다란 아치형 솔문을 만들어 세워 축제 분위기를 돋우었으며 한약재 매매 외 일용잡화점도 덩달아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약령시 주변의 여러 음식점과 술집 등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붐벼 야간에도 이들의 열기로 인해 밤이 깊어 가는 줄 모를 지경이었다.

이러한 약령시 개장행사는 일제 강점기인 일부시기를 제외하고 약령시에서 지속적으로 열려왔다. 이와 같이 약령시 개장행사를 축제 형식으로 현대적으로 승화시켜 1978년부터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http://www.herbfestival.org/kor) 참조】

2) 서문시장



'서문시장【https://smmarket.modoo.at】' 사이트에서는 서문시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은 조선 중기부터 형성된 시장으로, 옛 이름은 '대구장'이다. 조선 시대에 평강장, 강경장과 함께 전국 3대 장터 중 한 곳으로 유명하였다.

현재 서문시장의 건물 총 면적은 64,902㎡이고 1지구, 2지구, 4지구, 5지구, 동산상가, 건해산물상가 등 6개 지구로 구성되고, 약 4,000여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또한 상인 수는 약 2만여 명으로 주거래 물품은 주단, 포목 등 섬유 관련 품목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원단 시장이다. 그밖에 한복, 액세서리, 이불, 의류, 그릇, 청과, 건어물, 해산물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임진왜란과 6 · 25전쟁으로 인한 물자 조달의 필요성으로 발달한 서문시장!

조선 중기부터 형성된 시장으로, 서문시장의 옛 이름은 대구장이다. 원래 대구읍성 북문 밖에 자리 잡은 소규모 장이었다가 임진왜란(1592~1598)을 겪으면서 물자 조달의 필요성이 증대하자 장이 크게 발달하였다.

1601년(선조34) 경상감영(현재의 도청과 같은 곳)이 대구에 설치되어 대구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고, 1669년(현종10) 낙동강을 경계로 좌·우도로 분리되어 있던 경상도가 통합되어 하나의 행정권을 형성함으로써 대구의 경제적 위치도 크게 부상했다.

대구장(서문시장)은 1922년 9월 29일에 서남쪽에 있던 천왕당지를 매몰하여 현 위치로 옮기게 되었다. 일본은 장소가 비좁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사실은 1919년 3·8독립만세운동의 집결지라는 사실이 한몫을 차지했다.

1945년 8.15광복과 1950년 6.25전쟁은 서문시장을 전국 최대의 의류 도매시장으로 도약시켰다. 전쟁기간 중 대구에는 피난민들이 몰려 인구가 급증했으며 군사 중심지가 되었고, 그 뒤에 대구가 섬유도시의 기반을 갖추게 되면서 서문시장은 전국 최고의 포목 판매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서문시장의 상권은 영호남 및 강원도 일부까지 뻗쳤고 특히, 직물

도매업은 전국 섬유시장을 석권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부터 화학섬유가 시장을 장악하고, 서문시장이 10년 마다 한 번 꼴로 대형화재를 겪게 되면서 서문시장은 활력을 잃기 시작하였으나 최근에 서문야시장을 여는 등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 참 좋다』, 대구시청, 2106. 요약정리]

3) 칠성시장

'칠성시장【http://chilsungmarket.allthru.kr】' 사이트에서는 칠성시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구 칠성시장은 서문시장과 더불어 대구 최고, 최대의 전통시장이다. 동촌 및 하양 등지의 사과와 농산물이 집결하여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동천시장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1946년 시장공영화 시책에 따라 북문시장이란 이름으로 상설시장이 개설되었고, 현재는 칠성시장, 청과시장, 삼성시장, 경명시장, 북문시장, 능금시장, 가구시장, 대성시장, 꽃시장 등 여러 개의 시장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종합 시장이다.

돼지골목, 개소주골목, 닭골목, 튀밥골목, 장어골목, 멍게골목 등으로 명물골목으로 유명하다."

칠성시장 연탄석쇠불고기

칠성시장역 2번 출구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큰길가로 가다 보면 칠성시장 명물 족발 골목이 이어진다. 골목 좌우로 족발 가게 20여 곳이 있고, 그 사이에 하얀 연기가 거침없이 피어나는 집이 보인다.

돼지고기 앞다리 살을 사용하는 '단골식당'의 연탄석쇠불고기 주문이 들어오면 1인분씩 연탄불에 굽는다. 연탄석쇠불고기의 절정은 화려한 불꽃 쇼다. 돼지고기에서 기름이 연탄불로 떨어지면서 불길이 치솟는 과정을 몇 번 거친다.

상차림은 상추겉절이와 깻잎, 고추, 마늘, 쌈장, 새우젓, 양념간장, 김치이다. 주로 깻잎에 싸서 먹거나 간장에 찍어 먹는다. 불 향 가득한 돼지고기와 깻잎이 입안에서 어우러진다. 북적거리는 허름한 실내, 맛있는 연기가 거리를 가득 메우는 골목, 연탄 화덕 세 개에 나란히 서서 고기를 굽는 아주머니들의 뒷모습이 정겹다.

[『도시철도로 떠나는 대구 이야기 여행』, 대구광역시, 2016. 요약정리]

2 대구의 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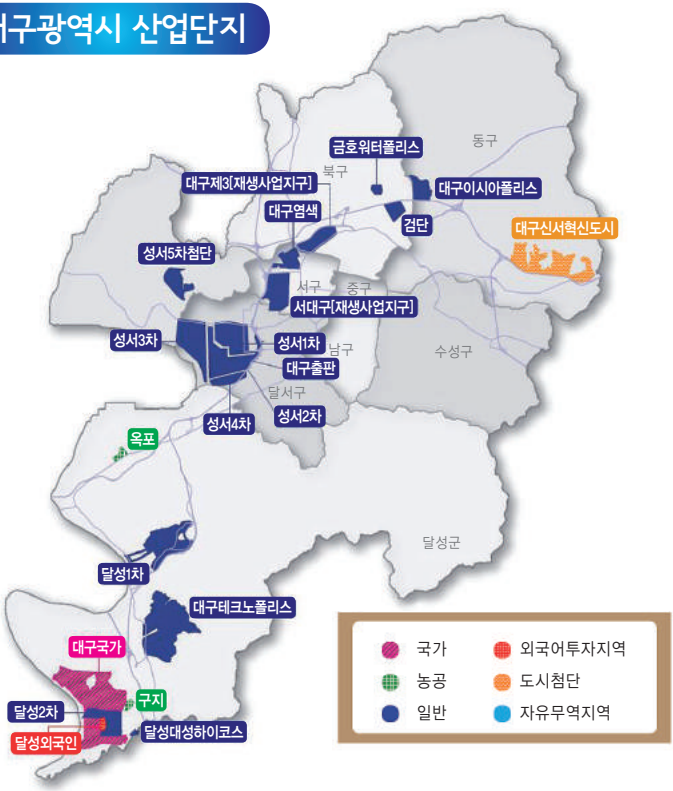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전국 각지의 도시에 공업단지들이 즐비하게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비교적 소규모 공업단지들이 조성되다가 2009년에 와서야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업단지는 시민들의 삶을 영위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야만 할 곳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동안 연마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펼치는 장의 하나가 바로 산업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구에 소재한 산업 단지의 종류와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대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본 책에서는 이와 같은 방향에서 기술하고자 합니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주로 '대구광역시 산업정보[http://www.daegu.go.kr/eco]'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1) 대구국가산업단지 [www.daegu.go.kr/eco]

▷ 위 치 : 달성군 구지면 일원(달성2차산단 주변)

▷ 조성 목적 및 특징 : 대구는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8.5㎢규모로 산업, 주거, 상업, 연구시설이 어우러진 인구 24,000명 규모의 대구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2009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과학산업단지로 지정되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인 미래형 자동차, 첨단기계, 차세대전자통신,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유치하고 성서5차 산단을 시작으로 낙동강을 따라 조성된 성서1~4차 산단, 달성1 · 2차 산단, 테크노폴

리스, 현풍 산단 등 낙동강 산업벨트와 더불어 지역의 산업축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또한, 구미(전자), 마산 · 창원(기계), 울산 · 부산(자동차) 등 영남권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계협력을 통해 기존의 섬유,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능형자동차부품, 임베디드 S/W, 태양광산업 등 첨단산업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여 자연과 첨단과학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 첨단 대구국가산업단지로 건설된다.

▷ 면적 : 8,548천m^2

▷ 사업기간 : 2009 ~ 2018. 12 (1단계 2016년)

▷ 사업비 : 1조 7,572억 원 정도

▷ 유치업종 : 차세대 전자 · 통신, 첨단기계, 미래형자동차, 비금속 광물제품(C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C27), 전기장비(C28), 기타 기계 장비(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2) 검단일반산업단지 [http://geomdan.or.kr]

- ▷ 위치 : 대구시 북구 검단로 135
- ▷ 조성목적 : 기계, 섬유산업의 기술집약, 품질향상 및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
- ▷ 조성기간(지정일) : 1974. 4 ~ 1975. 12 (지정일 : 1965. 2. 2)
- ▷ 면적 : 782천m^2
- ▷ 입주업체 : 544개
- ▷ 고용 : 8,185명
- ▷ 생산액 : 7,682억 원
- ▷ 수출액 : 8천2백만 달러

- ▷ 단지특성 : 금호강과 연접한 대구 대구제3산업단지와 대구검단산업단지는 대구가 섬유도시로 발전하는데 산파적인 역할 도모
- ▷ 입주업종 : 금속, 기계장비, 섬유 화학, 컴퓨터, 전자 및 정밀기계 관련, 종이 및 인쇄업 등

3) 달성1차일반산업단지 [http://www.dalin.or.kr/pages/main.asp]

-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 본리리 일원
- ▷ 조성목적 : 산업의 지방분산,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 ▷ 조성기간(지정일) : 1980. 5. 20 ~ 1983. 6. 30 (지정일 : 1979. 3. 22)
- ▷ 면적 : 4,078천m^2
- ▷ 입주업체 : 332개
- ▷ 고용 : 13,593명
- ▷ 고용 : 13,593명
- ▷ 생산액 : 58,223억 원
- ▷ 수출액 : 2,263백만 달러

- ▷ 단지특성 : 대구광역시 생활권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산업활동 용이
- ▷ 입주업종 : 식품, 섬유, 제지, 목재, 석유화학,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

4)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http://www.dalin.or.kr/pages/main.asp]

-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 · 유산 · 응암 · 내리 · 창리 일원
- ▷ 조성목적 : 전자 · 반도체장비, 정보통신(IT)분야 등의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단지 내 달성외국인 투자지역 포함
- ▷ 조성기간(지정일) : 1995. 11 ~ 2008. 1 (지정일 : 1991. 7. 10)
- ▷ 면적 : 2,274천㎡
- ▷ 입주업체 : 240개
- ▷ 고용 : 4,906명
- ▷ 생산액 : 14,462억 원
- ▷ 수출액 : 221백만 달러
- ▷ 단지특성 : 대구광역시 생활권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산업활동 용이
- ▷ 입주업종 : 금속 및 기계장비 제조업, 컴퓨터, 전자 및 정밀기계 제조업 등

5) 달성대성하이스코일반산업단지 [www.daegu.go.kr/eco]

-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산1번지 일원
- ▷ 조성목적 : 현재 대성하이스코 주식회사는 3공단 내 협소한 생산시설과 물류교통 등의 불편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향후 사업체의 확장 계획에 따른 건물면적 부족과 철강관련 협력체와의 교류 등으로 이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 조성기간(지정일) : 2015. 12 ~ 2017. 12 (지정일 : 2015. 12. 30)
- ▷ 총면적 : 58천㎡
- ▷ 단지특성 : 대성하이스코 주식회사의 물류교통 등의 불편함 해소 및 향후 사업체의 확장계획에 따른 산업단지 계획
- ▷ 입주업종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6) 대구염색산업단지 [www.dyecen.or.kr]

▷ 위치 : 대구 서쪽 5㎞ 지점의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 · 평리 · 이현동 일원

▷ 조성목적 : 염색가공업의 시설현대화와 집단화로 수질오염, 악취 등 도시환경 공해방지 및 국제 경쟁력 제고

▷ 조성기간(지정일):1979. 10. 1. ~ 1988. 12. 1 (지정일 : 1980. 11. 28)

▷ 면적 : 846천㎡

▷ 입주업체 : 125개

▷ 고용 : 6,179명

▷ 생산액 : 8,172억 원

▷ 수출액 : 160백만 달러

▷ 단지특성 : 구미, 포항 등과 삼각벨트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 섬유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섬유(염색) 중심의 산업단지

▷ 입주업종 : 직염, 나염, 사염 등 염색업종

7) 대구이시아폴리스 [www.esia.co.kr]

▷ 위치 : 대구 북동쪽 10㎞지점의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일원

▷ 조성목적 : 대구이시아폴리스를 고도화된 패션 · 어패럴산업의 산업추세에 부합하는 지식 · 문화 · 정보 · 통신 등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섬유 · 패션 어패럴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조성기간(지정일) : 2001. 10 ~ 2016. 5 (지정일 : 2001. 10. 30)

▷ 면적 : 1,176천㎡

▷ 입주업체 : 52개

▷ 고용 : 1,050명

▷ 생산액 : 2,011억 원

▷ 수출액 : 66백만 달러

▷ 단지특성 : 대구광역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섬유

도시로서 섬유관련공장이 집중되어 있고 수출액 중 섬유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국 화섬수출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등 섬유산업의 중심부임

▷ 입주업종 : 봉제, 패션의류, 전문상가, 백화점, 주거시설 등

■ 국제패션디자인지구 [www.dgfez.go.kr]

▷ 목적 : 국제적 패션디자인 단지 조성 및 외국 전문대학 설립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일원 (이시아폴리스)

▷ 면적 : 1,176,749㎡

▷ 사업기간 : 2003년~2016년

▷ 유치대상 : 패션, 어패럴산업, 미디어산업, 첨단IT 및 지식산업, 공공시설, 상업시설(패션스트리트 등), 주거시설

▷ 특징 :

- 주변에 풍부한 관광레저 자원과 고도화, 집적화, 네트워크화된 패션어패럴산업으로 인해연관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
- 기업운영을 위한 생산판매시설과 정주에 필요한 주택, 교육, 의료시설 등 각종 지원시설 완비로 패션산업 경쟁력

8) 대구제3산업단지 [www.dg3rd.or.kr]

▷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234번지 일원

▷ 조성목적 및 특징 : 1967년 조성된 대구 제3공업단지는 대구광역시에 입지한 최초의 공업집적화 지구로 대구광역시 공업화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1980년 후반부터 대도시 산업구조가 전통제조업에서 지식기반경제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전통제조업 중심의 제3공업단지는 침체되고 있어, 도시내부 공업지역의 구조변화에 대응해 도심형 산업단지로 정비 · 육성하는 산업재생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해 2014년 12월 재생사업지구로 고시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로 승격된 지역임

▷ 조성기간 : 1965 ~ 1968 ('13. 12월 재생사업지구 지정, '24. 12월

재생사업완료 예정)

▷ 면적 : 1,679천㎡

▷ 입주업체 : 2,531개

▷ 고용 : 12,717명

▷ 생산액 : 2,500억 원

▷ 수출액 : 75백만 달러

▷ 단지특성 : 사업지역은 대구산업벨트축 상에 위치하며 서측으로 비산염색공업단지와 연접하고 동측 일부지역이 안경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음

▷ 입주업종 : · 특화업종 – 뿌리산업 그린복합지구, 첨단부품 · 소재 융합지구, 창조형 전략산업육성지구, 안경 · 광학 고도화 지구 · 공동유치업종 – 가동중인 업종, 기타첨단산업 등

9) 대구출판산업단지 [www.dpps.or.kr]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장동, 월성동 일원

▷ 조성목적 :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의 인쇄, 출판 산업을 지식문화산업 구조로 전략적 거점을 선점하기 위함

▷ 조성기간(지정일) : 2010. 1 ~ 2013. 1 (지정일 : 2010. 1. 11)

▷ 면적 : 241천㎡

▷ 입주업체 : 87개

▷ 고용 : 998명

▷ 생산액 : 818억 원

▷ 수출액 : 3백만 달러

▷ 단지특성 : 섬유업종 중심의 대구지역 산업권을 다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

▷ 입주업종 : ·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출판업(J58), 영상 · 오디오 기록 제작 및 배급업(J5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 (J63)

10) 서대구산업단지 [www.seodaegu.or.kr]

서대구산업단지입주업체배치도

- ▷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이현동 일원
- ▷ 조성목적 : 고부가가치 혁신 경제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으로 토지효율 증대,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환경오염 업종의 이전을 통한 환경문제 해소
- ▷ 조성기간 : 1976 ~ 1978 (′13. 12월 재생사업지구 지정, ′24. 12월 재생사업완료 예정)
- ▷ 면적 : 2,662천㎡
- ▷ 단지특성 :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및 서대구I.C와 연접, 금호J.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 경부선과 서대구 복합화물터미널 등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용이
- ▷ 입주업종 : · 특화업종-스마트자동차 복합지구, 차세대기계 · 금속 복합지구, 신소재섬유 복합지구,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복합지구, 도시형 산업 · 공통 유치업종, 물류시설, 가동 중인 업종, 도시형 산업

11) 성서1~4차일반산업단지 (www.seongseo.or.kr)

- ▷ 조성목적 : 섬유편중의 지역산업구조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고, 반도체장비와 영상장치 제조 등 지식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단지로 21세기 경쟁력 있는 선진 산업도시 건설
- ▷ 위치 : 대구 서쪽 8㎞지점의 갈산동, 이곡동, 신당동, 호산동, 파호동, 호림동, 월암동, 대천동 일원
- ▷ 조성기간(지정일)
  - · 1차 : 1965 ~ 1988 (지정일 : 1965. 2. 2)

· 2차 : 1988 ~ 1993 (지정일 : 1984.4.18)
· 3차 : 1991 ~ 2002 (지정일 : 1991.12.27)
· 4차 : 2002 ~ 2006 (지정일 : 2002.12.7)

▷ 면적 : 10,701천㎡
▷ 입주업체 : 2,625개
▷ 고용 : 56,525명
▷ 생산액 : 164,173억 원
▷ 수출액 : 3,449백만 달러
▷ 단지특성 : 섬유업종 중심의 대구지역 산업권을 다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
▷ 입주업종 : 기계, 조립금속, 전기 · 전자, 신소재, 비금속광물, 섬유 및 그 외 업종

12)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www.seongseo.or.kr]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
▷ 조성목적 : 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섬유 일변도의 지역 산업을 지식기반 첨단산업으로 구조 고도화
▷ 조성기간(지정일) : 2007. 1 ~ 2012. 8 (지정일 : 2007. 1. 30)
▷ 면적 : 1,469천㎡
▷ 입주업체 : 104개
▷ 고용 : 3,167명
▷ 생산액 : 7,559억 원
▷ 수출액 : 188백만 달러
▷ 단지특성 : 대구광역시 생활권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산업활동 용이
▷ 입주업종 : 기계 · 금속, 전기 · 전자 및 통신장비 등 저공해 첨단업종

13) 대구신서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 위치 : 대구 동쪽 13㎞지점의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동 일원

▷ 조성목적 : 대구신서 혁신도시 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구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함으로써 혁신도시 내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연구, 교육기능이 복합된 의료연구도시 건설 및 의료생태계 구축

▷ 조성기간(지정일) : 2014. 12 ~ 2015. 3 (지정일 : 2014. 12. 29)

▷ 면적 : 149천㎡

▷ 단지특성 : 국가 의료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 · 육성하고자 국가적 프로젝트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첨단의료 신기술 분야에 집중투자 육성하고 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 입주업종 : 지식산업(의료연구, 교육서비스업)

■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신서첨단의료지구) [www.dgmif.re.kr]

▷ 위치 : 대구시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내

▷ 면적 : 1,030천㎡(혁신도시 4,216천㎡)

▷ 사업기간 : 2009~2038년(단지조성 : 2009~2013년)

▷ 총사업비 : 4.6조원(국비 1.1, 지방비 0.9, 민자 2.6)

▷ 용지분양 : 2012. 6. 29 ~

▷ 주요시설

- 정부시설 :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 지자체 · 민간시설 : 커뮤니케이션센터(대구시), 첨단임상시험센터, 연구기관 · 기업연구소, 벤처센터 등

▷ 목적 :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
▷ 유치대상 :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
▷ 계획인구 : 2,596인(895세대)
▷ 특징 : 우수한 R&D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입주. 전국 최고의 의료 인프라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의 고밀도 집적·연계. 한국뇌연구원(KBRI) 설립 완공 등 글로벌 연구소 입지 예정. 227개 의료관련 학과 보유 및 국내 전문인력의 20% 배출

14) 구지농공단지 [www.daegu.go.kr/eco]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과학동로42길 8 일원
▷ 조성목적 : 산업의 지방분산,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
▷ 조성기간(지정일) : 1990. 10. 29 ~ 1992. 12. 17 (지정일 : 1989. 10. 23)
▷ 면적 : 190천㎡
▷ 입주업체 : 23개
▷ 고용 : 626명
▷ 생산액 : 2,781억 원
▷ 수출액 : 8백만 달러
▷ 단지특성 : 대구광역시 생활권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산업활동 용이
▷ 입주업종 : 섬유, 조립금속, 석유화학, 금속, 식품, 제지, 비금속, 목재

15) 옥포농공단지 [www.daegu.go.kr/eco]

▷ 조성목적 : 산업의 지방분산,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473번지 강림리, 금포리 일원
▷ 조성기간(지정일) : 1989. 4. 7 ~ 1990. 12. 20 (지정일 : 1988. 4. 7)
▷ 면적 : 160천㎡
▷ 입주업체 : 47개
▷ 고용 : 619명
▷ 생산액 : 1,399억 원

▷ 수출액 : 24백만 달러

▷ 단지특성 : 대구광역시 생활권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산업활동 용이

▷ 입주업종 : 섬유, 조립금속, 석유화학, 금속, 식품, 제지, 비금속, 목재

16) 달성외국인투자지역 [www.daegu.go.kr/eco]

▷ 조성목적 : 대구지역 최초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통해 외국 첨단 기술 도입, 선진 경영 기법의 지역 내 투자유치를 촉진, 인근 산업기반시설과 연계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 도모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7-3, 847-5~21

▷ 조성기간(지정일) : 2001. 11 ~ 2008. 1 (지정일 : 2008. 9. 10)

▷ 면적 : 104천㎡

▷ 입주업체 : 5개

▷ 고용 : 16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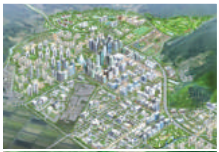
▷ 생산액 : 674억 원

▷ 수출액 : 23백만 달러

▷ 단지특성 : 대구광역시 생활권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산업활동 용이

▷ 입주업종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업종,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생산업종,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의한 기업 부설연구소 및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의한 연구개발업, 대구시의 전략적 육성 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금속 및 기계장비(D27.28.29), 컴퓨터 · 전자 및 정밀기기(D30,32,33), 자동차 및 운송장비(D34,35) 화합물 및 가공원료(D24,37), 음식료 · 담배 · 섬유 및 종이제품 (D15,16,17,21) 제조업

17) 대구테크노폴리스 [www.dgfez.go.kr]



-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 유가면 일원
- ▷ 조성목적 : 국토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대구지역 경제에 활력 부여, 영남권 중추 도시기능을 확보한 동남권 과학기술 중심도시로의 재도약, 주거 · 산업 · 연구단지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복합단지의 조성, 각종 기능이 조화된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구상 및 사업추진
- ▷ 조성기간 : 2006. 12 ~ 2013. 12 (1단계), 2014. 1 ~ 2015. 6 (2단계)
- ▷ 면적 : 7,258천㎡
- ▷ 입주업체 : 84개
- ▷ 고용 : 2,616명
- ▷ 생산액 : 1,876억 원
- ▷ 수출액 : 161백만 달러
- ▷ 단지특성 : 대구광역시 생활권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산업활동 용이
- ▷ 입주업종 : 바이오, 섬유, 정보 · 통신소프트웨어, 메카트로닉스, 전기 · 전자, 자동차 관련 제조, 연구개발업 등

18) 수성의료지구 [www.dgfez.go.kr]

- ▷ 위치 : 대구 수성구 대흥동 일원
- ▷ 목적 : 의료, IT, SW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유치
- ▷ 면적 : 976,497.1㎡
- ▷ 사업기간 : 2008 ~ 2018년
- ▷ 유치대상 : 특화전문병원, 의료연계 기관, 의료관광시설, 첨단 IT기업 등

▷ 특징 :

- 특화 전문병원 설립운영을 위한 협력파트너 및 우수의료인력 확보 용이 (의과대학 5개, 간호대학 7개, 약학대학 2개 등이 지역에 소재하여 수준높은 의료인력 확보가 용이) 의료인력 인프라가 완비된 첨단 연구개발 활동의 최적지
- 대한민국 한의학의 중심지로 동서양 의학간의 접목 및 대체의학 연구의 메카(통합의료 활성화)
-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풍부한 국내외 수요 (대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을 통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해외 고급의료 수요 확보가 용이함) SW 융합클러스터(국책사업) 조성으로 관련 인프라 확대 ♧

제6장

대구의 교육기관을 찾아서

제6장 대구의 교육기관을 찾아서

대구 교육기관의 역사적 자취는 '제2장 대구의 정신문화를 찾아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향교와 서원 그리고 서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의 역할을 했던 서원이 대구에 23개, 향교가 2개 있었던 것을 보면 대구지역의 교육열도 지대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수많은 서당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제1장 대구의 이미지를 찾아서'에서 살펴 본 것처럼 대구 시민들 중에 3%는 대구를 대표하는 이미지 중에 '교육산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교육 수도 대구'라 지칭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구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 덕분에 대구에서의 근대식 교육기관도 비교적 일찍 설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장에서는 대구에 설립된 근대식 교육기관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초·중·고·대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는 『대구시사』(대구광역시, 1995), 「대구향토역사관」, 「대구교육박물관」 및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1 개화기

1) 소학교

정부가 주도하는 학교의 설립은 1895년 2월 고종의 '교육입국조서'에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896년 대구에도 정부가 세운 최초의 근대학교인 **대구부 공립소학교**가 설립되었다. 1905년에는 심상과가 **관립 대구보통학교**로 인계되었고, 고등과는 1909년 구 대구향교로 옮겨져 **사립 협성학교**로 개칭되었다가 1916년 없어지고 관립 대구보통학교에 인계되었다.

대구부 공립소학교

사립달성학교 창설취지급교칙

광무3년7월

그리고 1899년(광무3년) 7월에 설립된 **사립 달성학교**는 경상도 관찰 영내에서 개교되었다. 달성학교는 대구 시민에 의한 최초의 학교라 점에서 의의가 지대하다. 1900년에는 **희도심상소학교**가, 1902년에는 **대남**

남자소학교(선교사 아담스 설립)와 **신명여자소학교**(마루다 부루엔 설립)가, 1906년는 **덕산공립심상소학교**가, 1908년에는 **해성 심산소학교**가 설립되었다.

2) 중등학교

계성중학교

대구의 중등학교는 1906년(광무10년) 10월15일에 개교한 **계성중학교**가 효시이다. 선교사 아담스가 그의 자택(현 대구제일교회)에서 27명의 생도를 데리고 교육을 시작하였다. 1907년에는 선교사 마르다 부루엔이 **신명여자중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1910년 구한말에 대구의 초등학교는 4개, 중등학교는 15개에 이르렀고, 학생 수는 619명에 달하였다.

2 일제치하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일제는 자신의 정책에 '충량(忠良)한 국민'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국민을 우민화(愚民化)하고 나아가 한민족을 말살하려는 교육정책을 폈다. 하지만 뜻있는 우국지사들에 의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학교가 설립되었다. 1922년까지 설립된 보통학교와 소학교는 11개가 있었으며, **고등보통학교** 및 중학교에는 **관립대구사범학교**(1923), **대구공립농림학교**(1910), **대구공립상업학교**(1923), **대구공립공업학교**(1925), **경북공립중학교**(1906), **경북고등여학교**(1925), **대륜중학교**(홍주일,김영서 1921) 등이 있었다. 기타 사설학원에 **대구배영학원** 등 8개가 있었다. [대구시사, 대구광역시, 1995, 문화 5-1, 86~92쪽 요약정리]

대구의학전문학교

고등교육기관은 **대구의학전문학교**가 있다. 1910년 자혜의원이 개원되었는데, 1923년 그 안에 의학강습소를 설치하였다. 1925년에는 도립대구의원으로 개칭하고 도립의학강습소를 두었는데, 1933년 공립대구의학전문학교로 되었다.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설치된 초등학교는 모두5개이며, 중등학교에는 **영남중학교**(주덕근,김재명 1935)가 있다.

3 광복 직후

1946년 미군정청은 교육심의회의안을 수용하여 의무교육 실시요강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취학 적령이 넘는 7세 이상 12세까지의 아동을 취학하도록 추진하였다. 1945년 광복 당시에 전국 초등학교 수는 2,834개교였으며, 대구는 20개교에 지나지 않았고 학생 수는 12,300명이었다.

그리고 중학교는 14개교에 학생 수는 5,300명이었다. 즉 **대구공립농림학교, 경북공립중학교, 대구공립상업학교, 대구공립중학교, 대구사범학교, 대구공립직업학교, 대구공립상업학교, 계성학교, 대륜중학교, 대구공립고등여학교, 경북공립고등여학교, 대구신명여학교, 대구여자기예학교, 오산농림실수학교(능인중학교)**가 있었다.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학교(대구의학전문학교, 대구농업전문학교)가 2개교에 300명의 학생이 있었다. 그 후 **대구사범학교**가 1946년 대구사범대학으로 대구 농업전문대학이 **대구농과대학**, 대구의학전문학교가 1947년 **대구의과대학**으로 각각 승격되어 대구의 최고 학부가 되었다. 사립대학으로는 1947년 대구문리과대학이 출발하였는데 이후 **대구대학**으로 인가를 받았다.

다음 자료의 원문은『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가지고 왔으며, 사진은 해당학교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 광복 이전의 중·고등학교

□ 대구공립농림학교 (현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387

▷ 홈페이지【http://www.dma.hs.kr】

- 교훈 : '높은 뜻 바른 길'
- 역사와 현황 : 1910년 대구광역시 삼덕동에서 대구공립농림학교로 설립되었다. 농업 진흥을 꾀하고 농사 개량과 기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1944년에는 4년제로 변경하였고, 1946년 6년제 대구농림중학교, 1951년 3년제 대구농림고등학교로 개편하고, 1955년 수성동으로 이전하였다. 1960년 대구동중학교를 병설하였다가 1970년에 분리하였고,1981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2000년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을 개칭하였고, 2017년 교명을

다시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로 변경하였다.

대구농림고등학교는 1919년 3·1운동과 1920년대의 항일투쟁에 앞장섰으며, 1930년대의 영농기술 보급운동으로 근대적인 농업교육에 기여하였다. 설립 초기부터 매년 추수가 끝난 다음 '신춘제'를 올리다가 광복 후부터는 추수감사제로 개칭하여 거행하고 있으며, 종합전시회와 과별 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전통적인 행사로 이어 오고 있다.

2016년 2월 제103회 졸업식을 가졌고, 졸업생 총수는 2만 4806명이다. 2016년 현재 6개 학과 30학급에 재학생 788명에 교원은 73명이다.

□ 경북공립중학교 (현 경북고등학교)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9

▷ 홈페이지【www.kyeongbuk.hs.kr】

- 교훈 : '아는 사람[知], 생각하는 사람[覺], 행하는 사람[行]'
- 역사와 현황 : 1916년 대구관립고등보통학교로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설립된 관립고등보통학교로 민립 협성학교 재학생 중에서 선별한 일부 학생과 신입생 등 121명의 학생으로 대구향교 명륜당에서 개교하였다.

1917년 대봉동으로 이전하고 1925년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라 칭하게 되었다. 1938년 경북공립중학교로 개편하고, 1943년 수업연한이 4년으로 단축되었다.

광복 후 학제변경으로 다시 6년제가 되었다가 다시 1950년 학제 변경으로 3년제 고등학교인 대구고등학교로 개칭하고 경북중학교와 분립하여 개교식을 거행하였다가 다시 경북고등학교로 환원하였다. 1959년 학교 위치와 학칙 변경으로 대봉동 교사에서 중·고등학교 통합 합교식을 거행하였다.

1972년 중학교 평준화조처로 경북중학교가 폐교되고 경운중학교가 신설되었다. 1975년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되었고, 1985년 현재 부지로 이전하였다.

학생활동으로는 3·1운동 당시 전교생 239명 중 200여 명이 참가하여 대구 만세운동을 주동한 데 이어 항일동맹휴학·『월남망국사』발표사건·비밀결사사건 등 민족정기를 밝히는 항쟁이 여러 차례 있었다. 광복 후 1960년 2월에는 자유당 정부의 횡포에 항거하여 2·28대구학생의거를 주동함으로써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을 만들었다.

2010년 2월 제 9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으며, 총 졸업생수는 4만 6631명이다. 2010년 3월 현재 43학급에 1,684명의 재학생에 교직원은 108명이다.

□ 대구공립상업학교 (현 대구상원고등학교)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

▷ 홈페이지【www.daesang.hs.kr】

- 교훈 : '푸른 꿈을 안고 오늘도 힘차게'
- 역사와 현황 : 1923년 대구공립상업학교로 개교하였다. 당시 상공 도시의 면모를 갖춘 대구광역시의 급격한 인구팽창으로 인한 상업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중구 대봉동의 신축 교사로 이전하였다. 1928년 52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42년 대구상업학교 재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비밀단체인 태극단(太極團)을 결성하여 구국투쟁을 전개한 항일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1951년 교명을 대구상업고등학교로 개칭하였으며, 1972년 야간부를 설치하였다.

1984년 신축교사인 달서구 상인동으로 이전하였고, 1998년 12월 교명을 대구상업정보고등학교로 개명하게 되었다. 2003년 상업계를 일반계로 계열 전환과 더불어 교명을 대구 상원고등학교로 개명하였다.

2010년 2월 제82회 졸업식을 가졌으며, 총 졸업생 수는 4만 2,530여명을 배출하였다. 2010년 3월 현재 41개 학급에 재학생 1,591명에 교직원은 106명이다.

□ 대구공립중학교 (현 대구중학교)

▷ 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258

▷ 홈페이지【http://www.daegu.ms.kr】

- 교훈 : '부지런하고 참되게 살자'
- 역사와 현황 : 1921년 중학교 관제 개정으로 대구중학교로 설립인가(5년제)받아 개교하였다. 1922년 대구공립중학교로 칭하게 되었다. 1951년 교명을 대구제2중학교로 개정한 후, 1953년 대구중학교로 본명칭을 환원하였다.

학급은 1946년 3학년 9학급, 1947년 5학년 18학급, 1948년 6학년 22학급, 1949년 6학년 26학급, 1950년 6학년 27학급, 1954년 3학년 25학급, 1956년 3학년 24학급, 1970년 30학급, 1980년 36학급으로 증설되었다가 학생 수의 감소로 현재는 16학급으로 축소되었다.

2010년 3월 현재 16학급에 재학생은 565명이고 교직원은 총 4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2월 제65회 졸업식을 하였고, 총 29,32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학교이다.

□ 대구사범학교 (현 경북대 사범대학, 경북대 사범대학 부설 중 · 고등학교)

▷ 위치 : [경북대사범대학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1)]
[경북대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대구시 중구 대봉동 60-18)]

▷ 홈페이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http://knutc.knu.ac.kr)】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학교 (http://ivy.knu.ac.kr)】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http://www.knu.hs.kr)】

- 역사와 현황 : 1923년 설립된 경북사범학교를 개칭한 대구사범학교(1929~1946)는 일제 강점기의 중등교원 양성(본과) 및 중·고등학생 교육(심상과)을 목적으로 한 학교였다. 1946년 대구사범대학으로 국립 승격하였다. 현재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및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로 이어진다.

그리고 1950년 설립된 대구사범학교(1950~1962)는 대한민국의 초등교원 양성 학교였다. 1962년에 경북대학교 병설교육대학으로 개편되었다가 현재는 **대구교육대학교**으로 이어진다

□ 대구공립직업학교 (현 대구공업고등학교)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811

▷ 홈페이지 【www.tktech.hs.kr】

- 교훈 : '성실, 창의, 협동'
- 역사와 현황 : 1925년 대구광역시 장관동에 대구공립보습학교로 설립되었다. 1937년 3년제 대구공립직업학교로 개편하고 이듬해 현재의 위치로 신축 이전하였다. 1944년 4년제 대구공립공업학교로 개편되었다가 광복 이듬해 6년제 대구공립공업중학교로 개편되었다.

1950년 대구공업중학교와 대구공업고등학교로 개편하였다가 이듬해 대구공업중학교를 폐지하였다. 1954년 방직과, 1961년 자동차과를 신설하여 총 33학급으로 증설되었다. 1973년 야간부 5학급을 증설하였으며, 1998년에 학칙변경으로 야간부가 폐지되었다.

한편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고 우수기능인을 발굴하여 국가의 기술기반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기능훈련을 하고 있는데, 1971년 독일 뮌헨세계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으며, 교육부지정 시범공고로서

해외진출기능공을 양성·배출하였다.

2017년 총 졸업생수는 5만 3528명이다. 7개 학과에 41학급에 1,208명의 재학생과 교직원은 148명이다.

□ 계성학교 (현 계성중 · 고등학교)

▷ 위치 : [계성중학교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77-1)]
[계성고등학교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494)]

▷ 홈페이지 【계성중학교(www.keisung.ms.kr)】
【계성고등학교(www.keisung.hs.kr)】

- 교훈 :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 역사와 현황 : 1906년 미국인 장로교 선교사 아담스(James E. Adams)박사가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의 선교사 자택을 임시교사로 정하여 창설한 학교로서 교장인 아담스와 선교사는 이만집을 교사로 삼아 27명의 학생으로 수업을 개시하였다. 이는 영남 지방 최초의 중등교육 기관이었다.

1908년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에 영남 최초의 이층양옥으로 신축한 교사 아담스관으로 이전하였다. 제1회 졸업식은 1911년에 있었으며 졸업생은 13명이었다. 1930년대는 축구부의 활동이 활발하였고, 기술교육 실현을 위해 계성목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1910년 학생비밀단체 양일회가 일제의 강점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고, 1919년 3·1운동 때 대구에서는 교사 백남채의 지휘 아래 목사 이만집, 졸업생 손인식·김정오 등이 시내의 남녀학생을 규합하여 민족의 독립을 부르짖으며 시가행진을 하였다.

1945년 계성학교가 폐교되고 대구공산중학교라는 명칭으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광복과 함께 계성중학교로 교명을 되찾았고, 1950년 계성고등학교와 계성 제2중학교로 나누어졌다. 1963년 부속초등학교가 개교되었으며, 1970년 계성유치원이 설립되었다.

2000년부터 여학생 3학급이 편성 운영되었고, 2009년 7월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되었다. 2016년 중구 대신동에서 서구 상리동으로 이전하였다.

2010년 2월 97회 졸업식을 가졌으며, 2010년 현재 34학급에 학생 수는 1,279명, 교직원수는 81명이다.

□ 대구공립고등여학교 (현 대구일중학교)

▷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400-4

▷ 홈페이지【www.tgil.ms.kr】

- 교훈 : '근면한 사람이 됩시다.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예절바른 사람이 됩시다.'
- 역사와 현황 : 1915년 대구공립고등여학교 설립을 인가 받았으며, 1916년 대구 동인동에서 개교하였다.

1946년 대구여자중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으며, 1951년 학제 변경에 따라 3년제 중학교로 개편되었다.

현재의 교사 이전은 1984년에 이루어졌다. 2002학년도 남녀공학으로 변경되면서 대구일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넓은 교지와 아름다운 정원, 방대한 양의 도서를 구비한 설영도서관을 비롯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시설을 갖춘 대구의 명문학교로서 그동안 대구 지역의 여성 인재발굴과 육성에 경주해왔다.

2010년 현재 42학급에 재학생은 1,601명이며, 교직원은 78명이다. 2010년 제91회 졸업식을 하였고, 총 36,49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 대륜중학교 (현 대륜중 · 고등학교)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산241

▷ 홈페이지【대륜중학교(www.daeryun.ms.kr)】

【대륜고등학교(www.daeryun.hs.kr)】

- 교훈 :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 남을 사랑하자.'
- 역사와 현황 : 1921년 애국지사 홍주일·김영서·정운기 등 3명이 인재양성을 통한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사설학원 강습소인 교남학원을 설립하였다. 당시 대구부 팔운정에 있던 우현서루를 가교사로 하여, 설립자 겸 초대 교장에 정운기가 취임하였다. 당시 교사로 근무했던 시인 '이상화'와, 당시 학생이었으며 시인·독립운동가였던 '이육사'를 배출하였으며, 투철한 군인정신을 보여준 이인호 소령도 본교를 졸업하였다.

1924년 대구교남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교사를 남산동으로 이전하였으며, 이듬해 고등과에 여자부를 신설하였다가 1년 뒤에 폐지하였다.

1940년 교명을 대륜학교로 변경하고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였으며, 1942년에는 지방 유지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재단법인 대봉교육재단을 설립하고 대륜중학교로 개편하고 수성동으로 교사를 이전하였다.

1950년 대륜고등학교와 대륜중학교로 개편되었고, 1964년 재단법인을 학교법인으로 변경하였다. 1979년 중학교와 분리되어 운영되었고, 1988년 12월에 현재의 만촌동 교사로 신축이전하게 되었다.

2010년 2월 제83회 졸업식을 거행하였고, 총 졸업생 수는 3만 510명을 배출하였다. 2010년 현재 42학급에 재학생 1,707명, 교원 96명이다.

□ 경북공립고등여학교 (현 경혜여자중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 위치 : [경혜여자중학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4동 3056-26)]
[경북여자고등학교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1동 714-2)]

▷ 홈페이지 【경혜여자중학교 (www.kyoungghy-gm.ms.kr)】
【경북여자고등학교 (www.gbg.hs.kr)】

- 교훈 : ['경혜여자중학교 '깨끗하게, 바르게, 부지런하게']
[경북여자고등학교 '성실, 협조, 순결']
- 역사와 현황 : 1926년 대구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로 설립 인가 되었으며, 대구시 장관동에 개교기념식을 하였다. 1927년 대구시 남산동 신교사로 이전 하였으며, 1938년 교육령 개정에 의하여 학교명을 경북공립고등여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경혜여자중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1951년 학제 변경에 의하여 **경북여자고등학교**로 개칭하였고, 1960년 고등학교와 분리되어 경북여자중학교로 재발족 인가 되었다. 1970년 **경혜여자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1982년 현재의 대명동 교사로 이전하였다.

그동안 대구 경북 지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명문학교로서 지역 여성 인재발굴과 육성에 경주하고 있다.

경혜여자중학교는 2010년 현재 17학급(특수2학급)으로 편성된 여자중학교이며, 재학생은 596명이며, 교직원은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1,01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경북여자고등학교는 2010년 2월 졸업생은 81회에 3만 3,174명을 배출하였다. 2010년 3월 현재 38학급에 재학생 수는 1,392명이며, 교직원은 100명이다.

□ 대구신명여학교 (현 신명고등학교)

▷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206

▷ 홈페이지 【www.s-m.hs.kr】

- 교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 역사와 현황 : 1902년 선교사 마르타 스콧 브루엔(Martha Scott Bruen, 한국명 부마태) 여사가 존슨 부인(Edith M. Parker)의 바느질반(Sewing Class)과 놀스양(Miss Nourse)이 가르치던 반을 합하여 대구 선교지부(Daegu mission center)에 신명여자소학교(Girls' Primary School)를 설립 개교하였다.

1907년에는 남산정 동산(지금의 동산길 17)에 신명여자중학교를 설립 개교하게 되었다.

1919년 이재인 선생 지도 아래 전교생이 대구 3·8만세 운동에 참가하였으며, 1927년 대구신명여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44년 4월에 일정 당국의 강요에 의해 교명을 대구남산여학교로 변경하였다가 대구 남산고등 여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이후 1945년 광복과 동시에 교명을 신명여자중학교로 환원하였다. 1951년 8월 학제변경으로 신명여자중학교와 분리되어 신명여자고등학교로 개편하였다.

1967년 10월 개교 60주년기념 동창회 사업으로 삼각지를 매입하여 교지를 확장하였으며, 1972년 10월에는 개교 65주년 기념사업으로 '신명 3·1운동 기념탑'이 건립되었다.

2004년 남녀공학이 시행되면서 교명을 신명고등학교로 변경 개칭되었다. 2007년에는 개교 100주년 및 창학 105주년을 맞아 휘경도서관 및 신명역사관을 개관하였다.

2010년 현재 30학급에 재학생수 1,065명에 교직원은 74명이다. 제96회 졸업식을 거치며 총 2만 435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 대구여자기예학교 (현 대구남산고등학교)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가 96-16

▷ 홈페이지 【www.tgns.hs.kr】

- 교훈 : 먼저 의를 구하자, 제 할 일을 다하자, 서로 섬기고 돕자
- 역사와 현황 : 1907년 미국 선교사 부인 마르다 스코트 부르엔(Martha Scott

Bruen)씨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수업을 시작한 신명여학교가 모태로서 대구지역 첫 여성 교육 기관이다. 이후 1944년 김충학이 대구남산여학교로 설립하였다. 재단법인 대구남산여학교 유지 재단이 설립되어 폐교된 신명여학교 및 대구기예학교 생도로 수업을 실시하다 1945년 일제 교육 정비령에 의하여 교명을 대구 남산고등여학교로 변경되었고 광복과 함께 신명여자중학교로 환원하게 되었다.

1953년 학제변경으로 대구남산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신명여자중학교를 병설 운영하게 되었다. 1962년 3월에 9학급으로 증설 인가를 받아 15학급으로 운영하였으며, 1986년 3월에 학교범인 명칭을 대구남산학원으로 변경 인가되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양성평등연구학교를 운영하였고, 2003년 남녀공학이 되면서 대구남산여자고등학교를 대구남산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2007년 개교 100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2010년 2월에 제96회 졸업식을 가졌으며, 총 졸업생수는 2만 4,717명을 배출하였다. 2010년 3월 현재 39학급에 1,531명의 재학생과 90명의 교직원이 있다.

□ 오산농림실수학교 (현 능인중 · 고등학교)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 800

▷ 홈페이지 【능인중학교(www.neungin.ms.kr)】
【능인고등학교(www.neungin.hs.kr)】

- 교훈 : '밝게 알고 올바르게 행하자'
- 역사와 현황 : 1939년 대한불교 조계종 경상북도 5본산 교구사찰 영천 은해사 경내에 오산불교학교로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이 극에 달하여 나라의 젊은이들이 진로를 잃고 방황하게 되자, 5본산 사찰 주지회의에서 국사와 국어교육을 통한 호국불교의식으로 사라져 가는 민족정신을 일깨우고자 학교를 세우게 되었다.

개교 당시 수업연한은 5년제로서 5학급의 중등과 125명이 입학하였으며, 근대교육에 입각한 민족계몽교육에 진력하였다.

광복 후 오산농림실수학교로 개편, 1946년에 수업연한 4년제, 4학급의 능인중학교로 설립인가를 얻어 1950년 이천동 교사로 이전했다. 1951년 학제 개편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되었으며, 1954년 남구 대봉동 신축교사로 이전하였고, 1968년에 중·고 분리 운영하였다. 1975년 30학급으로 편성 인가를 받았고, 1986년에는 36학급으로 증설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현재의 위치로 교사를 이전하였다.

2010년 제69회 졸업식을 가졌으며, 총 졸업생수는 2만 5,778명이며, 2010년 현재 42개 학급에 학생 수는 1,637명에 교직원수는 96명이다.

4 1950년대

서울피난대구연합중학교

6 · 25전쟁으로 대구는 피난민이 쇄도하였을 뿐 아니라 학교시설을 군에서 씀으로 해서 대구의 학교교육이 극심한 시설 부족에 봉착하였다. 게다가 피난민 학생까지 수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노천교육, 야외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 14개교에 학생 11,705명, 교사 134명이 있었다.

1952년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이로부터 의무교육이 추진되어 대구시에 70%였던 취학률이 1957년에 100%취학하였다. 그리하여 1958년도 대구시 국민학교는 44개교에 학급수 1,167개, 학생 81,626명, 교원 1,146명이 있었다.

1949년에 중등학교는 16개교에 학생은 31,183명, 교원은 514명이었다. 그러나 6 · 25전쟁이 일어나자 피난민들이 대구에 밀려옴에 따라 학생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피난학교를 설치하거나 연합 중 · 고등학교를 개교하여 비상조치를 강구하였다. 이 당시 중 · 고등학교는 모두 26개교가 있었다. 1951년에는 '서울피난대구연합중학교'를 개설 운영하다가 1954년 폐쇄되었다. 국민학교 취학률이 높아지고 교육열이 높아짐에 따라 1959년에는 중학교가 31개교로 증가하여 366학급에 학생 수는 22,943명이었고, 교원도 566명이 되었다.

1950년대 대구시 중학교 현황

① 공립 남자중학교 현황

학 교 명	설 립 일 자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병 설 학 교
경북사대부속중학교	1946. 10. 15	대봉동 60	21	1,284	34	경북사대부고
경 북 중 학 교	1916. 5. 15	대봉동 124	22	1,334	33	경북고등학교
대 구 중 학 교	1921. 4. 19	대봉동 257	24	1,461	35	
경 상 중 학 교	1951. 8. 20	대명동 1895	33	1,995	50	
경 일 중 학 교	1954. 5. 17	원대동 1505	24	1,487	35	
대 구 동 중 학 교	1960. 2. 28	수성동 32	15	917	18	

② 공립 여자중학교 현황

학 교 명	설 립 일 자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병 설 학 교
경 북 여 자 중 학 교	1960. 2. 18	남산동 710	22	1,338	32	
대 구 여 자 중 학 교	1915. 11. 8	동인동 42	24	1,452	35	경북여자고등
제 일 여 자 중 학 교	1951. 8. 20	봉산동 230	24	1,449	35	

③ 사립 남자중학교 현황

학 교 명	설 립 일 자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병 설 학 교
영 남 중 학 교	1947. 4. 18	대명동 2461	30	1,837	43	영남교육재단
계 성 중 학 교	1906. 10. 15	대신동 277	30	1,889	52	계성교육재단
대 륜 중 학 교	1942. 4. 9	수성동 624	30	1,815	50	대륜교육재단
능 인 중 학 교	1939. 10. 9	대봉동 650	29	1,785	47	능 인 학 원
대 건 중 학 교	1946. 9. 20	남산동 225	30	1,821	33	대구교구천주교유지재단
영 신 중 학 교	1946. 10. 17	신천동 557	28	1,724	37	영신교육재단
대 성 중 학 교	1945. 10. 20	봉덕동 565	21	1,297	26	대성교육재단
오 성 중 학 교	1952. 2. 8	수성동 96	27	1,610	18	오 성 학 원
대 구 서 중 학 교	1952. 9. 22	비산동 240-2	19	1,118	22	춘 추 숙
성 광 중 학 교	1952. 10. 26	칠성동 133	39	2,422	44	남산교육재단
청 구 중 학 교	1954. 12. 31	신천동 850	28	1,733	31	청 구 학 원
심 인 중 학 교	1953. 6. 5	대명동 1745	15	928	25	위 덕 학 사
중 앙 중 학 교	1956. 2. 28	신천동 1145	26	1,583	53	경북공업교육재단
경 구 중 학 교	1961. 3. 7	대명동 2380	24	1,456	25	〃
협 성 중 학 교	1955. 2. 28	대명동 2148	35	2,109	42	자 혜 학 원
선 목 중 학 교	1966. 1. 7	봉덕동 99-3	2	90	5	대구교구천주교유지재단

④ 사립 여자중학교 현황

학 교 명	설 립 일 자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효 성 여 자 중 하 교	1949. 8. 30	대명동 2435	30	1,807	42
상 서 여 자 중 학 교	1955. 2. 25	장관동 1	24	1,482	45
경 명 여 자 중 학 교	1959. 12. 31	칠성동1가 11	28	1,703	32
신 명 여 자 중 학 교	1907. 10. 15	수성동 96	30	1,820	26
성 명 여 자 중 학 교	1907. 10. 23	남산동 2	24	1,464	42
원 화 여 자 중 학 교	1953. 2. 26	대신동 5	30	1,807	30
경 복 여 자 중 학 교	1961. 3. 25	대명동 2148	38	2,319	41
경 일 여 자 중 학 교	1964. 12. 5	대명동 2232	21	1,303	15
상 서 여 자 중 학 교	1966. 3. 19	비산동 240	20	1,208	24
구 남 여 자 중 학 교	1955. 4. 15	내당동 252	23	1,471	24
정 화 여 자 중 학 교	1967. 9. 25	상동 80	12	714	17

5 1960년대 ~ 2018년 현재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인 특유의 교육열에 힘입어 수많은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학제도 개편되면서 교육은 발전하였습니다. 즉 소학교는 국민학교로 다시 **초등학교**(1996년)로 명칭을 바꾸었고, 중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1951년)로 분리되었으며, 일제치하에 설립되었던 전문학교는 1945년 광복 후에 **대학교**로 명칭을 바꾸었고, 1960년대 이후 주로 설립된 2년제 **전문학교**도 요즈음은 **대학(교)**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1960년대 이후 수많은 교육기관들이 해마다 설립되었으므로 지면 관계상 2018년 현재 설립 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을 요약하여 정리하겠습니다. 1899년 달성학교 건립으로 시작된 대구의 근대식 교육기관을 2018년 학제에 맞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대구광역시교육청(http://www.dge.go.kr)학교찾기]

1) 대구광역시 소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2018년 4월 1일 현재 대구광역시에는 **유치원**이 369개원(휴원 포함)이 설립되어 있으며, 38,936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고, 3,002명의 교원이 재직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229개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재학 중인 학생은 124,708명이며, 재직 중인 교사는 8,900명이다.

중학교는 125개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재학 중인 학생은 68,893명이며, 재직 중인 교사는 5,552명이다.

일반고등학교는 52개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재학 중인 학생은 51,583명이며, 재직 중인 교사는 3,841명이다.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는 9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재학 중인 학생은 4,464명이며, 재직 중인 교사는 544명이다.

특성화고는 16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재학 중인 학생은 14,738명이며, 재직 중인 교사는 1,263명이다.

자율고도 16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재학 중인 학생은 15,879명이며, 재직 중인 교사는 1,236명이다.

특수학교는 7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재학 중인 학생은 1,608명이며, 재직 중인 교사는 503명이다.

기타학교는 3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재학 중인 학생은 414명이며, 재직 중인 교사는 38명이다.

이상의 기관을 합하면 **828개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재학 중인 **학생은 320,809**명이며, 재직 중인 **교사**는 **24,879**명이다.

위와 같이 설치된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이 교육의 방향을 잡고 있다.

2018년도 역점추진과제는 1.인문소양교육을 통한 실천 중심 인성교육 강화 2.즐거운 몰입이 있는 협력학습 정착 3.상상을 현실로, 컴퓨팅 사고력 중심 소프트웨어교육 강화 4.진심어린 자녀사랑,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로 잡고 있다.

2) 대구광역시 개교 및 소재 대학교 (가나다 순)

(1) 경북대학교

-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 홈페이지【http://www.knu.ac.kr】

국립 종합대학교로서 1923년에 설립된 대구사범학교와 1923년에 설립된 대구의학전문학교, 1944년에 설립된 대구농업전문학교가 광복 이후 1946년 9월에 국립대학으로 승격되어 각각 대구사범대학·대구의과대학·대구농과대학으로 개편하였다가, 종합대학으로 통합되면서 경북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으로 새로이 출발하게 되었다.

초대 총장에는 고병간이 취임하였으며, 사범대학·의과대학·농과대학과 함께 문리과대학·법정대학을 신설하여 5개 대학에 24개 학과를 설치하였다. 발족과 함께 의대 부속병원·부속 간호학교·사대 부속고등학교·부속중학교·부속국민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이듬해 10월에 대학원을 설치하였다.

1952년 복현캠퍼스는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에, 동인캠퍼스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에 위치하여 종합대학으로 발족하였다. 1962년에 교육대학을 병설하였다가 이듬해에 대구교육대학으로 분리되었으며, 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원연수원을 설치하였다. 1967년 사범대학 부설 임시중등교원양성소가 설치되고, 1969년에 교육대학원, 1970년에 공과대학, 1972년에 경상대학이 신설되었으며, 1979년에 치과대학, 1980년에 행정대학원, 1981년에 경영대학원과 보건대학원, 1982년에 예술대학을 신설하고, 인문사회과학대학을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으로 분리·개편하였다. 1985년에 산업대학원, 1988년에 수의과대학을 설치하였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경북대학교병원으로 개칭하였다. 1996년에 국제대학원을 신설하였다.

2000년에는 정책정보대학원과 자율전공부가 설치되었고, 2003년 3월에는 수사과학대학원, 2005년에는 간호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었으며, 2006년 3월에는 의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었다. 2008년 3월에는 경북대학교가 국립상주대학교와 통합하였으며, 이에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메인캠퍼스는 IT, 차세대지능기계 및 메카트로닉스, 물리 및 에너지 분야를, 상주캠퍼스는 생태환경, 축산바이오 분야를 특성화하고 있다. 2009년 3월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었으며, 2011년 3월에는 약학대학이 신설되었다.

교훈은 '진리, 긍지, 봉사'이다. 즉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추구해야 할 최고, 최상의 가치로서 진리탐구에 부단히 힘쓰고, 국가와 민족은 물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해 내고 있는 본교의 역사와 전통 및 미래의 비전에 드높은 긍지를 가지며, 책임있는 지성인으로서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인류공동체에 봉사하는 참된 지성인, 자랑스러운 전문인, 실천적인 봉사인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53년 3월 28일에 제1회 졸업생 211명을 낸 후, 2018년 2월 현재 학사 180,546명, 석사 45,793명, 박사 8,54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2018년 현재 재적학생 38,383명(대학 31,474명 대학원 6,909명), 전임교원 1,170명, 17개 대학과 66개 학과(34개 학부), 12개 대학원, 118개 연구기관이 있으며, 캠퍼스(교지기준)는 1,380,427㎡(대구캠퍼스, 상주캠퍼스, 부설 초등학교, 부설중·고등학교)의 초대형 거점국립대학교로 발전하여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2)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 홈페이지【http://www.kmu.ac.kr】

1954년 3월 20일에 개교한 사립 종합대학으로 교훈은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이며, 마스코트는 '사자'이다. 계명대학교의 전신은 1954년 3월 미국 북장로회 주한 선교부의 교회지도자들이 설립한 계명기독학관이다. 1955년 2월 계명기독학교, 1956년 2월 계명기독대학을 거쳐 1965년 5월 계명대학으로 변경하였다. 1978년 3월 종합대학으로 승격, 지금의 교명인 계명대학교로 바꾸었다.

1967년 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았다. 1979년 외국학대학을 설치하고, 이공대학에 의예과 설치인가를 받았다. 1980년 대구 동산기독병원과 합병하여 의과대학 부속 동산병원을 열었다. 1997년에는 국제전문 실무인력양성 국책대학으로 선정되었다. 2011년 약학대학을 신설하였다. 2012년 8월 환경부·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저탄소 그린캠퍼스'로 선정되었다.

2017년 기준 16개 단과대학(인문국제학대학, 사범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음악공연예술대학, 미술대학, Artech College, 체육대학, Keimyung Adams College, Tabula Rasa College, 약학대학, 이부대학), 9개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정책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 예술대학원,

스포츠산업대학원, 유아교육대학원, 융합공학대학원, 글로벌창업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기관으로 동산도서관, 출판부, 신문방송국, 명교생활관, 창업지원단, 계명아트센터 등이 있다. 기숙사는 1,097실을 갖추고 2,455명을 수용하고 있다. 도서관은 190만 7,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의과학연구소, 뇌연구소, 국제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등 14개의 부설연구소와 심혈관연구소, 보건의료정보기술연구소, 이민다문화센터, 한국민화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한국첨단방재연구소, 녹색융합기술연구소, 미디어콘텐츠연구소, 산학협력연구소, 의공학연구소, 글로벌경제연구소, 발전설비연구소, 물산업융합연구소, 미래자동차연구소 등 14개의 특별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미국의 워싱턴주립대학교, 코넬대학교, 독일의 베를린자유대학교를 비롯해 해외 274개의 대학 및 기관과 자매결연을 하고 교환학생, 국외현지학기, 단기해외언어연수, 주한미군부대인턴십, 국외문화탐방, 국외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계명대학교는 성서캠퍼스와 대명캠퍼스 두 곳으로 나뉘어 있다. 현재 재학생수는 학부 21,992명·대학원 2,369명으로 총 24,361명(2018. 4. 1.기준)이며, 교직원수는 2,293명이고 이 중 전임교원은 917명(2018. 4. 1.기준)이다. 캠퍼스 부지는 교사 15만평(500,458㎡)과 교지 135만평(4,471,488㎡/성서 50.2만평, 대명 2.2만평, 동산 2.9만평, 칠곡 73.8만평, 달성 5.6만평, 기타 0.8만평)을 확보하고 있다.

(3) 대구가톨릭대학교

DCU 대구가톨릭대학교 DAEGU CATHOLIC UNIVERSITY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 홈페이지【http://www.cu.ac.kr】

1914년 5월 3일 대구에 설립된 성유스티노 신학교에서 출발했다. 이 신학교는 1945년 일제의 강압에 의해 문을 닫았다. 1952년 4월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전신인 효성여자초급대학이 설립되었다. 개교 당시 국문학과, 가정학과, 음악학과가 개설되었다. 1953년 4년제 효성여자대학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여러 학과를 신설하고 건물을 새로 준공했다. 1980년 10월 6개 단과대학을 갖춘 종합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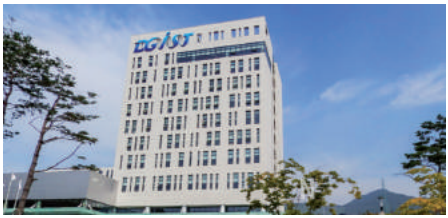
이 되었다.

1982년 학교법인 선목학원에 의해 일제강점기에 문을 닫았던 성유스티노 신교가 선목신학대학으로 개교했다. 1985년 선목신학대학이 대구가톨릭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다. 1994년 12월 효성여자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선목학원이 운영하는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로 통합되었다. 2000년 5월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가 대구가톨릭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2018년 기준 효성캠퍼스(경산시 하양읍), 루가캠퍼스(대구시 대명동), 유스티노캠퍼스(대구시 남산동) 등 3개의 캠퍼스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신학대학, 바이오메디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음악대학, 디자인대학, 자율전공학부 등 11개 단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 333
- 홈페이지【http://www.dgist.ac.kr】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지역 균형과 국가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2004년 특별법으로 설립, 국책연구기관으로 출범하여 2011년 대학원과 2014년 학부 과정을 개교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이다.

학사부와 연구부가 상호 협력하며 공존하는 국내 유일의 연구기관이며, 강력한 융복합 교육과 연구를 통해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작지만 강한 대학이다. 2034년까지 글로벌 리더 6,000명을 양성하고, Center of Excellence를 10개 운영하여 세계적 석학을 50명 이상 배출하며, 유니콘 기업 5개를 설립하고 연구소 기업 200개를 설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DGIST는 융복합 교육(Convergence Education), 리더십 교육(Leadership Education), 기업가정신 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이라는 교육철학의 바탕 위에서, '무학과 단일학부,' '학부교육 전담교수제,' '융복합 전자교재(e-book)'로 구성된 교육혁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무학과 단일학부'에서는 기초과학과 기초공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비교역사, 철학 등의 인문사회 교육과 1인 1악기,

태권도 교육을 병행하여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학생들은 3~4학년에 UGRP(Undergraduate Group Research Program : 학부생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초과학, 공학, 인문사회학, 기술사업화를 주제로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며 졸업 후의 진로를 구체화하게 된다. '학부교육 전담교수제'는 학부생들만을 위한 교육, 연구지도, 멘토링을 제공하여 개개인이 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융복합 전자교재(e-book)'는 스마트 교육의 중심이며 효과적인 융합과학 교육을 구현하고 있다.

(5) 대구교육대학교

- 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 홈페이지【http://www.dnue.ac.kr】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국립교육대학교이다. 1950년에 대구사범학교로 시작하여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전통이 있는 대구교육대학교는 '슬기·보람·사랑'을 바탕으로 초등교육 발전과 인류복지에 이바지 할 참된 스승을 기른다는 대학이념 아래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초등교육학과에 12개의 심화과정(학부)과 20개의 전공(교육대학원)이 있으며,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된 스승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졸업한 선배들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대구교육대학교는 참 스승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소중한 배움터이다.

학교 전신은 1950년에 설립된 국립대구사범학교이다. 광복 후 도내 몇몇 일반계 고등학교에 사범과를 병설하여 초등교원을 양성하도록 하다가, 교사교육의 일원화 방침에 따라 이미 병설한 사범과를 폐지하고 초등교원양성소를 설치하였다. 1950년 3월 이 양성소의 학생 180명을 강습과로 흡수, 개편하면서 대구사범학교를 개교하였으며, 초대 교장 김영기가 취임하였다. 3년제 본과와 1년제 강습과·연수과로 편성하여 본과는 중학교 3년 졸업자, 강습과는 고등학교 1년 수료자, 연수과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1953년 6월 현재의 위치로 교사를 이전하였다. 1959년 5월에 대구사범학교 부속국민학교가 개교하였다. 1962년 초등교원의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법」개정

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년제 경북대학교 병설 교육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초대 학장에 김위석이 취임하였다.

이듬해인 1963년 3월에 경북대학교에서 분리되어 대구교육대학으로 개편하고, 초등교원연수원을 설치하였다. 1966년 초등교원양성소와 1968년 교원교육원을 부설하고, 1972년 한국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의 협력대학으로 위촉되었다.

1982년 초등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어 모집정원을 60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1985년부터 야간 및 계절제 수업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1993년 3월 대구교육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1996년 교육대학원이 설치되었다. 1998년 12월에 대구부속초등학교로 이전하였으며, 2003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평가 국립대학 자체발전계획 추진실적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2006년 11월에 교육인적자원부 주최 제1회 전국 국립대학 혁신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07년 2월에는 교육대학교·교대교육대학원 평가 교육대학교 부분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2009년 3월에는 다문화교육센터 및 영어교육센터가 설립되었다.

교훈은 '슬기·보람·사랑'으로 국민교육의 수임자로서 존경받는 스승이 되고 신뢰받는 선도자임을 자각하며, 긍지와 사명을 새로이 명심하고 스승의 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 7월 현재 교원 159명(대구부설초등 26명, 안동부설초등 26명 포함)과 직원이 60명이며, 2017년 현재 대구사범학교 본관 12회 2,680명, 대구사범학교 과정수료 1,236명, 대구교육대학교(2년제) 1회부터 20회까지 7,614명, 대구교육대학교(4년제) 21회부터 52회까지 16,959명을 배출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3,084명은 방학 및 야간 재교육 과정을 거쳐 4년제 과정을 졸업하여 총 31,57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현재 재학생은 1,631명(남 546명, 여 1,085명)이며, 각 학년 420명이 정원이며 학급당 30명 정원으로 14학급씩 운영되고 있다.

(6) 대구대학교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홈페이지【http://www.daegu.ac.kr】

대구대학교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기독교계열 사립 종합대학이다. 대구대학교의 모체는 설립자 이영식 목사가 1946년 소외층에 대한 사랑과 기독교정신을 토대로 출범시킨 대구맹아학원이다. 1956년 5월 1일 사설강습소 형태로 설립한 한국이공학원이

1958년 재단법인 대구맹아학원이 설립한 한국사회사업학교에 통합되었다.

한국사회사업학교는 1961년 한국사회사업대학으로 승격했다. 1964년 학교법인 명칭을 영광학원으로 변경했다. 한국사회사업대학은 1972년 산업복지연구소를 세웠다. 1976년 펜싱부를 창단했다. 1979년 한사대학으로 학교 이름을 바꿨다가 1981년 10월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지금의 대구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같은 해 12월 한사실업전문대학을 통·폐합했다. 2006년 현대목칠공예전시관의 문을 열고, 국내 최초로 '점자출판 박물관'을 개관했다.

대구대학교는 인문교양대학(S-LAC), 행정대학, 경상대학, 사회과학대학, 과학생명융합대학,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조형예술대학, 사범대학, 재활과학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보건학부, DU인재법학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대학원 외에 사회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 재활과학대학원, 산업행정대학원, 디자인대학원 등을 두고 있다. 부속기관으로 중앙도서관, 점자도서관, 평생교육원, 재활과학원, 중앙기기원, 영덕연수원 등이 있고, 부설연구소로는 고령사회연구소, 관광축제연구소,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유비쿼터스 신기술 연구센터 등이 있다. 도서관은 161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기숙사는 1,750실을 갖추고 3,600명을 수용하고 있다.

2016년 기준 해외 28개국 178개 대학 및 기관과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한국어·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교환학생, 복수학위, 학부 방문학생, 외국어연수(장기), 해외현장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에는 대구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광명학교, 대구영화학교, 대구보명학교, 대구보건학교, 대구덕희학교, 포항명도학교,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 및 부속 영광유치원 등이 있다.

현재 대구대학교 학생수는 재적 28,119명(학부 26,153명)에 재학 19,568명(학부 17,871명)이며, 교직원은 1,302명(전임교원 641명, 직원 360명, 조교 301명)이며, 대구캠퍼스와 경산캠퍼스가 있으며, 교사는 388,000㎡(대구 30,000㎡, 경산 358,000㎡), 교지는 2,681,000㎡(대구 15,000㎡, 경산 2,666,000㎡)를 확보하고 있다.

(7) 대구한의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Daegu Haany University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 홈페이지【http://www.dhu.ac.kr】

경상북도 경산시 유곡동과 여천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에 있는 사립 대학교이다. 1980년 12월 대구한의과대학으로 설립, 인가되어 10년을 지나면서 학과가 증설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1991년 12월 교명을 경산대학(慶山大學)으로 변경하고 교육목표도 한의학 중심에서 인문·사회·자연 과학을 망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1992년 3월 다시 교명을 경산대학교로 변경하였고, 2003년 5월에 다시 대구한의대학교로 변경하였다.

삼성캠퍼스는 경상북도 경산시 유곡동에, 수성캠퍼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에, 오성캠퍼스는 경산시 여천동에 위치해 있다.

현재 한의과대학·바이오산업대학·의과학대학·웰니스융합대학·기초교양대학 등 5개 단과대학과 계약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대학원·보건복지대학원·교육대학원·한방산업대학원 등 4개의 대학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구한의대학교에 부속된 병원으로는 대구한방병원과 구미한방병원이 있었는데, 구미한방병원은 2011년에 폐지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구한의대학교 산하에 2000년 4월 포항한방병원이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구한의대학교부속 대구한방병원에는 한의학부 강의동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8) 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 Yeungnam University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 홈페이지【http://www.yu.ac.kr】

1947년 9월에 대구대학(大邱大學)이 설립되었고, 1950년 4월에는 청구대학(靑丘大學)이 설립되었다. 그 뒤 1967년 12월에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을 합병, 당시 대통령 박정희를 설립자로 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서 발족되었다 .

초대 총장에 신기석이 취임하였으며, 문리과대학·공과대학·법정대학·상경대학·약학

대학·2부대학의 6개 단과대학 35개 학과와 대학원으로 편성하였다. 1968년 12월에 축산대학과 가정대학을 신설하고, 1970년 2월에 경영대학원을 설치하였다.

같은 해 3월 문리과대학·법정대학·상경대학의 이전을 시작으로, 1972년까지 현재의 위치로 교사를 모두 이전하였으며, 1972년에 사범대학을 신설하였다. 1973년 12월 축산대학을 농축산대학으로 변경하고, 1979년 12월에 환경대학원, 1980년 10월에 의과대학, 같은 해 11월에 교육대학원, 1981년 4월에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을 신설하였다.

1983년 5월에 영남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을 개원하였으며, 1986년 5월에 의료원으로 승격·발족하였다. 1994년 8월에 공과대학 국책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1996년 3월에 지역협력연구센터를 개소하였다. 1999년 4월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4년간 연속)으로 선정되었으며, 1998년 9월 영천 성베드로 병원을 인수하였다.

2000년 4월 교육부 주관 교육대학원 평가에서 우수대학원으로 선정되었고. 2001년 2월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학문분야 평가에서 컴퓨터 공학분야가 학부, 대학원 최우수, 전기전자통신분야가 학부 최우수, 대학원 우수, 재료공학분야가 학부, 최우수, 대학원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2005년 4월 '독도연구소'가 전국 대학 최초로 설립되었다. 2009년 3월에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였다. 2010년 3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교육역량강화사업 3년 연속 선정되었다.

2011년 11월에 새마을학의 체계화 및 세계화를 위해 '박정희정책 새마을대학원'이 개설되었으며, 2013년 6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국제협력선도대학'으로 선정되었다.

'YU the Future' 미래를 만드는 대학을 비전으로 법학전문대학원, 6년제 약학대학 등 고급 전문 인력의 양성은 물론 천마인재학부, 그린에너지연합전공 등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Y형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7년 9월 현재 학부 193,421명, 대학원 30,30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2017년 9월 현재 재적생은 32,938명(학부 29,887명, 대학원 3,051명)이며, 교직원은 교원 1,250명(전임 917명)과 직원 2,29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캠퍼스는 교지가 4,471,488㎡(135만평, 성서 50.2만평, 대명 2.2만평, 동산 2.9만평, 칠곡 73.8만평, 달성 5.6만평, 기타 0.8만평))가 있고, 그 중에서 교사가 500,458㎡(15만평)를 차지하는 매머드급 사립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9) 전문대학교

광복 후 우리나라의 단기고등교육기관으로는 1949년「교육법」에 따라 발족된 2년제 초급대학이 있었고, 1964년부터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5년제 실업고등전문학교가 설치되었다. 1970년에는 실업고등전문학교가 2년제 초급대학에 준하는 전문학교로 개편되었고, 1979년에는 기존의 초급대학과 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승격 개편하였다. 2011년부터는 전문대학도 법적으로 '대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대구에도 1978년부터 1979년간에 전문학교들이 모두 전문대학으로 승격 개칭되어 대구시내에는 영남공업전문대학, 경북공업전문대학, 대구공업전문대학, 영진공업전문대학, 계명실업전문대학, 신일실업전문대학, 대구간호전문대학, 대구보건전문대학, 동산간호전문대학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1988년에는 경북공업전문대학이 경북산업대학으로, 1989년에는 동산간호전문대학이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로 설치 인가됨에 따라 이 학교는 폐교되었다.

2018년 현재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안에서 설립 운영 중인 주요 전문대학교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개설되어 있는 학과를 살펴보면 대구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진로·직업군의 정체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자료 : 각 대학 홈페이지와「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대구광역시 소재 전문대학교 현황 (가나다 순)

◎ 계명문화대학교

- 설립 : 1962. 2. 27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
- 홈페이지【http://www.kmcu.ac.kr】☎053-589-7744
- 개설학과 : ○인문사회계열/유아교육(3년)·경영학부·호텔항공외식관광학부·세무회계정보·사회복지상담·경찰행정·군사학부·아동보육·보건학부(3년) ○자연과학계열/식품영양조리학부·간호학(4년) ○공학계열/건축인테리어·소방환경안전·컴퓨터학부(3년)·전자정보통신·기계 ○예체능계열/패션학부·디자인학부·생활체육학부·생활음악학부·디지털콘텐츠학부·뷰티코디네이션학부·기업브랜드학부
- 현황 : 2013년 현재 4개 계열, 25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창학 이념은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로 되어 있으며, 부속기관으로는 도서관·학보사·교육방송국·전자계산소 등이 있으며 부설연구소로 학생생활연구소·산업개발연구소·교육문화연구소·디자인연구소가 있다. 총학생회에서는 매년 '비슬축전'과 '비슬한마당'을 열고 있으며, 30개 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활동을 하고 있다.

◎ 대구공업대학교

- 설립 : 1975. 12. 30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송현로 205
- 홈페이지【https://www.ttc.ac.kr】☎053-527-0501
- 개설학과 : ○공학/자동차·기계·전기전자계열·신재생전기전공·전자정보통신·항공정비·공병부사관·건축·토목조경 ○인문사회계/사회복지경영계열·사회복지경영전공·아동복지전공·노인복지상담전공·유아교육·보건의료행정 ○자연과학계/호텔외식조리계열 ○예체능계/헤어디자인전공·메이크업분장예술전공·피부&네일전공
- 현황 : 2014년 현재 8개 계열에 6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학훈 '정직, 근면, 창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속기관으로는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원, 도서관, 박물관, 지식정보원, 산업기술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학보사, 교지편집국, 교육방송국, 출판부, 예비군대대가 있다. 학생활동으로는 20여개의 동아리를 중심으로 활발한 학생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5월에는 '학산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 대구과학대학교

- 설립 : 1960. 1
- 위치 : 대구시 북구 영송로 47
- 홈페이지【http://www.tsu.ac.kr】☎053-320-1114
- 개설학과 : ○자연과학계열/간호학(4년)·치위생(3년)·물리치료(3년)·안경광학(3년)·의무행정·식품영양조리학부·방송엔터테인먼트코디 ○인문사회계열/유아교육(3년)·호텔관광·금융부동산·아동청소년지도·경찰경호행정·서비스컨설팅·의료복지·국방기술행정 ○공학계열/측지정보·반도체전자·컴퓨터정보통신·건축인테리어 ○예체능계열/보석감정주얼리·레저스포츠
- 현황 : 2015년 현재 23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교훈은 '진리, 창의, 박애'이고,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실질적인 응용, 실습방법을 교수, 연마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함을 설립이념으로 삼고 있다. 부속기관으로는 중앙도서관, 평생교육원, 취업정보센터, 국제교류센터, 전산정보운영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NCS지원센터, 학생생활관, 영송기념관, 제주연수원, 대련교육관, 학보사, 교지편집국, 교육방송국 등이 있다.

◎ 대구보건대학교

- 설립 : 1971. 12. 23
- 위치 : 대구시 북구 영송로 15
- 홈페이지【http://www.dhc.ac.kr】☎053-320-1300
- 개설학과 : ○보건계/임상병리·방사선·치기공·치위생·물리치료·보건행정·안경광학·언어치료·작업치료·식품영양·환경보건·스포츠재활·보건의료전산·뷰티코디네이션·호텔외식조리학부 ○간호계/간호학 ○공업계/소방안전관리 ○사회실무계/세무회계·사회복지·유아교육 ○예체능계/디지털산업디자인
- 현황 : 2014년 현재 5개 계열(보건계·간호계·공업계·사회실무계·예체능계)에 22개 학과·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훈은 '창의, 연마, 성실'로서 1971년 개교한 대구보건대학은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보건의료분야 선도대학으로 38년 동안 5만 5천여 중견전문인을 배출하였고, 고령친화산업의 중추기관인 대구 시니어 체험관 운영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대규모 의료봉사, 헌혈축제 등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 수성대학교

- 설립 : 1973. 12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28길15
- 홈페이지【http://www.sc.ac.kr】☎053-749-7000
- 개설학과 : ○공학계열/컴퓨터정보과·드론기계과·VR콘텐츠과 ○자연과학계열/간호학과(4년)·방사선과(3년)·치기공과(3년)·안경광학과(3년)·치위생과(3년)·보건행정과·애완동물관리과·뷰티스타일리스과·피부건강관리과·재활과·호텔조리과·제과제빵커피과 ○인문사회계열/유아교육과(3년)·사회복지과·경찰행정과·보건복지경영과·군사학과·호텔항공관광과·법률회계과 ○예체능계열/스포츠레저과·아동미술보육과
- 현황 : 2015년 현재 26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교훈은 '시대가 요구하는 참인재가 되자'로 되어 있으며, 부속기관으로는 학보사·도서관·전자계산소·교육방송국·교지편집국 등이 있으며 부설연구소로는 유아교육연구소·위생과학연구소·학생생활연구소·민족통일연구소·사진영상연구소 등이 있다. 20여 개의 동아리를 중심으로 활발한 학생활동을 하고 있다. 5월에 '두봉골체전', 10월에 '두봉골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 영남이공대학교

- 설립 : 1968. 2. 15
- 위치 : 대구시 남구 현충로 170
- 홈페이지【http://www.ync.ac.kr】☎053-650-9114
- 개설학과 : ○간호대학/간호학(4년) ○생산기술대학/기계계열·화장품화공계열·전기자동화·전자정보계열 ○토목건축학부/건축·토목 ○사회실무학부/경영계열·부사관·세무회계 ○관광외식학부/식음료조리계열·관광계열 ○보건복지학부/보건의료행정·사회복지&보육·뷰티스쿨·물리치료(3년)·치위생(3년) ○독립학과(계열)/자동차/컴퓨터정보(3년)/사이버보안(3년)/카지노&Surveillance(감시)/패션디자인&마케팅/디자인스쿨
- 현황 : 2015년 현재 2개 대학(간호대학·생산기술대학), 5개 학부, 25개 학과·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지성의 전당으로서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교육과 생산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민족중흥의 새 역사 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학훈은 '성실, 협동, 봉사'이다. 부속기관으로 도서관, 전산정보원, 국제교류교육원, 학생생활관, 지역사회봉사센터, 예비군대대가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산업기술연구원, 평생교육원을 두고 있다. 해외교류협력 대학으로는 캐나다의 SAIT대학, 미국의 클라크 대학, 대만의 대북과기대학 외 9개국 19개 학교와 교류협력 중에 있다.

◎ 영진전문대학교

- 설립 : 1977.3.12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로 35
- 홈페이지【http://www.yjc.ac.kr】☎053-940-5114
- 개설학과 : ○계열/컴퓨터정보(3년;컴퓨터프로그래밍·웹데이터베이스·스마트게임콘텐츠)컴퓨터응용기계(CAD기계설계·금형,공작기계·로봇자동화시스템)전자정보통신(전자정보·솔라반도체·IT소재)신재생에너지전기(신재생에너지·디지털전기)건축인테리어디자인(건축디자인·실내건축디자인)스마트경영(서비스마케팅·회계금융)국제관광조리(호텔항공·관광외국어통역)부사관(항공정비·의무부사관·국방전자통신) ○학과/콘텐츠디자인·사회복지·유아교육(3년)·간호학(4년)
- 현황 : 2015년 현재 9개 계열에 4개 학과로 구성되었으며, 37회 졸업식을 거치며 총 9만 448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학훈은 '창의, 성실, 봉사'로서 영진전문대학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연마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직업관을 고양시킴으로써 창의적이고 유능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한국폴리텍대학[달성]

- 설립 : 1987. 7
- 위치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26
- 홈페이지【http://dalseong.kopo.ac.kr】☎053-610-6600
- 개설학과 : ○비학위직업훈련과정/전문기술과정(기능사)·컴퓨터응용기계·자동화시스템·자동차전기제어·스마트전자/실업자교육(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컨소시엄·사업주위탁훈련·취약계층훈련)/재직자교육(재직자훈련·컨소시엄·사업주위탁훈련·고용유지훈련·유급휴가훈련·통합심사사업훈련·애로기술지도)

◎ 한국폴리텍대학[대구]

- 설립 : 1973. 1. 1
- 위치 : 대구시 서구 국채보상로 43길 15
- 홈페이지【http://kopo.ac.kr/daegu】☎053-567-0101
- 개설학과 : ○학위과정//2년제 학위과정/신소재응용·금형디자인·스마트전자·메카트로닉스·컴퓨터응용기계·산업설비자동화·스마트전기 ○비학위직업훈련과정/전문기술과정(기능사)·콘텐츠디자인·하이테크과정·스마트자동화·신중년특화과정·산업설비자동화(특수용접)·스마트전기(전기설비기술)·여성재취업·베이비부머 과정/실업자훈련(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재직자훈련(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사업주위탁훈련)

◎ 한국폴리텍대학[섬유패션]

- 설립 : 1997. 1. 3
- 위치 : 대구시 동구 팔공로 222
- 홈페이지【http://www.kopo.ac.kr/tf】☎053-980-1100
- 개설학과 : ○학위(학력)과정//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패션소재·텍스타일디자인·융합디자인·패션디자인·패션마케팅·패션메이킹·교양 ○비학위직업훈련과정/전문기술과정(기능사)·패션디자인·하이테크과정·글로벌마케팅·하이테크소재·신중년특화과정·패션메이킹/실업자교육(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재직자교육(사업주위탁훈련·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애로기술지도)

※[참고] 한국폴리텍대학(Korea Polytechnic College, 한국과학·기술 전문대학)

- 정의 : 전국 11개 대학, 35개 캠퍼스로 구성된 국책 특수대학.
- 연원 및 변천 : 1977년 제정된 「기능대학법」에 근거하여 1980년 설립된 창원기능대학(지금의 폴리텍 VII대학)을 시작으로 1990년대 후반까지 18개 기능대학과 22개

직업전문학교가 운영되었다. 1999년 제천기능대학과 서울정보기능대학을 개교하였으며, 2000년 울산기능대학, 2001년 항공기능대학, 2002년 아산정보기능대학, 2005년 바이오기능대학이 개교하였다. 2005년 「기능대학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의 개정을 통해 2006년 3월 한국폴리텍대학이 출범하였다.

- 현황 : 2010년 현재 산업학사 학위과정(2년), 기능사과정(1년/6개월), 기능장과정(1~2년), 재직근로자훈련과정, 실업자를 위한 훈련과정 등 고객 중심의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캠퍼스는 전국에 11개 대학(4개의 특성화대학 포함), 35개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폴리텍I대학(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제주캠퍼스), 한국폴리텍II대학(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한국폴리텍III대학(춘천캠퍼스, 강릉캠퍼스, 원주캠퍼스), 한국폴리텍IV대학(대전캠퍼스, 청주캠퍼스, 아산캠퍼스, 홍성캠퍼스, 충주캠퍼스), 한국폴리텍V대학(광주캠퍼스, 김제캠퍼스, 고창캠퍼스, 목포캠퍼스, 익산캠퍼스, 순천캠퍼스), 한국폴리텍VI대학(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달성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한국폴리텍VII대학(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한국폴리텍 여자대학, 한국폴리텍 섬유패션대학, 한국폴리텍 항공대학, 한국폴리텍 바이오대학 등이 있다. ♧

[편저] 대구교육누리

권성윤 (대구교육누리 부설 교육연구소장)
류병윤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책실장 ·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방기복 (능인고등학교 교사)

대구정체성 핸드북 「대구를 찾아서」

발행일 : 2018년 9월
발행처 : 대구광역시(대구문화재단)
조사/연구기관 : 대구교육누리
주　소 : (우)42125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1, 8층 (수성동 2가, 광덕빌딩)
전　화 : (053)562-7680
홈페이지(카페) http://cafe.daum.net/edunuri

* 이 책자의 내용을 재발간·복사 등 어떤 형태로도 사용할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은 대구광역시의 '대구정체성 보급 및 확산' 사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대구를 찾아서

「대구정체성」 핸드북

대구를 찾아서

대구문화재단
Daegu Foundation for Culture

대구교육누리